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6 호 3월31일

근로자 一九五〇년 제六호 로동신문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第6호 (52)

1950년3월31일

내 용

권두언 생산 과정에서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하자……(三)

원쑤들의 「동기 로벌」을 완전 실패시킨 영용한 남반부 인민 유격대와 그들의 당면 임무……리 승 엽(九)

춘기 파종기에 있어서의 농촌 당 단체들의 과업……리 구 훈(二三)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 있어서 직업 동맹 단체들의 역할……정 가 원(三三)

생산력 제고는 인민 경제 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다……임 해(四四)

—참 고 자 료—

이·브·쓰딸린 전집 제二권에 대하여……쁘·뽀스뻴로브(五六)

로씨야에로의 맑쓰주의 사상 보급……브·아·차 긴(六八)

정 정 표

본지 六호 중 오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함。

九〇페지 하단 九행 『분격』을 『흥분』으로、一〇一페지 상단 一二행 『으로써 선진』을 『이 첫번째로 된』으로、一〇六페지 상단 一〇행 『한 데 대하여 실강』을 『하려[illegible] 기도』로、一一三페지 상단 첫행 『된』은 『될 수 없었던』으로 봄。

생산 과정에서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하자

조국을 자주 독립 국가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주체 인민의 강력한 군사 정치 경제적 힘의 원천인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더욱 튼튼케 하는 인민 경제 건설은 민주 력량과 반동 력량 간의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당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산하의 정당 사회 단체들과 더불어 전체 인민들을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며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개혁의 성과를 고수하며 그 성과들을 더욱 확고 발전시키는 데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조직 추동할 것을 각급 당 단체와 전체 당원들 앞에 제시하고 있다。

오늘 국제 국내의 민주와 반동 간의 투쟁이 더욱 첨예화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계급적 원쑤들의 도전적 방법은 각종 각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더우기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서 제국주의 두목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리승만 역도들이 반인민적 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자기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상실당한 계급적 패잔 분자들과 결탁하여 우리의 민주 건설을 파괴하려고 교활하게도 보략 분자、탐정 분자들의 파견 잠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정치적 경각성을 보다 제고할 데 대하여 당 중앙 위원회 정기 회의는 인민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며 그 후 그를 파괴시키려고 시도하던 쯔쁘로브(불가리야) 라이크(항가리) 및 기타 미 영 제국주의자의 주구들의 사건과 같은 국제적 사변들을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와 매개 당원들은 일층 긴장되고 동원된 상태에서 「…생산에서 화재、사건이나 생산

정지 및 기계 파손 등의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경각성을 높이어 면밀히 심의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며 파손이나 또는 생산 정지를 야기하는 어떠한 태만이든지 이것은 국가적 범죄와 동일한 행위로써 추궁—(허가이)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 각 생산 직장 내 당 단체들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결정이 있은 후 정치적 경각성을 더욱 제고하며 생산 행정의 정상적 템포를 보장하기 위한 군중적 운동을 광범히 조직 지도하고 있으며 많은 우리 당 단체와 당원들이 이 사업을 사회적 정치 투쟁의 성과로 보장함에 있어 자기의 우수한 조직적 기능과 지도 력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 당 단체들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가 엄격히 제시한 생산 행정에서의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하는 투쟁에서 산업 경제 기관들에 구체적 방조를 줄 데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화함이 부족하며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고도의 긴장성과 자각성을 높이게 하는 당적 정신과 투쟁성으로 교양 훈련하는 사업들이 일부 아직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결과 부분적으로 작업에 있어서 로동 규률이 무질서하며, 극히 부분적이나마 기계의 훼손과 기계 점검 보수 제의 불철저로 말미암아 생산이 가끔 정지되며 자재 원료를 제때에 보장 못하며 원료 자재 및 자금의 랑비 등 현상들이 아직까지도 철저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 단체들이 생산 행정에서의 이러한 정치적 경각성의 부분적 해이로 말미암아 생산 실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장과 곤난을 야기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날카로운 주의를 경주하고 그를 검토하며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부족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일성 동지는 산업 부문 경제 일군 및 직맹 열성자 회의 총결 연설에서 「공장 시설 및 아그레가트의 휴전과 많은 불합격품 생산은 도저히 용허할 수 없으며 기계 사고는 생산의 큰 타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산을 제고하며 원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기계 사고를 방지하며, 불합격품 생산을 적게 하며 흠전들을 적게 하는 투쟁을 파감하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고를 초래하게 한 원인을 자세히 알며 그것을 앎으로써 사고를 퇴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하시였다.

일부 산업 일군들은 기계 사고는 기계가 로쇠되어 파손되거나, 부속품의 장비 대체가 못되어 발생되며, 또는 종업원들이 작업과 기계 운영에 숙련되지 못하여 야기되는 것이라고만 간주하고 있다.

기계 정지와 사고 등은 단순한 객관적 우연한 조건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부 산업 일군들의 정치적 암매성과 용허할 수 없는 기회주의적 안일성으로 사업하는 틈을 리용하여 계급적 적대 부자들이 파괴, 해독적 모략, 책동으로 생산에 조해를 주고 있는 데 기인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산업 생산 행정이 파괴 암해 해독적 부자들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재까지의 정확한 재료가 여실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의 정치적 경각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결함은 일부 당 단체들에서 사업상 옳지 못한 행동 및 사실들과 타협하는 온정주의적 경향과 약간의 성과에 도취하여 사업 행정에서 나타난 결점들에 대하여 결정적 투쟁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한 결과 전체 생산의 각 분야에 있어서 무책임성과 책임 회피에 철저한 타격을 주며 기업소들의 정상적인 작업을 상호 담보하는 원료 자재의 공급과 물품들을 제때에 민활하게 계획대로 보장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리하여 산품 생산의 주야 순간 및 월간 계획을 품종별로 량과 질로 보장하는 사업이 엄격한 질서 위에서 철저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작품과 불합격품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 계획을 숫자적으로만 달성하기 위하여 산품의 규격과 산품의 품질을 고려함이 없이 생산함으로써 귀중한 원료와 로력을 소모하여 오작품을 생산하는 것, 계획 실행을 위하여라는 구실 하에 생산비를 타산함이 없이 원가 제고를 가져오는 것 등은 계획 실행 성과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는 국가에 대한 엄중한 해독 사업이며 엄중한 범죄적 행위인 것이다. 지금까지 생산 과정에서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할 구체적 대책을 강화하고, 간혹 기계 정지 및 파손과 화재 사건 또는 오작품과 불합격품 생산 등의 여러가지 경우를 단순히 생산에서의 태만이나 종업원들이 작업과 기술에 숙련되지 못한 원인으로만 파악

대하게 취급하지 않고 그 원인을 밝히며 시급히 퇴치할 방책을 당 단체들이 철저히 보장하고 있었다면 생산 계획실행 행정이 정상적 템포 위에서 주야 순간 질서있게 책임량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실지 사실과 실제 체험이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의 힘의 증대에 따라서 적이 점점 온순해 지고 점점 무해하게 되려하는 것과 같은 그릇된 예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기회주의적 관대성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대가 아니라 경각심이며 진정한 혁명적 경각심이다」라고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력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은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행정이 민주 력량과 반동 파괴 암해 책동적 분자들과의 첨예한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진행된다는 사실과 「죽어가는 계급이 자원적으로 무대에서 물러나간 그러한 경우는 아직도 력사에 있은 적이 없다」는 쓰딸린 대원수의 교시를 깊이 명심하고 죽어가는 계급이 자체의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체의 모든 나머지 힘을 다 리용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나오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여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경각심을 더욱 굳게 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우리들은 적의 파괴 암해 공작이 얼마나 교활하며 음흉한가를 쏘련 인민들이 쏘련에서 사회주의 성공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체험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쏘련에서 전복당한 지주—자본가 계급의 대변자인 또로쯔끼파와 부하린파들의 절망적이고 광포한 모략 책동과 또 그것으로부터 현출된 제발 파괴 암해 행위들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쏘련 인민들은 이를 과감히 폭로 박멸하고 위대한 사회주의 승리를 성취하였다。

오늘 우리들은 조국의 부강 민주 발전을 위한 산업 경제 건설 투쟁에 있어서 쏘련 인민들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의 인민들이, 적대 계급과 간첩 파괴 부자들과의 투쟁에서 체험하고 승리한 교훈을 옳게 살리어 적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강화하여 우리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 과정에서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직장과 작업반 세포 대가트 및 로동자들이 작업하는 구체적 정형을 료해하고 당 력량을 균형적으로 정확히 배치하며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우수한 로동자 당원들을 광범히 당 사업에 참가시키며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하고 기계 및 작업장에서 로동자들과의 일상적, 련계를 강화하고 적의 잠입과 암해 행동들에 대하여 예리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 책임량의 성과적 실행이 적들과의 투쟁에 있어서의 승리적 성공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케 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산업 생산이 계획적으로 달성 또는 초과 달성되며 모든 건설이 성공적으로 진척되는 전 과정은 그것이 적들의 몰락해 가는 마지막 운명을 더욱 촉진시키며 우리들의 승리에 대한 확신성을 굳게 하며 우리의 승리를 더욱 힘차게 강화 발전시킨다。

생산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경각성의 제고는 당원들의 고상한 당성과 우리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적 자각성 위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당원들의 고상한 당성과 인민들의 애국주의적 자각성은 철저한 비판과 자기 비판을 강화하고 당 로선에서 리탈되는 경향과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으며 계급적 각성을 제고하여 온갖 이색 분자 및 기회주의적 경향들을 폭로 분쇄하며 어떠한 가면을 쓴 원쑤라도 능히 폭로하고 성공적으로 박멸함으로써 우리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인민적 투쟁에서 표현된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한바 산업 부분 당 단체의 사업에 있어서 과오와 결점을 퇴치하는 결정적 조건인 비판과 자기 비판의 토대 위에서 사업상 결점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사업 상에 있어서 무책임성과 책임 회피성을 퇴치하며 모르면서 아는체하는 것과 옳지 못한 현상과 타협하는 온정주의적 경향과 온갖 안일성을 근절하고 약간의 성과에 대하여도 도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자만 자족성과 안일 무사주의적 경향이 만일 직접적인 언행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이에 대한 당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하여 이들과의 과감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며 이를 제때에 폭로 비판하면서 당원들을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 위에 견지시켜 생산 행정에서 선봉적인 모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공장 중요 관리 일군이 낡은 경제적 지반의 몰락에 불만을 품고 인민 주권의 시책을 은연히 반대 외곡하며 공장 관리 운영에 태공하고 공장 내 불순 비행 사건 심지어는 파괴 암해 행위 등을 비호 조장하며 경제 계획 달성에 많은 지장과 해독을 가져왔던 실지 경험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의 제반 진행 정형과 조건 및 곤난한 문제들을 당 단체는 항상 고도의 긴장성과 민활성으로 제때에 취급 해결함으로써 유일 관리제를 확보하고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작업에서 표준 조작법을 준수케 하며 생산에서 불합격품과 오작품을 근절하고 생산 실행이 정상적 궤도에서 진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또한 생산에서의 화재 사건이나 생산 정지 및 기계 파손 등의 사건들에 대하여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를 근절하고 그 원인을 당 위원회 또는 총회 및 분조들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며 시급히 퇴치하는 방책들을 강화하는 투쟁을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반드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 과정에 있어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정치적 경각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급 당 단체들은 또한 직업 동맹 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시키는 사업에 높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직업 동맹 단체들로 하여금 전체 맹원들을 적과의 견결한 투쟁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생산 행정에서의 경각성의 해이를 근절하고 락후한 로동자들을 앞선 로동자들의 수준에로 올려 세우며 생산 책임량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의 광범한 조직적 력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 초과 완수의 국가적 전민족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 기업소들에서 정치적 경각성을 제고하는 투쟁을 일층 강화하는 사업은 오늘 우리 당 단체 앞에 더욱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

각급 당 단체들은 모든 생산 부문에서 반동 파괴 암해 분자들과 과감히 투쟁하며 생산 질서를 교란하려는 온갖 해독적 요소들을 철저히 소탕하고 일체 비국가적 반인민적 현상들을 철저히 분쇄하며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산품 생산의 주야 순간 및 월간 예정 숫자 별로 초과 달성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원쑤들의 「동기 토벌」을 완전 실패시킨 영용한 남반부 인민 유격대와 그들의 당면 임무

리 승 엽

남반부 인민들에 대한 리승만 역도들의 야만적 학살과 우리 나라를 비참한 동족 상잔의 내란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놈들의 흉악한 음모가 날로 적극화되고 있다.

오늘날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자의 완전한 식민지로 변화시키고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는 리승만 역도들은 남반부 인민들을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일제의 유린 하에 또다시 쓸어 넣으려는 흉악한 범죄적 행위까지 감행하고 있다.

해방 후 四년 동안 미제의 「원조」 하의 남반부 민족 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었으며 농촌 경리의 피폐는 인민들의 비궁과 기아의 비참한 사태를 초래하였다.

리승만 역도들은 인민들에 대하여 무차별 학살 테로를 감행하고 있으며 더우기나 조국의 통일과 영예와 인민들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일어선 영웅적 인민 유격대에 대한 범죄적 「토벌」에 광분하고 있다.

× × ×

작년 락엽기를 맞으면서 리승만 역도들은 놈들의 전 력량을 경주하여 인민 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하여 더욱 광분하였다. 놈들의 八개 사단의 병력 중 적어도 五개 사단의 병력을 이 흉포한 「토벌」에 집어 넣었으며 이 외에 수만의 경찰 테로단을 이의 보조에 동원하였다. 놈들은 미국 전쟁 상인들로부터 받은 소위 정예 무기를 총동원하였으며 비행기 해군까지 동원하여 소위 륙해공 일체의 작전까지 실시하였다.

우리 인민 유격대를 「섬멸」한다고 장담하고 나선 「토벌」의 시기를 놈들이 동기로 취한 것은 이 시기가 유격대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곤난한 시기인 까닭이다. 또한 원쑤들이 이 시기를 리용한 것은 동기가

놈들에게 유리하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계의 불리한 자연 조건을 리용하여 유격대들과 인민들과의 굳은 련결을 끊어버리어 유격대를 인민의 지지와 원조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흉책에서 나온 것이다。 이 흉책의 「실현」을 위하여 놈들은 우선 빨찌산들이 활동하며 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인민들에 대한 강제 소개, 방화, 파괴, 학살의 만행을 감행하여 왔는데 이것이 가을에 이르러 어느 정도 「수행」 되었다고 자신하였었다。 여기에 놈들의 가증한 자부심이 일어나게 된 또 한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놈들의 가장 흉악한 구호의 하나는 소위 「정치 七분 군사 三분」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빨찌산을 토벌한다는 구실 하에서 인민에 대한 테로、학살、방화、파괴로써 인민과 유격대와의 련계를 끊는 데 야수적 방법을 다하고 있다。

이리 하여 영웅한 인민 유격대와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놈들은 유격대를 굶겨 죽이고 얼구어 죽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술」의 하나로 채용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놈들의 소위 「동기 토벌」이 시작되던 때에는 남반부에서 가장 격렬하게 우리 유격대들이 활동하는 구역들 즉 전남 서남부、지리산을 중심으로한 전남、전북의 동부 및 경남의 서부 제군들과 태백산을 중심한 광범한 구역들과 경주를 중심한 경북 동남부 제군들과 울산 양산 등을 주위한 경남 동부 제군들의 광대한 지역에서는 수많은 촌락들이 놈들의 방화로 일소하여 초토화되였으며, 수백만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그리고 놈들은 이 야수적 만행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인민들을 무조건으로 학살하였다。 이것은 놈들의 공식 발표에서도 밝힌 바 전남 한 도에서만 二만여명의 아이들이 고아로 되었다는 비참한 사실 한가지만 가지고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놈들의 「동기 토벌」에 있어 놈들 자신이 「전술」이라고 부르는 흉악한 파씨쓰트적 학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민에 대한 것과 유격대들에 대한 것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민들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격대와 련락한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는 제부락에 대한 방화와 학살, 유격대가 접근할 수 있는 부락들은 모조리 강제 소개하는 것,

둘째, 남반부 전역을 통하여 농민들로부터 일체 량곡을 강제 수탈하고 이 량곡을 「국군」 주둔지에 강제로 집중시킨 것,

세째, 테로단을 내세워서 주민들로부터 각종 정보(례하면 주민들의 출입, 외지 거주자의 동리 출입, 유격대에 대한 재반 정보, 주민들의 여론 등)를 강제로 제공시키는 것,

네째, 야간 통행을 절대로 금지하는 것, (十월부터 농촌에서는 오후 七시부터 다음날 오전 六시까지 일체 통행을 금지하였음)

다섯째, 유격대 활동 지구에서 가깝다 할찌라도 소개도 할 수 없고 방화하여 다 태워 버리기에도 곤난한 읍(邑)과 대로변(大路邊) 촌락 같은 곳에 거주하는 인민에게 자기집 밖으로의 외출의 절대 금지, 실례로 작년 十二월 二十五일부터 지리산 주변 五개군의 거의 전체 주민들에게 이러한 야수적 폭압을 가하였으며 금년 一월 五일부터 경북 지역에서는 영양(英陽)군 진보면(眞寶面)을 중심하여 동남으로 원전(院前)리를 지나 영덕(盈德)에 이르는 선과 동북으로 영양읍을 지나 독경산(讀經山)을 경유하여 녕해읍(寧海邑)에 이르는 선, 약 주위 二백 五十리 이내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야수적 만행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놈들이 정하여 놓은 것에 대하여 반대는 고사하고 불평만 말하더라도 즉석에서 총살되는 것이다。

인민들의 분노와 증오와 원한과 적개심이 어찌 뼈속까지 사무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민 유격대와 인민들 사이의 련계를 끊어버리어 유격대들을 아사, 동사하게는 원쑤들의 이 흉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유격대들은 인민들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일어섰으니 인민들과 유격대와의 련계 관계는 피로써 맺어진 련계인 까닭이다。

여기에 대하여 원쑤놈들 자신도 저들의 이 흉책이 실패되고 있는 것을 자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놈들의 소위 태백산 토벌 전구 사령관 류재흥은 「……아직도 통비(通匪) 부락이 있다。 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十여리 밖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에 공비가 나다났는데 즉시 련락이 없을 뿐더러 그 이튿날에도 우리 국군에 가서 비로소 발견한 일도 있다」라고 기자단에게 고백하였다。(二월 十四일 「서울 신문」) 인민 유격대와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어버리려는 놈들의 모든 야수적 포행들은 사실에 있어 인민들의 분노와 증오를 더욱 불지르고 격화시킬 뿐인 것이다。

다음 원쑤놈들의 인민 유격대에 대한 직접적인 소위 「토벌」 전술은 어떠한 것인가?

첫째, 놈들은 남반부의 유격구들을 나누어 五개의 「토벌 전구」로 정하고 각 전구에 「토벌 사령부」를 두어 이것이 「국방 장관」 신성모와 「참모 부장」 정일권 동으로 조직된 「총사령부」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 즉 호남 토벌 지구, 지리산 토벌 지구, 경남 토벌 지구, 태백산 토벌 지구, 중부 토벌 지구로 나뉘었다。 그리고 각 토벌구 아래에는 각 군을 단위로 하여 각각 토벌 사령부를 두고 인민 유격대들이 격렬하게 활동하는 지구에는 비록 산간 벽지에라도 놈들의 상당한 병력을 주둔시키며 소위 일상적 수색, 요로 매복 (要路

埋伏)을 감행하고 있으며 한번 우리 유격대와 만나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끝내 쫓아다니는 소위 장축(長逐) 전술을 채용하고 있다。

둘째、놈들은 각 지구 유격대들의 호상 련락을 절단하고 또한 유격 지구 내에 소속한 대(隊)와 대 사이에도 련락을 절단시키어 각 대들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각 대를 분단하여 장기적으로 포위하는 전술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우리 유격대와 맞서게 될 때에는 맹사(盲射) 맹폭(盲爆)으로 탄환을 물쓰듯이 쓰면서 덤벼드는 그것이다。

네째、이러한 전술로써 놈들은 「동기 토벌」을 시작하였는데 놈들의 소위 전술 중 가장 주요한 것은 각 지구에 대한 각개 격파의 전술이다。여기서 놈들은 작년 十월부터 十一월까지는 호남 지구에 그 중점적 「토벌」을 감행하였고 그 다음 十二월부터 一월 중순까지는 지리산 지구에서、그 다음 一월 중순으로부터 현재까지는 경북 경남을 걸친 영남 및 태백산 지구에서 집중적 「토벌」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격대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곤난한 시기를 선택한 놈들의 이와 같은 흉악한 「전술」과 침략자들이 공급한 소위 근대 무기로써 발톱까지 무장한 놈들은 빨찌산 섬멸의 파대 망상에 빠지게 되었다。놈들은 락엽기에 남반부 유격대들을 완전 섬멸하느니、一九四九년 말까지는 곡 섬멸하느니 하고 짖거려댔던 것이다。사태가 놈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되게 되자 놈들은 다시 一월 중순、二월 말、또다시 三월 말로 연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지금 와서는 三월 말까지도 완전 섬멸은 못한다고 초조와 불안 가운데서 어물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원쑤들의 이러한 야만적 포행 하에서 우리의 용감한 인민 유격대들은 과연 어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용감한 투쟁에서 어떠한 전과들을 거두고 있는가?

이제 각 유격 전구를 나누어 영용한 우리 유격대들의 투쟁적 성과들을 보기로 하자!

첫째、호남 유격 전구——호남 유격 전구는 놈들이 가장 최초에 집중적 공격을 감행한 곳이다。이 호남 전구는 지리적 조건에 있어 가장 불리한 곳이다。대부분이 평야 지대이고 산이 있다 하여도 최고 八백메터 가량이며 그 이상되는 곳은 극히 드문 곳이다。유격대의 활동을 위하여는 극히 불리한 곳이다。그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지구의 유격대는 작년 一년을 통하여 라주、영광、함평、장흥 등등의 수많은 도시들을 공격하고 장흥 한치(寒峙) 전투를 비롯하여 수많은 빛나는 전과들을 거두었고 호남의 평야 지대에서 광범한 유격 지구를 창설한 부대이다。이 지구의 유격대들은 놈들의 집중적 「동기 토벌」을 만나게 되자 인민들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전술을 광범하게 활용하였었다。놈들의 대병력이 비교적 산악이 많은 지대로 몰리어 들어갈 때 우리 유격대들은 전투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소부대로 개편하여 광활한 평야 지대로 진출하여 인민들의 절대한 지지 밑에서 아주 곤난한 월동 투쟁에 들어갔던 것이다。놈들과의 용감한 전투에서 이 지구 총사령관 최현(崔鉉) 동지를 우리들은 아깝게도 잃었으나 이 지구의 다른 지휘원들과 전투원들은 놈들의 「토벌」을 실패케 하고 곤난한 월동 투쟁에 성공하고 있다。놈들은 이곳에서 一개월 이상 집중적 공격을 하였으나 우리 유격대들과는 별로 조우하지도 못하고 많은 물자와 비용만 랑비하고 다대한 병력의 소모를 당하였다。

이 지구가 집중적 공격을 당할 때에 지리산 지구의 우리 유격대들은 상당히 강력한 협동 작전을 전개하였다。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유격대들은 二차를 걸쳐 산청읍을 공격하였고 十二월 초순 또다시 무주읍(茂朱邑)을 공격하였었다。놈들은 호남 평야에서만 온 겨울 방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지리산 지구 유격대의 동기 진격에 당황한 놈들은 드디어 十二월 중순 호남 지구 「토벌」을 흐지부지하면서 그 중점적 「토벌」을 지리산 지구에 이동하였었다。

둘째、지리산 유격 전구——이 전구의 우리 유격대는 작년 一년을 통하여 가장 빛나는 전투의 하나인 九월 광양 전투를 위시하여 진주와 같은 대도시를 당당하게 공격하였었다。그러한 까닭에 놈들은 이 지구 「토벌」、에 대하여는 더욱 발악적인 준비와 인적 물적 력량을 집중하였었다。二개 사단의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공군까지 참가하고 소위 참모총장 정일권을 위시하여 놈들의 소위 중앙 참모진과 륙사(陸士) 후보생들까지 동원되었었다。놈들은 十二월 중순과 하순에 걸쳐 지리산에 대한 소위 포위망을 형성하고 十二월 二十일 경부터 대(對) 산악 공격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 유격대는 어떻게 놈들의 대병력을 막아 냈는가?

우리 유격대는 이러한 포위 하에서 식량 기타 물자들의 장구한 보급이 곤난할 것을 예상하여 이 지구 총사령관 리현상(李鉉相) 동지의 전술에 의하여 전부대를 三개 지대(支隊)로 개편하였었다。그리하여 二개 지대는 놈들의 포위를 뚫고 전북과 전남의 평야 지대로 진출하여 놈들의 빈곳을 타서 월동 투쟁과 함께 새 활동 지구를 개척하였으며 一개 지대(支隊)만을 리현상 동지 자신의 지휘 하에 지리산 산중에 남겨 두어 놈들의 대병력을 지리산 험준한 산악 속에 유도 격파하였다。과연 놈들은 리현상 동지가 지휘하는 一개 지대가 지리산 유격 부대의 전부인 줄만 알고 이 부대에게 유도되어 一개월 이상 지리산 산봉 위에서 헤매이게 되었었다。그 사이 와운(臥雲)리와 세석(細石)에서 놈들은 큰 타격을 받고 륙군 소령 리수복 이하 수많은 무

장도배들이 이 산 속에서 사살、동살되었었다。그리고 나중에는 소위 토벌 사령관 김백일까지가 부상하게 되었었다。놈들의 사기는 아주 위축되고 투지는 상실케였었다。인민들로부터 강탈한 막대한 물자와 비용을 랑비한 나머지 놈들에게 대한 인민들의 절치 부심의 분격과 증오가 더욱 높아졌을 뿐이였었다。

그때에 태백산과 령남 유격 전구의 협동 작전은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졌었다。이 협동 작전에 있어 안동 황학산(黃鶴山) 전투와 안동 림동(臨東) 전투와 경주 단석산(斷石山) 전투、경주 어림산(御臨山) 전투 등은 특기할만한 혁혁한 전투들이였었다。놈들은 태백산과 령남 유격 전구의 협동 작전에 당황 망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놈들은 드디어 김백일의 부상을 일기로 하여 소위 지리산 「토벌」을 실패하고 一월 중순부터는 태백산과 령남 량개 유격 전구에 대한 중점적 「토벌」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세째、태백산과 령남 량개 유격 전구——이 전구는 북으로 태백산과 소백산 국망봉을 중심하여 남으로 안동 청송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을 태백산 유격 전구라고 하며、경북의 경주、영천、영일、청도、경산 및 대구 주변 일대와 경남의 량산、울산、밀양、동래 및 부산 주위 일대를 포함하여 령남 유격 전구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두개의 지구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들은 작년 안동、의성、량산 등 대도읍들을 진격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八월 봉화、청량산(淸凉山) 전투、문경(聞慶) 경찰서장 이하 九十여명의 복격(伏擊) 섬멸 전투、안동 자경리 전투 등을 위시하여 수 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전과들을 거둔 부대이다。그러나 이 지구의 유격대들은 놈들의 소위 동기 공세가 시작된 후 격렬한 전투로써 더욱 혁혁한 전과들을 쟁취하였다。

이제 그 몇가지 전투들의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一、경주 단석산 전투——단석산은 경주 산내면의 북방에 위치한 약 八〇〇메터에 불과한 산악이다。작년 十二월 이 산을 중심하고 유격 부대는 一천 三백명의 적과 九시간에 걸쳐 극렬한 전투를 행하였었다。병력의 대비는 약 一대 五였었다。적은 三차를 걸쳐 고지를 점령한 유격대의 三〇메터 전까지 기어들어 왔다。그 때마다 적들은 우리의 용사들의 맹반격에 의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궤주하였었다。놈들은 박격포를 위시하여 중기 九문、경기 六문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것이다。병력과 무기의 차이는 현격하였었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결정적으로 패배되였다。二백十여명이 사살되고 수백명이 부상되었다。그때에 놈들의 부상자가 어떻게 많았든지 경주 병원이 만원되어 다 수용할 수 없었으며 붕대가 모자라서 치료할 수 없는 형편에 까지 이르러 인민들의 여론이 굉장하였다●

우리 유격대는 이 전투에서 극히 경미한 손실 밖에 없었으며 특별히 지적할 것은 그날에 소비한 우리의 탄환은 불과 二、〇〇〇발밖에 아니된 그것이다。약 五배의 적에 대하여 또 이 적이 수만발의 각종 탄환으로 그야말로 철을 긁여 붓는듯한 속에서 단 二、〇〇〇발의 탄환으로 적에게 섬멸적 타격을 준 것은 우리 유격대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대담하고 침착하며 또 탄환을 자기의 생명 같이 아끼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二、안동 림동면 전투——이 전투는 작년 十二월 중순에 있었는데 이는 당당한 정규전적 규모로써 진행되었던 것이다。림동면 대도로를 중심하고 량편에 대치하여 전투는 개시되었었다。병력은 유격대와 적 사이에 一대 四였었다。즉 우리는 약 三〇〇명이였고 적은 약 一、二〇〇명이였었다。무기도 물론 적이 비교할 수 없이 우수하였었다。그러나 그 전투에서 一백 九十명의 적이 사살되였고 다수의 부상자가 났음에 불구하고 유격대의 손실은 아주 경미하였었다。

이 외에도 작년 동기에 들어서서 이 두 지구의 유격대들은 항상 수배의 적을 소수의 병력으로 여지없이 격파한 전투들을 행하였었다。중령(中領) 정종근 이하 三개 중대를 섬멸한 안동 황학산 전투、경주 어림산 전투、녕해、창수(蒼水)、병곡(柄谷)、축산(丑山)의 기습、엿양 명동산(明童山) 및 포도산(葡萄山) 전투、영덕 허재봉 전투、루차에 걸친 영덕 독경산 전투、량산、밀양、울산 동지의 수많은 전투들이 다 동기에 결행된 전투들이며 이 전투들은 모두 다 적의 섬대한 패배와 우리 부대의 빛나는 승리로 결속되였던 것이다。

적들은 이 지구의 우리 부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륙해공군을 전부 동원하여 해군으로써 해상을 봉쇄하고、비행기로써 삼림들을 폭격 방화하고、륙군은 三개 사단의 병력을 동원 참가시키고 있다。그러나 놈들은 패전을 거듭하고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거듭하는 패전에서 놈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있는가는 미 군사 고문단장 로버트까지가 이 지구의 「토벌」을 지휘하기 위하여 직접 나섰으며 신성모 정일권 등이 이 지구에 체재하면서 로버트를 도고 있는데서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이다。또 소위 「유·엔 위원단」놈들까지 동원하여 이 지구의 유격대와 인민 학살을 격려 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구에서의 놈들의 소위 동기 공세도 이제와서는 완전히 실패에 돌아간 것을 놈들은 은폐하지 못하고 있다。놈들의 이 지구의 「토벌」에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던 것은 이 지구의 유격대의 주력을 영양、영덕、울진 경계선에서 멀리 포위하고 그 주변의 인민들에게 아주 야수적인 테로 학살을 가하여 유격대의 량도(糧道)를 차단하는데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이 지구 유격대들은 三월 초순에 들어서면서 울진 백암산、

영덕 독경산 방면에서 적에게 맹공격을 가하여 적의 소위 포위망을 완전히 분쇄하고 일부대는 영양으로, 다른 일부대는 강원도 남부 지역으로 진출하기에 완전 성공하였다。놈들은 루차의 패전에서 상당한 병력을 섬멸당하고 그 위에 수 많은 동상자와 병자까지 속출하였다。 놈들은 이 지구의 소위 중점 「토벌」을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버리었다。 그리하여 놈들은 요사이 이 지구의 소위 토벌을 호지 부지하여 버릴 구실을 찾기에 급급하면서 놈들의 초조와 불안을 로골화하고 있을 뿐이다。 벌써 이 지구에서도 우리 유격대는 놈들의 소위 동기 공세를 완전히 패배시킨 것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다。

삭풍과 한설과 주림과 피로의 형언할 수 없는 곤난한 조건 하에서 또 그 려사적 관계에 있어 아직 짜로며 그 지리적 조건에 있어서도 그다지 유리하지 아녀하며 인원과 무장에 있어서도 아직 불충분함에 불구하고 원쑤들의 발악적 「토벌」을 실패에 돌아가게 한 우리 인민 유격대가 쟁취한 금번 동기의 승리는 실로 우리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 독립 국가 건설 사상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또 남반부 유격대 발전 과정에 있어 가장 험난한 고개를 돌파한 것이다。

그러면 갖은 곤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적은 패배하고 유격대는 승리한 그 원인은 어데 있는가?

우리의 남반부 유격대는 조국과 인민을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으려는 만고의 매국 역적 리승만 도배를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정의의 총 칼을 들고 궐기한 조선의 진정한 아들 딸로써 조직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 장군의 장구한 반일 유격 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격대는 영웅적 쏘베트 군대의 무력으로 우리 조국이 해방된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동파의 가혹한 투쟁 속에서 인민들이 창조적 로력으로 쟁취한 고귀한 민주 건설의 제반 성과에 부단히 고무 격려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을 성심 성의로써 원조하여 주는 위대한 쏘련방을 선두로 한 세계 민주 진영이 날로 강화되는 데서 거대하게 고무 추동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맑쓰—레닌주의의 선진 과학 사상을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애국주의로 일관되고 있다。 우리 유격대가 강철같이 결속되였으며 그 투쟁 력량이 무진장한 힘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들은 리승만 도당에게 강제로 끌리어 와서 테로와 위협에 못 이기어 인민 살륙 전선에 서게된 자들과 기타 친일파, 민족 반역자, 부랑자, 패덕한 등을 모은 오합지중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들이 제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제아무리 그 수가 많다

하여도 그 무슨 전투 기능과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국제주의와 숭고한 애국 사상에서 솟아 오르는 투쟁 정신으로써 생명을 내걸고 돌진하는 유격 부대 앞에 이 오합지중이 그 무엇이겠는가?

또한 유격 부대들이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유격 부대들은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원호를 받고 있는 데 있다。 우리 유격대는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고 인민들 속에서 장성 강화되고 있다。 유격대는 곧 인민의 군대이다。

남반부 유격대의 생활력과 왕성한 전투력의 원천은 놈들의 모는 테로 학살에도 불구하고 인민들과의 련계를 항상 튼튼하게 보장하고 있는 데서 얻어 지는 것이다。 이제 그 한가지 실례를 들면 작년 겨울 영양군 수비면 발리동(發里洞)의 인민들이 유격대를 동정하였다는 혐의로써 원쑤들의 승냥이 떼는 이 부락을 포위 습격하였었다。 놈들은 그 동리의 十八세로부터 四十세까지의 청년 및 장년 남자들을 모조리 한곳에 감금하고 갖은 야수 같은 고문으로써 유격대의 행방을 심문하였었다。 그러나 동리 사람들은 여출일구(如出一口)로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죽음으로써 위혁하는 놈들의 발악적 심문도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영용하게 투쟁하는 유격대들의 행방을 말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인민들의 입을 열게 하지는 못하였다。 조국의 우수한 아들 딸들의 행방의 비밀을 자기들의 눈동자 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 애국 렬사들이 저들의 심문에 불응하자 귀축들은 이 렬사들을 한사람씩 한사람씩 총살하였다。 먼저 끌리어 나간 렬사들이 놈들의 심문을 거부하다가 그 자리에서 놈들의 흉탄에 의하여 원통하게 쓰러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뒤를 계속하는 렬사들은 한사람 같이 완강하게 놈들의 심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三十二명의 렬사들이 한 장소에서 애국적 선혈을 조국 강토 위에 뿌리면서 쓰러졌다。

조국의 력사에 길이 빛날 이 렬사들의 장렬한 죽음을 회상할 때 그 숭고하고 위대한 애국 정열에 누가 두 무릎을 끓지 아니 하겠는가? 누가 이 렬사들의 가슴 위에 흉탄을 박은 이 귀축들에게 대하여 터져 오르는 격분을 금할 수 있겠는가?

인민들의 이러한 지지와 원호를 받고 있는 남반부 유격대들이 어떻게 원쑤들을 타도 분쇄하지 못하겠는가? 인민들과 유격대들의 피의 련계가 이렇게 강고하거니 어찌 우리 유격대들이 강화 발전되지 아니 하겠는가?

실로 남반부 유격 투쟁이 오늘과 같이 발전 강화된 것은 인민들과 더불어 수 많은 유격대 용사들의 귀중한 피가 조국의 땅을 적신 데서 얻어진 것이다。

유격대의 장병들과 로동자 농민들 위시하여 각계 각층의 애국적 인사들이 일심 합력 원쑤를 타도하는 투쟁에 용감하게 진출한 것이 유격 투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똑똑하게 기억하여야 될 것이다。남반부의 유격투쟁은 아직도 그 력사가 짧으며 원쑤들을 정의의 무력으로써 타도하는 투쟁의 다만 제一보를 내디딘데 불과한 것이다。원쑤들은 아직도 유격대 보다 몇배의 병력과 무장들을 가지고 있다。또 놈들은 저들의 패망이 가까와 오면 가까와 올수록 더욱 악랄하며 광포하게 인민과 유격대에 대한 단말마적 학살과 테로를 강화할 것은 필연의 사태인 것이다。더우기 간악한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리승만 역도들의 최후 절명의 순간까지 이 발악은 광란하여 질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유격대들은 자기들의 앞에 나선 모든 임무를 일초 일각이라도 경홀히 하지말고 꾸준하게、진지하게、용감하게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 × ×

그러면 유격대들 앞에 나선 임무들은 무엇인가?

유격대의 매개 대원들은 우리 조국의 가장 우수한 아들 딸이며 우리 당과 전체 인민들의 가장 촉망 깊은 혁명 투사들이다。유격대의 전 대원들은 반드시 근로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있어 그 승리의 유일 무이한 지침으로 되는 맑쓰—레닌주의로써 튼튼히 무장되어야 된다。지휘원이나 전투원이나 그 누구를 물론하고 위대한 맑쓰—레닌—쓰딸린의 사상으로써 자기들의 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자기들의 생활과 투쟁의 지침을 삼아야 한다。맑쓰—레닌주의를 모르는 자는 진정한 혁명 투사로 될 수 없으며 유격대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음 유격대들은 고상한 애국주의의 사상으로써 자기들의 일체 활동을 관통시켜야 될 것이다。조선 인민의 애국주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명하신 령도자 김일성 수상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 정부에 무한히 충성하며 공화국 정부의 정강과 시책에 무한히 충성하는 그것으로 표현된다。공화국 정부에 충성이 없는 자는 제 아무리 민족과 조국을 떠들어 대도 그것은 조국의 리익과 민족의 복리를 외래 침략자들에게 팔아 먹기 위한 매국노의 진영에 속하거나 이 매국노의 반역적 범죄 행위에 봉사하는 자가 아닐 수 없다。

유격대들은 인민의 군대이며 정의의 군대이다。인민을 위하여 유격대는 손에 무기를 든 것이다。유격대들은 인민과 인민의 리익을 자기의 생명 보다 더 귀중하게 수호하여야 된다。인민의 리익을 수호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고 용이한 것이 아니다。매개 대원들은 자기의 형편이 아무리 곤난한 때에도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아주 사소한 일이라 하여 인민의 리익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내가 곤난하다 하여 또는 아주 사소하다 하여 인민의 리익을 침범하는 것은 아주 큰 과오이다。내 형편이 곤난할수록 더욱

예리하게 모든 정세를 랭정하게 비판할 줄 알아야 되며 사소하다고 경홀히 하여서는 절대로 아니된다。

유격대들은 원쑤들을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며 원쑤와의 투쟁에 있어 아주 무자비하여야 한다。그리고 적의 병력과 맞설 때에는 그 어느 때든지 적의 병력을 최후까지 소멸시켜야 된다는 원칙에 아주 튼튼히 서야 한다。

그리고 원쑤들과의 투쟁에 있어 더욱 용감하고、대담하고、강인하여야 한다。

매개 유격 대원은 어느때든지 긴장하여야 하며、부지런하여야 하며、용의 주도하여야 한다。한시라도 경각심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허다한 실례들이 우리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작년 四월 지리산 유격대의 ○○리 전투에서 우리 부대 수十명이 보초없이 식사를 하다가 놈들의 기동대에게 습격되어 큰 손실을 당한 일이 있었다。재작년 겨울 태백산 지구에서도 아주 높은 산상인 까닭으로 보초는 세웠으나 보초에 대한 감시 조직이 없었던 까닭으로 보초가 조는 동안 적의 복보 습격을 받아 적지 아니한 손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또 작년 가을 ○ 안동 지구에서는 숙영지에 든 후 그 근방에 적정이 없다는 정찰병의 보고를 전적으로 신용하고 숙영에 필요한 조직을 등한히 하였다가 피해 당한 사실이 있다。

대담성、용감성、영활성、긴장성 및 부지런한 것과 용의주도한 것과 높은 경각심은 우리 대의 중요한 생활력의 한 원천이다。그리고 어느때든지 적을 경솔히 보지 말며 일시적 승리에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유격대는 자각적이며 능동적인 규률을 강하게 세워서 대의 결속을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간부들이 한사람같이 통일되고 대원들이 한덩어리로 단결되어 전진한다면 우리들 앞을 막을 놈이 그 어디 있겠는가?

강한 자각적 규률은 우리 대의 가장 중요한 생활력의 원천의 또 하나이다。이와 아울러 우리 대원들은 간부든지 대원이든지 그 누구를 물론하고 깊고 아름다운 동지애로써 서로 묶어져야 된다。동지애는 결코 규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동지애는 대의 규률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강한 자각적 규률 위에서만 진정한 동지애가 창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격대들은 그 누구를 물론하고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군사 지식과 민활하고 능숙한 전투 기술을 습득하기에 전심(專心)하여야 한다。적과 맞설때에 있어 누가 그 싸움을 이기느냐하는 것은 누가 더 우수한 군사 과학을 소유하였으며 이것을 실천에 있어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달리어 있는 것이다。유격대들은 다만 정의의 군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우수한 군사 지식과 전투 기술을 소유한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소수로써 다수를、저렬한 무기로도 우수한 장비를 격

과하는 군대가 되어야 하며, 대담하고 용감한 습격으로 적의 대 병력을 섬멸시키는 군대가 되어야 하며, 복격(伏擊), 유도 작전, 포위를 격파하는 작전 등등 가지가지의 전투 방법과 전투 기술에 능숙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이러한 강한 군대 앞에 미국놈들이 무기를 억지로 메워 내보내는 무리들이 아누리, 그 수가 많다 한들 어떻게 배겨 내겠는가?

지휘원들은 작전 계획과 령도와 지휘에 능동하며 전투원들은 각종 무기와 전투 행동에 정통하여야 한다。

우리의 각전구 ─ 유격대들은 단시일 내로 새로운 대원들을 흡수하여 자기들의 대렬을 二배, 三배, 내지 수十배로 확대 강화하여야 하며 놈들의 무장을 대대적으로 탈취하여 더욱 그 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우리 유격대가 자기들의 등에 걸머진 조국에 대한 중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대의 무장력 즉 대원과 두기를 확대 강화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유격대는 반드시 이르는 곳마다 농민들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 혁명을 위한 투쟁을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농민들을 도와 토지 혁명에 궐기케 하며 농민들에게 자기들이, 수행한 토지 혁명의 성과들을 고수하는 투쟁 방법을 가르쳐 주며 농민들을 조직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이 성과들을 고수하도록 고무하여야 하는바 이는 곧 유격대를 확대 강화하는 길이다。

사실상 남반부에서 유격대의 활동 구역의 확대 문제와 인민 해방구 창설 문제는 농민들의 토지 혁명과 아주 긴밀하고도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것이다。또 농민들의 광범한 토지 혁명의 수행은 리승만 역도들을 소탕하고 조국을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 통일하는 중요한 기본 문제의 하나이다。남반부 인민 유격대가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데서만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유격대는 一九五〇년의 봄을 맞이하면서 적의 병력을 대대적으로 섬멸하는 대담한 작전으로 용감하게 넘어가야 한다。전투의 승리는 결국 적의 병력을 대대적으로 소멸시키는 데서 성립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유격대는 자기들의 활동 구역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며 강력한 인민 해방구를 시급히 더욱 광범히 창설하기에 성공하여야 한다。남반부 유격대의 앞으로의 더욱 강력한 발전과 리승만역도들을 타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이루는 것은 즉 강력한 인민 해방구의 창설 투쟁을 성공하는 그것이다。인민 해방구를 창설하는 것이 오늘날 유격대들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이 과업은 여하히 곤난하다 할찌라도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

남반부 인민들은 유격대가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더욱 열성적인 방조를 주어야 된다。지금보다 몇배 이상의 력량을 경주하여 열성적으로 원조하며, 사랑하며, 동정하여야 한다。모두다 영양군 수비면

발리동 렬사들을 본받아서 우리 유격대에게 갖은 방조를 주어야 한다。

× × ×

이리 함으로써 一九五〇년을 조국의 통일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빛나는 승리의 년도로 만들어야 된다。

미 제국주의자의 조종 하에서 리승만 역도들은 우리의 악독한 원쑤 일본 군국주의자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들을 더욱 혹독하게 학살하고 우리 조국을 내란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갖은 흉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인민들은 특히 우리 인민들의 가장 우수하고 용감한 아들 딸들인 유격대들은 조국 통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결정적 투쟁을 일층 영용히 진행하여야 한다。

무적 불패이며 무진장한 인민들의 투쟁 력량을 기초로 하여 성장 강화되고 있는 우리 유격대의 전망은 참으로 거대하다。오늘날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한 세계민주 력량은 미 제국주의의 전쟁 방화자들을 두목으로 한 반동 세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대하다。또, 민주 력량은 날로 강대하여지며 반동 세력은 날로 약화하여지고 있다。특히 세계 평화와, 안전의 초소에 굳게 선 위대한 쏘련의 거대한 발전 향상은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강대화를 날로 촉진시키고 있다。四억 七천만 중국 인민들의 위대한 승리와 강도 장개석의 완전 멸망은 동방에 있어서의 민주 력량의 장성을 일층 촉진시켰으며 반동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민족을 팔아먹고 인민을 학살하는 자들 앞에는 장개석과 같은 최후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조국과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 앞에는 중국 인민이 전취한 바와 같은 위대한 승리가 기필코 올 것을 그 누가 의심하겠는가?

우리 공화국에 있어 급진적으로 향상 발전되는 북반부 민주 건설은 공화국 정부의 령도 하에 조국의 통일과 독립 완성의 민주주의적 기지를 철옹성 같이 공고화하고 있다。불패의 위력으로 장성 강화되는 조선 인민 군대는 조국과 인민의 초소에 철벽 같이 서서 조선 인민들의 강대한 무력으로 장성 강화되고 있다。

전체 인민들의 공고한 단결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남반부에 있어서는 리승만 역도들의 테로 학살이 혹심함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유격대에 대한 원호와 동정은 꾸준하게 계속되고 있으며 광범한 농민들은 도처에서 토지 혁명에 궐기하여 유격대들의 투쟁과 더욱 긴밀하게 련계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 인민의 전위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 투쟁에 있어 진정한 투사인 우리 당이 영용한 유격대의 투쟁을 끊임없이 조직하며, 령도하며, 항상 고무 격려하고 있다。

공화국 정부의 위신은 날로 제고되고 위대한 쏘련과의 친선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유격대들의 투쟁은 비상히 곤난하나 그 승리에 대한 전망은 거대하며 광명에 차 있다. 우리들의 승리에 대한 전망을 크게 하는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리승만 도배의 세력은 최후 붕괴의 일로를 달리고 있는 그것이다. 즉 괴뢰정권은 금년 一월 七일까지 一천六백억의 빚을 지고 있어 미국 상전까지도 리승만에게 돈을 주는 것은 쥐구멍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놈들이 재정적 원천으로 크게 믿고 있는 「귀속 재산」 즉 인민의 재산을 강도질하여 팔아먹는 「사업」도 제마음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一九四七년 五월부터 팔아먹으려고 광분하던 十만원 이하의 기업소들이 단 四十개밖에 아니 팔린 데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인민과 빨찌산을 학살하기 위하여는, 또 놈들의 호의호식을 위하여는 놈들은 돈이 무제한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돈나올 구멍은 사실상 별로 없는 것이다. 놈들은 경제적 붕괴를 면할 수 없으며 천문학적 숫자의 화폐 람발, 날로 뛰어 오르는 물가, 실업자의 홍수, 인민들에 대한 강탈 강도 등이 날이 갈수록 혹심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리승만 역도들은 요사이 저들의 「권력」쟁탈을 중심으로 내부 모순의 격화를 더욱 로골화하고 있다. 소위 「개헌」 문제와 「국회 의원」 임기 연장 문제를 계기로 하여 리승만 직계와 한민계의 싸움은 놈들의 추악한 정체를 인민들 앞에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

전체 인민들로부터 고립 배격당하고 있으며 저들 내부 모순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리승만 역도들은 시시각각으로 가까와 오는 최후 멸망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리승만의 죽음을 건져 줄 아무러한 힘도 없다.

우리의 용감한 아들 딸들인 남반부 유격대들이 전체 인민들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수령 김일성 장군께서 령도하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빛나는 기치를 높이 들고 더욱 영용하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완전 승리는 반드시 촉진될 것이며 조국의 통일 위업은 날을 기약하여 성취될 것이다.

춘거 파종기에 있어서의 농촌 당 단체들의 과업

로동당 중앙본부 농민부장 리 구 훈

우리 당 농촌 당 단체들은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당의 정책과 정부 시책을 높이 받들고 농민들의 애국적 증산 열의를 고무 추동하여 해마다 농산물 수확고를 높이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리하여 一九四九년 농산 부문에서 얻은 성과는 파종 면적을 국가 계획에 비하여 一〇〇·三%로 확장하였으며, 수확고는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곡물에 있어서 一三九·九%, 면화 五〇八·四%로 제고되었다.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농산 부문에서 완수하며 토지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투쟁에 있어서 공화국 북반부 농민들이 一九四九년도에 얻은 성과는 一九五〇년도 농산 부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 증산에 있어서 一九四九년도 계획 실행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본적 결점들이 아직 원만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화국 내각은 작년도의 결점을 퇴치하고 一九五〇년도 농업 증산에 있어서 토지의 리용률을 높이며 휴한지를 적극 복구하여 파종 면적을 확장하는 동시에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시켜 총 미잡곡 수확고를 一九四九년도에 비하여 一一五·九%로 장성시킴으로써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승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一九五〇년 농작물 파종 사업 실행 대책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一九五〇년 농산물 총 파종 면적을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二·一%로 증가하여 二, 四三二, 二〇八정보를 확보하되 그 중 一九四九년 실행 실적에 비하여 벼 二三%, 조 三·一%, 대두 三〇·八%, 봄소채 五%, 면화 五·六% 대마 一三·九%, 아마 二六·九%, 연초 二〇·四%를 각각 증가 파종할 것이 결정되였다.

파종 면적의 확장과 아울러 단위당 생산고를 높이어

에서 조숙종 (早熟種) 콩조자 (양척백이)를 미리 교환 확보하는 데 노부터 맥류 후작으로 콩을 과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관심조차 높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춘경 작업에 천경 (淺耕)을 퇴치하고 심경 (深耕)으로 하며 밭 이랑을 좁히는 데로 전환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선진 농구 「뿌라우」 또는 개량 보섭을 미리 준비케 함이 결정적 대책으로 된다。

국가 시험장 발표에 의하면 심경과 천경의 차이는 논에 있어서 四—五센치 간 (耕) 것을 一〇〇으로 한다면 九센치로 간 것은 一一五·七%、十八센치로 간 것은 一三一·九%의 증산을 보았던 것이다。이와 같이 적당한 심경은 수확고를 높이는 데 중요한 조건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촌 당 단체들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였음으로 「뿌라우」가 농민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춘기 파종 준비기에 있어서 광범히 실시하여야 할 것은 영농 기술 강습에서 제기된 문제를 실천에 옮기도록 조직하는 사업과 견직과 랭상모 실시에 대한 방법을 침투시키는 사업이다。

천수답이 입는 피해를 극복할 데 대한 대책에 있어서 강원도 리화석 농민의 견직과 영농법을 채택한다면 一정보 당 九、一六〇키로의 생산을 보장할 수 있다。또한 랭상모의 살시는 다수확 뿐만 아니라 벼 농사에 소용되는 용수량의 二五%를 절약하며 물 모관에 비하여 二〇일—三〇일 먼저 이앙하게 되는 관계로 이앙 작업에 농촌 로력의 부족을 조절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농촌 사업 일꾼들은 랭상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그의 성과에 대해서 충분한 리해를 갖고 있지 않음으로 이를 적극 장려하는 사업에 등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점이 퇴치못되는 것은 농촌 사업 일군들이 적지 않게 농촌에 파견되고 있으나 농촌 실정을 구체적으로 연구 파악하여 춘기 파종 사업을 제때에 원만히 실시하도록 하는 군중적 운동과 리급 간부들의 사업 분공과 사업 방식에 대하여 방조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 × ×

오늘 공화국 북반부 전체 인민들의 애국적 증산투쟁은 농업에 있어서 북반부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적지않은 저축을 가지게 하였다。그러나 남반부에 있어서는 농촌 경리가 점점 더 파산되어 인민들은 빈궁과 기근에서 헤매고 있으며 리승만 괴뢰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하여 토지와 자유를 위한 농민들의 무장 봉기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정치적 환경 하에서 북반부 농민들 앞에는 더욱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나니 애국적 열성을 다하여 농산 부문에서 식량과 공업 원료를 더욱 많이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확고를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벼 一二九·二%、대두 一四七%、공예 작물은 一一三·四%로 장성시키는 데 있다。

내각 결정에 제시된 一九五〇년의 실행 계획 숫자는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총 파종 면적의 증가는 一二五·四%로 장성되며、중요 작물의 수확고는 곡물 一五九·四%、면화 一四二·五%로 제고될 것인바 이것은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농촌 경리가 날로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낡은 영농 방법을 점차적으로 퇴치하고 선진적 영농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김일성)이다。

더우기 농림 수산 지도 일군 련석 회의에서의 김일성 수상의 연설이 있은 후 북반부 농촌 공장할 것 없이 춘기 파종 준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그의 성과는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농촌 당 단체 일꾼들 중에는 이미 얻은 성과보다 더 얻을 수 있었던 증산의 가능성을 상실한 데 대하여 비판적 검토와 연구가 없이 춘기 파종 준비 사업을 형식적으로 조직 지도하고 있는 례들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적지 적작에 의한 국가 요구의 농작물 파종면적을 확보할 데 대한 협조가 미약하며 국가 장려의 우량 종자 확보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농촌 사회 단체를 추동시키는 사업이 미약한 것이다。

특히 우량 종자를 생산 계획대로 보장함은 춘기 파종을 성과있게 수행하는 담보로 되는 것이다。

기후 풍토에 적합한 우량 종자는 재래종보다 五〇—六〇%의 증산을 볼 수 있다。그러나 우량한 종자도 오랫동안 계속 재배하는 데서 종자의 특성이 퇴화되어 감수를 보게 되는바 례로 마령서를 든다면 동일한 종자로 五년간 계속 재배하면 제五년에 가서는 첫해보다 五一%의 감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퇴치키 위하여 국가에서는 채종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三九八、六一〇정보의 종자 갱신 면적을 예견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도의 한 가지 실례만을 보더라도 룡강군에서는 면화 밭에 재래종을 파종한 것이 군적으로 二二·四%를 차지하였는바 이것을 륙지면 종자로 심었다면 五四四、七二二키로의 증산을 더 얻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춘기 파종 준비 기간에 있어서 룡강군 당 단체의 일부 일꾼들 중에는 이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있으며 우량 종자 교환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가 채종포에서 생산된 것조차 종자 갱신용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황해도 일부 농촌 당 단체들 중에는 맥작 농가

그러므로 우리 당의 농촌 당 단체들은 一년 농사의 첫출발로 되는 춘기 파종 준비 기간에 있어서 농림 수산 지도 일군 련석 회의에서 진술하신 김일성 수상의 연설 내용과 내각 결정 제二〇호를 더욱 깊이 연구하여 철두 철미 군중 속에 침투시키며 춘기 파종 사업이 승리적으로 결속되도록 구체적인 협조 사업을 조직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매개 농가들에서 적지 적작 원칙 하에 농산물 생산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되도록 함은 농촌 경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데 있어서 기본 사업으로 된다. 「각급 인민 위원회들은 토양 기후 조건들을 엄밀히 고찰한 후 이에 각각 적합한 농작물을 재배케 하는 원칙에서 실행 계획을 작성하며 이에 근거하여 매개 농가에 시달케 하며 농민들로 하여금 실행 대책을 토의 결정케 할 것」이 금년도 생산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 당 단체들은 국가 요구의 작물이 적지 적작 원칙에서 파종 계획이 수립되도록 농민들의 파종 계획 수립 사업을 백방으로 협조하며 농산 부문 내의 당원인 일군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부여한 임무를 책임성있게 수행하도록 하여 생산 계획이 기계적으로 수립되어 하부에 시달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특히 전작(田作)에 대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련작과 륜작 관계를 고려하며 「대두 및 공예 작물의 국가 계획 면적을 절대 확보하며 도시와 대공장 광산 소재지 주변 지대에 소채 파종 면적을 확장케 할 것」과 가급적 공예 작물을 적작 지대에 집중시키는 방향에서 협조하며 더우기 연초(煙草) 밭 같은 것은 적작 지대에 집중 재배가 되도록 하여 앞으로 양잠업 발전에 지장이 없게 하며 국가의 기술적 지도 및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파종 계획 수립 사업 협조에서 세심한 주의를 돌릴 것이다.

둘째, 매개 농가에서 적지 적작 원칙 하에 수립된 생산 계획에 의하여 우량 종자를 확보하도록 종자 교환 운동을 적극 추진시킬 것이며 특히 맥류 파종 면적이 많은 황해도, 평남도 농촌 당 단체들에서는 맥류 후작용에 쓸 조숙종 콩종자 교환 사업을 강력하게 조직 전개하도록 농촌 사회 단체를 추동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춘경 사업 전에 화학 비료를 급속히 교환 확보하여 속성 퇴비의 생산 확보 및 반출 사업을 제때에 보장하며 만일 퇴비 부족 농가가 있다면 논 밭의 정지 작업(整地作業)과 결부되는 객토(客土) 방법들을 광범히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세째, 춘경기를 앞두고 관개 수리 공사, 하천 제방 공사에 로력 동원이 원만히 되도록 농민들을 추동시키며 동시에 공사 현장에서는 많은 로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 조건들을 지어주도록 협조할 것이다. 동시에 한발과 홍수의 피해를 농민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는

사업을 조직 실시하도록 극력 방조할 것이다. 례하면 지방 실정에 따라 모판의 집중 설정, 륙상 모판으로 용수 절약 대책을 조직하며 보를 시설하며 저수답의 설정, 소 저수지를 파며 배수로를 보수하며 제방을 보강 신설하는 등 춘기 파종 전에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여 춘기 파종 사업에 로력과 축력이 적기에 집중되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농업 기술 강습회에서 제기된 영농 방법의 개선 방침들이 실지 적용되도록 강습받은 열성 농민들을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례하면 랭상 륙모판 건직파 「쁘라우」의 사용 방법, 린석한 종자의 염수선, 약품 소독 등의 작업을 실험 및 적용함으로써 농민들 스스로가 능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성이 생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상과 같이 춘기 파종의 준비를 갖추며 이를 실행하며 춘기 파종 사업을 적기에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농민들 사이에 자원적으로 조직되는 소겨리 품앗이반이 더욱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되도록 도와 주는 사업이 중요하다.

소겨리 품앗이반이 옳게 조직 운영되는 데로부터

(ㄱ) 농민들 간에 호상 협조하여 로력, 축력, 농구를 고도로 리용할 수 있게 한다.

(ㄴ) 영농 준비 기간에 진행될 작업과 농작물 곡종별 파종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업의 력량을 집중하여 적기 작업과 작업 능률을 높인다.

(ㄷ) 농작 방법의 기술적 향상을 위한 호상 토의 하에 실지 작업 행정에서 영농 개선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농촌 당 단체들은 농촌 사회 단체를 추동하여 농민들의 파종 계획에 근거한 작업의 량과 질, 장소, 시기를 타산하며 로력, 축력, 농구들이 옳게 배치(配置)된 소겨리 품앗이가 조직되게 하며 기상 조건이 불시에 달라 지더라도 그 조직이 작업 조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편성되는 운영이 되도록 로력 조직에 높은 관심과 협조를 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농촌 당 단체들은 농촌 당원들도 하여금 소겨리 품앗이반 내에서 군중을 교양하며 작업의 선후를 옳게 분별하며 작업 능률을 높이며 생산 기술의 향상이 실지 작업에서 보장되도록 주도적 핵심 역할을 놀도록 사업을 조직 지도할 것이다.

여섯째, 一九五〇년 춘기 파종 진척 정형에 대한 보고 사업이 정확히 되도록 인민 위원회의 파종 보고망 조직 운영 사업에 백방의 협조를 제때에 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 일부 지방들에서 파종 보고가 늦게 되어 실기 후에 조자 또는 모 부족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파종 보고가 二중적으로 되거나 루락되거나 혹은 곡종 별로 파종 실적과 상이되는 데로부터 인민 위원회 파종 통계 사업

에 많은 혼란을 주었으며 파종 면적 확인 사업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함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매개 농민들이 농촌 리 인민 위원회에 자기의 파종 실적을 정확히 책임성있게 보고하도록 농촌 사회 단체들에서 강력한 협조 조직을 가지도록 하며 농촌 리 인민 위원회에서 수집된 통계가 제때에 면 인민 위원회를 거쳐 군、도、중앙에 정확히 보고되도록 협조할 것이다。

일곱째、 농촌에서 춘기 파종 준비 기간에 군중 선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 전개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긴장한 태세에서 춘기 파종 사업을 집행케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촌 당 단체들은 농민들의 좌담회를 리용하여 공화국 북반부 공장 광산 운수 기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산 경쟁 운동의 모습을 알리어주며 농촌들에서 김일성 수상의 연설을 받들어 새 기술이 적용되는 영농 준비 정형을 제때에 소개하여 농민들의 증산 의욕을 고취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이것을 위하여 농촌 구락부 선전실들이 원만히 리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일부 락후한 농민 중에는 아직까지 근로의 영예를 알지 못하며 근로를 싫어하며 전달 농사를 하는 경향과 또는 종래의 낡은 농사 방법을 고집하는 경향들은 생산 기술의 향상과 증산 투쟁 사업에 적지 않은 장해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 당 단체들은 춘기 파종 준비 기간에 있어서 농촌 사회 단체들의 학습회 사업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로 도와주어 직접 농촌 생산 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제 잔재와 봉건 유습과의 철저한 군중적 사상 투쟁이 전개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농촌에 있어서 일제 잔재와 봉건 유습을 발판으로 하는 토지 몰수 당한 반동적 지주들의 영향과 요언을 제때에 군중적으로 폭로 분쇄할 데 대하여 당적 경각성을 높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공화국 북반부의 장성된 민주 력량과 남반부의 참담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며 쏘련을 선두로 한 세계 민주 력량의 급속한 장성과 미제국주의를 선두로 한 국제 반민주 진영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옳게 해석 선전하여 승리의 자신성을 더욱 굳게 해주며 과학 지식을 부단히 주입시켜 농민들로 하여금 새 문화와 새 기술을 받아 들이도록 하며 애국적 근로 사상이 더욱 제고되도록 향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농촌 당 단체들은 국영 농기계 임경소에 대한 국가적 의의를 매개 농촌에 깊이 침투시키어 국영 농기계 임경소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긴밀한 련계가 앞으로 지어지도록 농민들에게 해석하여 줄 것이다。

임경소가 설치되는 지대의 농촌 당 단체들은 국영 농기계 임경소 운영에 대한 내각 결정들을 깊이 연구하여 협조 사업을 주밀하게 조직 전개하며 국영 농기계 임경소와 농민 사이에 기경 계약이 제때에 되도록 보장하며 기계 기경 작업 二건을 충분히 지어주도록 모판을 집중적으로 적당히 설치케 하며 논두렁과 기타 뜨락또르 통로에 장해가 없도록 길을 닦아 두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기계 기경으로 인하여 얻는 로력 축력의 여유력을 농업 증산 제고를 위한 다른 작업에 동원되도록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춘기 파종 사업을 성과있게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생산 기술의 향상과 적기 작업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주밀하게 또한 전투적으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 당 단체들은「춘기 파종이나 제초 등 모든 사업들을 더 정확하게 더 기민하게 조직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오늘 개인 농업 경리라고 하여 자연 방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그런수록 제때에 조직 지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김일성 수상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간부들이 직접 농촌에 나가서 춘기 파종 준비 정형의 실정을 파악하고 제때에 구체적 대책을 세우며 군중을 고무 동원하여 一九五○년도의 춘기 파종 준비 사업이 물샐틈없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농민들을 높은 생산으로서 궐기하도록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 있어서

직업 동맹 단체들의 역할

정 가 원

산업 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 대회에서 김일성 수상은 인민 경제의 부흥 발전에 있어서 산업이 차지하는바 비중이 큼을 강조하시면서「국가와 전체 인민으로부터 당신들의 두 어깨에 부과된 커다란 과업과 임무는 가장 신성한 것이며, 또한 가장 심중한 것입니다。이 과업과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조국의 륭성과 부흥 발전을 촉진하는 담보로 되는 것입니다」라고 자기의 총결 연설에서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 국가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달성은 진실로 우리 당과 직업 동맹 단체를 비롯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부과된 신성하고 거대한 과업이다。

레닌은 직업 동맹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만일 원동기로부터 기계에 이르는 련동(聯動) 장치가 파손되었다면 최상의 원동기나 제一급의 기계들을 가진 가장 우수한 공장도 활동하게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공산당으로부터 대중에 이르는 련동장치인 직업 동맹이 옳지 않게 조직되었거나 옳지 못하게 사업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불상사도 불가피한 것이다」(레닌전집 二七권 一五四 폐지)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의 소유로 된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우리 당의 군중 단체로서의 직맹 단체의 역할은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 그 사업은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새롭게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즉 직업 동맹은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생산 과업 실행에 수十만 근로 대중들을 이끌어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업 동맹 단체들이 생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불만족하게 실행하거나,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치 못하는 사실

들이 있다。례하면 토건 부문내 일부 동맹 단체(평양 방직)들은 二〇〇개 내지 三〇〇개의 도급 기준량을 정할 수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二六개라는 적은 기준량을 정함으로써(쓰빠이기 작업) 매일 생산 실적을 七〇개 밖에 달성치 못하였다。그리하여 직맹 일꾼들은 자기 임무를 충분히 다 하지못함으로써 관리측과 로동자들을 리탈시키는 편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손실을 주었으며, 로동자들의 생산 능률 향상에 조해를 주었다。또한 다른 경향으로서는 금속 부문내 일부 직장 단체(례하면 북중 기계 연공반)들의 증산 경쟁 운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지어진 유리한 조건들을 백방으로 활용하여 실지 더 증산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쉽게 하려는 데서 출근 목표률을 九五%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 참가자의 三% 미만을 지각 조퇴자로 예정하는 등, 옳지 못한 경쟁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곳 직맹 일꾼들이 오늘 인민 정권 하에서의 직업 동맹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또 공화국의 자립적 경제 토대의 일층 공고화와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급속한 개선 향상에 있어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 전 완수 및 초과 달성은 중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가 있음을 리해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주인답게 일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레닌은 직업 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자기의 경험으로써 오유를 범하지 않으며, 낡은 편견을 버릴 것을 배워주며, 자기의 경험으로써 국가를 관리하며, 생산을 관리하는 것을 배워주며, 새로운 생활의 건설자로 되게 하며, 수백만 수천만의 새로운 교육자로 되게 하는 데 있다。…오로지 이에 있어서만 뒤로 물러서려는 온갖 가능성을 제외하고 사회주의 사업이 완전히 승리한다는 것을 틀림 없이 보장한다」(레닌 전집 二三권 四九三 폐지)

김일성 수상은 산업 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만일 과거에 조선 로동자가 일본놈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一리고 비능률적으로 일하면서 기계 시설물을 파괴하며, 불합격품과 사고를 많이 내었다면, 그것은 생산 수단이 로동자의 것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의 소유로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행하는 데 리용되는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가장 옳았으며, 우리는 이것을 찬양했습니다。그러나 공장, 기업소들이 전인민의 소유로 된 오늘에 와서는 소유와 로동에 대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였습니다。국영 기업소에서 일하는 로동자는 자기와 전 조선 인민을 위하여 로동하는 것이며, 기업소에서 로동자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은 일본 자본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소용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록 인민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은 급격히 향상될 것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 제도의 우월성에서 조성된 이와 같은 새 환경과 새 조건에 대처하여 수十만의 애국적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앞을 다투어 국가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 및 초과 달성하기 위한 광범한 증산 투쟁에 궐기하고 있다。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기간을 八·一五 해방 五주년을 경축하여 단축 및 초과 완수할 데 대한 함남 지구 공장, 광산, 철도 종업원들의 증산 경쟁 호소에 북반부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호응 궐기하여 개인 및 부리가다 경쟁으로부터 기업소 간의 경쟁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는 사실은 로동자들의 증산 의욕이 실질적으로 앙양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로동자들의 불붙는 증산 열의를 더욱 고무 추동하며 그들의 생활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배려는 생산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어주고 있다。 즉 임금 관계에 있어서 보더라도 로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가장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한 선진적인 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 로동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와 휴식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동 능력을 상실한 모든 경우에도 국가적 사회 보험의 혜택으로써 그의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공화국 정부는 내각 七三호 및 七四호 결정으로써 광산, 탄광, 림산 로동자들의 대우 개선을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내각 一八二호 (증산 경쟁 운동에 관한 것), 一八三호(특히 기능자 우대), 一九六호 (임금 개정에 대한 것) 및 二七호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의 직맹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제 기관과 직맹 단체들의 과업은 물론 한가지 목적인 공화국을 공고 부강케 하며 전인민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을 개선시키는 데 있는 것」 (김일성) 이다。

일찌기 레닌은 「경제 건설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 건설에 있어서도 직업 동맹과의 긴밀한 련결이 없이는, 그의 열렬한 지지가 없이는, 그의 헌신적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국가 관리와 독재 실현을 二개년반 동안은 고사하고 二개월반 동안이라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레닌 전집 二五권 一九三—一九四페지) 라고 지적하시었다。

그러나 직맹과 국가의 목표가 합치하여 있다고 하여 직업 동맹이 국가 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직업 동맹——이는 대중적이며 자발적인 사회적 단체이다。 그는 자기의 고유한 직무들과 사업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직업 동맹 사업의 기본 방법은 설복과 교양의 방법

인 것이다。

대중적이며 자발적인 사회적 단체인 직업 동맹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맹원들을 토대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 직업 동맹에의 가맹은 다만 로동자나 사무원 자신의 희망에 의한다。 직업 동맹에 노의 로동자들의 가맹의 성과 여하는 다만 그 직업 동맹 단체의 조직적인 대중 사업 및 교양 사업의 상태로서 규정된다。 직업 동맹의 전체 사업은 광범하게 선거된 자발적인 열성 분자의 참가에 의하여 수행된다。

로동 계급의 대중적 조직인 직업 동맹은 새로운 생산률 제고를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즉 직업 동맹은 생산률 제고, 로동 규률의 강화, 그리고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달성에로 전체 근로 대중을 조직 발동시켜야 한다。 직업 동맹에게 있어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달성을 위한 투쟁에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애국 증산 경쟁에 고무 발동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직업 동맹은 생산 협의회를 통하여 전체 로동자들을 기업소 관리 운영에 참가시키며, 그들의 생산 방법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생산 협의회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직업 동맹은 로동 법령의 정확한 준수를 보장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와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공정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 보험, 로동 보호 문제, 주택, 식량 문제 및 생활 시설 문제 등 로동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개선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회적 방조와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 뿐만 아니라 직업 동맹은 반드시 단체 계약에 규정된 노동자 자체의 맹서를 충실히 실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단체 계약 체결은 생산 계획의 완수 및 초과 달성에로 근로 대중의 생산 의욕을 제고시키는 위력있는 수단으로 된다。 단체 계약은 생산과 로동 조건의 개선, 그리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문화 생활 상태 개선에 대한 경제 기관 및 직맹 단체들의 책임감을 앙양시킨다。 순천 화학 공장 당 단체들은 직업 동맹을 통하여 단체 계약에 규정된 로동자들의 의무 실행에 대한 로동 책임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조직 전개한 결과 로동 규률과 생산 규률은 확립되고, 유일 관리제는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생산 계획을 기한 전에 초과 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근률은 평균 九七%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즉 실지 생산 작업과 일상 생활을 통하여 당원들은 락후한 개별적 로동자들을 책임지고 사회적 교양으로 지도하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직업 동맹 단체들과 로동자들은 단체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충실한 실행을 보장하고 있다。

이상 사실들로부터 출발하여 직업 동맹 사업은 무엇으로써 평가되는가?

직업 동맹 사업의 평가는 무엇보다도 그가 국가로부터 위임맡은 생산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그의 역할 도써 평가되는 것이며 또한 그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직업 동맹 사업은 광범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생산과 로동에 대한 새로운 관계와 오늘의 새 환경과 새 조건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그들의 애국적 열성을 고무 추동시키는 사업 여하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직업 동맹 사업의 평가는 증산 경쟁 운동의 성과적 추동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증산 경쟁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경쟁——증산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제도 하에서는 사람들을 불화케 하고, 개인주의와 호상 불신감을 배양하는 경쟁에 있어서의 이리(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경쟁은 리윤 추구를 목적하며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이리(狼)」라는 흉악한 원칙에 기초한 잔혹한 투쟁 무대이다」(로동당 출판사판 「변증법적 유물론 개론」 상권 四七七페지)

그러나 우리의 경쟁——증산 경쟁 운동은 공동적인 향상과 승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앞선 편은 더욱 앞서며, 뒤떨어진 편을 고무 추동하며 동지적 원조를 주는 것으로써 특징짓는다。 이것은 사회에 대립되는 자본가 개인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회 발전을 위하여 또 거기에 종속되는 사회 성원으로서의 로동자 자신을 위하여 로동에 대한 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쓰딸린 대원수는 쏘련의 사회주의 경쟁에 대하여 「로동자들의 최대한의 적극성을 그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공산주의적 방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경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로력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서 근본적 대변동들이 생기고 있다는 데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로력이 이전에는 불명예스럽고 곤난한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던 그런 곳으로부터 영예의 일로, 영광의 일로, 용감성의 일로, 영웅적인 일로 변화시킨 때문이다」라고 하시었다。

새 사회 제도의 궁극적 승리는 생산력 발전에 근본 요인으로 되는 사람——수백만 근로 대중이 그 생산 경험과 로동 기능에 의하여 생산 도구를 움직이는 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새 사회 제도의 승리의 담보자——부강한 조국의 창조자는 수백만 근로자 자신이며, 수백만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애국적 열정의 표현 형식으로서 증산 경쟁 운동은 오늘 부강한 우리 조국 창건을 위한 가장 애국적 사회 운동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애

국적 증산 경쟁 운동이 장엄하게 전개되고 있는바 국가가 지어준 온갖 유리한 조건 하에서 로동자들의 증산 열성은 고도로 앙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一八二호 결정으로써 산업 및 운수 부문에서 광범히 전개되는 로력 대중의 증산 경쟁 운동을 지지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공화국 정부의 심심한 배려는 근로자들의 애국적 증산 의욕을 더 일층 고무시키고 있다。

특히 함남 지구 공장, 광산, 철도 종업원들이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八·一五 해방 五주년을 맞이하면서 기한 전 완수 및 초과 달성할 데 대한 증산 경쟁 호소에 호응하여 궐기한 북반부 근로자들의 경쟁은 광범한 기업소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화국 내각과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이를 지지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직총 중앙 위원회도 이를 지지 찬동하면서 五十여 만의 로동자들에게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 전 완수 및 초과 달성에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김일성 수상은 산업 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 대회에서 「우리는 기업소 사업 향상에 가장 중한 수단으로 되고 있는 증산 경쟁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물론 여기에 있어서 직업 동맹 단체들에게 큰 역할이 부담됩니다」라고 하시었다。 이에 있어 직업 동맹 사업에는 자발적 원칙에 의한 선전으로 로동자들의 개인 맹서 운동으로부터 전 부리가다, 직장 및 기업소 간의 증산 경쟁 운동을 높은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조직 지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부과되고 있다。

직업 동맹은 경쟁자들의 높은 증산을 위하여, 그들의 애국심과 대담성과 창발적 로력을 더욱 계발하며, 새 기준량을 위하여, 현존 로력과 기계 시설들을 보다 높이 리용하는 데서나, 생산 조직을 혁신하는 운동에서 구체적인 증산 목표의 수립과 경쟁 조직을 정확히 하도록 방조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일군들은 경쟁을 조직하지 않고 경쟁 상대방이 없어서 증산 경쟁을 전개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을 쉽게 하려는 락후한 일군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옳지 못한 경향인 것이다。 직업 동맹은 각종 각양의 방법으로 증산 목표의 달성 및 초과 수행을 위한 맹렬한 경쟁 운동을 광범히 조직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첫째, 직업 동맹은 경쟁에서 우수한 자 및 락후한 자, 우수한 경험 및 실패의 교훈, 앞서 이겨 나가는 자 및 뒤떨어진 자들을 제때에 구분하고 정확히 평가하며 경쟁 승리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표창하여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가장 우수한 경쟁자들을 표창할 대신에 우수한

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다 못한 자를 표창한다면 우수한 자들은 경쟁에서 흥미와 열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표창받은 우수치 못한 자에게도 역시 우수치 못한 그 형태에서 만족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증산 경쟁에 해독을 주며, 나아가서는 생산 능률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릇된 경향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경쟁 정형을 제때에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매 개인 매 부리가다 경쟁의 진행 정형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리고 그 정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인과 개인, 부리가다와 부리가다, 직장과 직장 간의 경쟁 성과를 제때에 민속히 총결하여야 하는바 이 사업은 자주 하면 할쑤록 더욱 효과있는 것이다.

둘째, 직업 동맹은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기 위하여 락후한 자들로 하여금 앞선 자들을 따르게 하며, 일반적 경쟁 수준을 보장하도록 방조하여야 한다. 왜 그러나 하면 경쟁이란 말 자체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경쟁에 있어 앞선 자와 뒤떨어진 자 간의 차이가 너무 있다면 경쟁이 해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광범한 경쟁자들의 자각적 열성을 조장 발전시킴으로써 로동 계급 속에서 무진장한 능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새 기준량과 새로운 창의 창안들이 발양되도록 고무 추동하는 사업을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검덕 광산 직맹 단체들은 일반적 경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진 로동자 김철준 동무의 규격 발파 보급에 대한 제의를 접수하고 착암공 규격 발파 경기대회를 조직하였는데 불과 비시간 못되어 한 발파에 一〇톤 이상 떨굴 수 없다는 종래의 낡은 사상을 여지없이 깨뜰어 버리고 경쟁 수준을 十五톤 이상으로 올릴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 하여 락후한 자들도 十五톤을 자신있게 내는 선진 로동자들을 전반적으로 따르게 되어 경쟁에서 일반적 수준을 보장하여 경쟁을 더욱 격화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직업 동맹은 우수한 경험들을 교훈삼으며, 광범히 보급시켜야 하며, 경쟁자들이 창의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직업 동맹은 낡은 기준량, 낡은 사업 방식을 퇴치하고 새 환경과 새 조건 하에서 경쟁은 새 기준량을 위한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째, 직업 동맹은 이 사업에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직접 국가 건설 사업에 참가하는 중요한 형태로서의 생산 협의회의 역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진실로 생산 협의회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애국적 열성이 실지 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표현되는 한개의 구체적 형식이며 로동자, 기술자들이 국가의 소유로 된 공장 기업소의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공장, 광산, 기업소 운영과 관리에 참가하는 일반적 형식으로서 새로운 기준량을 위한 투쟁에서 도움으로 되는 형식인 것이다. 직업 동맹은 기업소 직장, 교대반에서 생산 협의회와 또는 매개 작업별 생산 협의회를 질서있게 소집하여 거기에서 구체적인 생산 문제 즉 원료, 연료, 전력, 제품의 질 등에 관하여 광범히 토론하며, 작업 정지, 기계 사고 및 기타 생산에 있어서의 각종 결함들을 초래하는 원인의 제거 및 로력 조직과 생산 조직의 합리화 등에 대하여 활발히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직업 동맹 사업에 있어 열성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가 큰 의의를 가진다. 새 환경에서 새 의견들을 실천화하기 위하여서는 직맹내 열성자들과의 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여 새 의견의 본질과 그 전망을 그들에게 충분히 리해시키고 그의 실천에 대한 결의를 굳게 한 후 유일 관리제 원칙에 의하여 지배인이 지시한다면 로동자들에게 접수되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로동자들은 국가 시책에 대한 정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 기준을 위한 투쟁에 열성적으로 동원될 것이다.

네째, 직업 동맹 단체들은 경쟁 결과를 정기적으로 부리가다 책임자 및 열성 로동자 또는 종업원 회의에서 총화하여 경쟁에서의 승리의 경험과 실패의 교훈을 파악할 것이며, 매개 직장의 중심 고리를 옳게 장악하고 경쟁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소 및 생산에서의 중심 과업에 집중적 력량을 경주하도록 하여 전반적 인민 경제의 상승에 유도함에 그 지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부리가다 및 직장 총회들에서 경쟁, 총화 재료에 근거한 토의를 광범히 전개하여 결함들을 제때에 퇴치케 함으로써 경쟁 참가자들에게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고취하며 호상 격려하여 경쟁을 더욱 상승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증산 경쟁 운동은 반드시 로동 생산 능률의 꾸준한 제고와 계획을 질적 량적으로 초과 실행하여 생산과 기본 건설에서 애로와 난관들을 극복하고 백방의 생산 가능성을 창발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 제도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는 생산력 발전에 역센 력량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선진적 과학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는 직업 동맹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함에 있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직업 동맹의 결정적 과업의 하나임을 철저히 인식함으로써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사상 정치 리론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군중 문화 사업의 온갖 형식과 형태를 충분히 리용하여야 한다.

광범한 로력 대중을 맑쓰—레닌주의적으로 교양시키며 오늘의 새 환경과 로력과 생산, 그리고 인민 민주주의적 소유에 대한 로동 관계를 로동자, 기술자, 사

부원들에게 옳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맑쓰—레닌주의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과 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직업 동맹은 광범한 로력 대중에게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우리 공화국의 정치、경제、사회 제도의 우월성과 인민들의 행복감을 깊이 인식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해방자이며 원조자인 위대한 쏘련과 그를 수위로 한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과의 친선의 정신으로 교양시키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직업 동맹은 새로운 민족 문화의 향상과 근로자들의 선진적 문화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에、자기의 력량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며、반동적 부르조아 문화 앞에서의 아첨과의 무자비한 투쟁의 정신으로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을 교양시켜야 한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조국의 남반부를 식민지화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도구인 「유·엔 조선 위원단」및 리승만 매국 역도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광범한 로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배양시키는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직업 동맹은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민주 력량과 반동 력량 간의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인민 경제 계획 실행 행정에서 로동 계급의 굳은 단결을 일층 강화하고、근로자들의 하층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반동에 대한 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산업 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 대회에서 김일성 수상은 「우리 나라에는 인민적 국가에 내하여 적대적 경향을 가진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업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로 남조선 반동파에 의거하여 적대 분자들은 싸보따쥬 및 파괴 등 갖은 수단을 다하여 산업 발전과 인민 국가의 공고화를 방해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성을 가일층 높이어 적이 어떻게 가장한다 할찌라도 그를 적발할 줄 알며、또 인민 정권을 통하여 적을 근절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적 국가의 원쑤에게 대한 증오심을 인민들에게 꾸준히 배양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었다。

직업 동맹 사업에 있어 가장 긴절한 문제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새 환경과 새 조건에 맞추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또 더 강하게 그 사업을 개조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 동맹 사업은 랭정하고 철저한 자기 비판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며 또 그 비판과 자기 비판을 발전시키는 데서만 가능하다。 쓰딸린 대원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만일 우리가 전진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오유를 우리 스스로 발로시키며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명백하지 않는가、또 이 오유를 발로시키고 고치는 사람는

우리 밖에는 더 없는 것은 명백하지 않는가、동무들 자기 비판이 반드시 우리의 발전을 앞으로 전진시킬 하나의 중대한 힘으로 되어야 할 것이 명백하지 않는가」라고 하시었다。

직업 동맹이 자기의 모든 사업 특히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을 협조 보장하는 투쟁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들과 오유를 퇴치함에 있어서 대담하고、용감하고、솔직하지 않는다면 직업 동맹 자체의 역할을 제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강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직업 동맹 일군들은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을 더 훌륭하게 민주주의적 애국 사상으로 교양하며、고무하며、또 관리자들을 적극 협조하여 임금 문제와 기타 사업을 개선하여야 하며 또 락후한 사상들과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여 로동 규률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직업 동맹 일군들은 국가와 지배인의 명령 지시를 연구하고 그 실행 정형에 주의를 돌리며、로동자들과 경리 일군들의 책임 수행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공장내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 동맹 일군들이 생산 행정을 연구하며、선진 로동자들과 선진 부리가다의 경험을 연구 보급시킨다면、모든 로동자들이 표준 조작법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방조한다면 기계 설비의 휴전들을 최소한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가?……물론 있다。

직업 동맹 일군들이 기업소 관리자들을 도와서 기업소의 모든 인적 물적 후비를 동원하며、절약 운동을 더욱 광범히 전개하며、로동자들을 이 사업에 인입시킨다면 더 많은 생산품을 국가에 주며 원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가?……물론 있다。

만일 직업 동맹 일군들이 기계와 자재를 애호하며、적는 결점들과 타협없이 투쟁하며、로동자들의 기술 향상에 백방의 방조를 준다면 불합격품 생산을 퇴치하고 생산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물론 있다。

만일 직업 동。일군들이 선진 로동자들과 뒤떨어진 로동자들과 부리가다들을 적극 원조한다면 생산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물론 있다。

국가와 인민은 직업 동맹 앞에 거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그의 긴장한 활동을 요구한다。동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강력한 자기 비판의 기초 위에서 동맹 사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투쟁에 견결하고、용감하고 대담성있게 나아가야 하겠다。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八·一五 해방 五주년을 경축하여 완수 및 초과 달성할 데 대한 합남 지구 로동자들의 애국적 호소는 전체 조선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있다。 직업 동맹은 이러한 전 인민적 운동의 성과를 보장함으로써 조국의 위력을 일층 더 강화하는 투쟁에 총력량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력 제고는 인민 경제 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다

임 해

一、

「해방 후에 북조선에서는 정권은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의 손으로 넘어 왔으며, 따라서 위대한 제 민주주의 계획을 실현하여 토지 개혁과 과거 일본인과 민족 반역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소 운수 은행 등을 국유화하며 우리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창설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산업의 중요한 부문과 운수 및 은행을 우리의 수중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인민 경제를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를 환기시켰습니다. 우리는 날이가면 갈쑤록 우리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전망을 보지 못하고 일반 경제 부문을 유일한 목적과 파업을 포용하지 못하고서는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채굴업 급 가공업, 발전소, 철도, 자동차 운수, 수상 운수, 농촌 경리, 어업, 상업, 소비 조합, 은행 등 인민 경제 부문을 반드시 유일한 국가적 견지에서 실시하여야 될 것이며 가급적으로 단기간에 우리의 경제를 부흥 재건하여야만 경제 생활을 개선하며 조선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모든 재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김일성)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인민 경제의 계획화는 우리 민족 경제의 신속한 부흥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 공화국 북반부위 인민 경제 계획화는 우리 민족 경제 건설의 거대한 동력으로서 북반부 전체 인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되고 있다.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산업을 국유화한 북반부 인민들은 조선 민족의 영웅이며 영명한 지도자인 김일성 장군의 지도 하에 쏘련의 경험을 널리 섭취하며 그의 형제적 방조를 받으면서 일제가 파괴하고 갔

—공장, 광산, 탄광 및 철도 운수 기관들을 복구 확장하였으며 새로 생산력을 배치함으로써 산업 및 농업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우리 민족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생산 장성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만일 一九四六년도 공업 생산고를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七년도에는 一八九・三%, 一九四八년도에는 二六三・三%, 一九四九년도에는 三七七・一%로 장성되었다.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인민 경제의 발전 속도가 또한 급속히 향상되어 가고 있다.

一九四七년 및 一九四八년 인민 경제 계획을 실행한 결과 북반부 산업 생산은 一九四八년 말에 총 생산액에 있어서 해방 전 최고 수준인 一九四四년의 七〇%에 도달하였으며,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첫해인 一九四九년 말에는 九五%까지 회복하였다. 이리하여 一九五〇년 말에 가서는 一九四四년의 생산 수준을 一五八・一%로 초과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 경제는 해방 전 수준으로 급속히 부흥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해방 전 최고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즉 一九四四년에 비하여 一九四八년에 전기 공업은 二・五배, 기계 공업은 一〇一%, 선박 공업은 一〇三%, 경공업은 一〇一%로 각각 그 생산이 장성되었다. 그리하여 一九四九년에는 산업성 산하 전체 산업 부문 중에서 전기 공업, 유색 광업, 기계 공업, 전재 공업 등이 一九四四년 생산 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고 있다.

또한 북반부 농업 생산은 一九四八년에 이미 해방 전 최고 수준이었던 一九三九년에 비하여 파종 면적에 있어서 三・八%, 수확고에 있어서 一〇・四%로 각각 초과하였다.

이와 반대로 공화국 남반부에 있어서는 산업이 극도로 파괴되고 농촌 경리는 날이 갈쑤록 쇠퇴하여 가고 있다. 남반부에 있어서 산업이 얼마나 혹심하게 파괴되고 있는가는 다음의 숫자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여 준다.

一九四三년도 남반부 전체 기업소 수를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六년에는 五二%, 一九四七년에는 四五%, 一九四八년에는 三七%, 一九四九년 상반기에는 三六%까지 각각 축소되었다.

남반부 기계 공업 생산은 해방 전에는 전 조선의 약 七〇%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一九四九년에는 그 생산이 해방 직후에 비하여 五%로 축소되었으며 또 해방 전 남반부에서 가장 발전되였던 방직 공업 생산은 해방 직후에 비하여 一九四九년에는 一三%까지 축소되었다.

이러한 형편은 농촌 경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남반부의 경지 면적은 전쟁 전에 비하여 一九四五

년에는 八七·九%、一九四六년에는 八〇·八%、一九四七년에는 六九·七%、一九四八년에는 六六%、一九四九년에는 五五%까지 감소되었다。

남반부에 있어서 경지 면적이 이와 같이 급속하게 축소되어 가는 것은 남반부 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二、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인민 경제를 국가 유일 계획에 의하여 건설하기 시작한 一九四七년 이래 생산력의 장성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이것은 고정 폰드 확장을 위한 기본 건설 투자액으로써 표시되고 있다。一九四七년에 있어서 산업 건설을 위한 기본 건설 투자액은 四억 三천 만원、관개 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농업 투자액은 一억 五천만원이었는데 一九四九년에는 산업성 산하 국영 산업에만 투자된 기본 건설 자금이 二五억 六천 四백 九十二만 六천원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거액의 자본 투하는 우리 민족 경제의 급속한 부흥 발전에 상응하였으며 생산력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였다。고정 폰드의 확대 및 생산력의 급속한 장성은 북반부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특히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一九四九년 예정 숫자의 성과적 실행은 우리 산업 건설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되었다。

一九五〇년부터 우리 산업은 부흥기를 거의 끝마치고 새로운 발전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一九四九년에 있어서 이미 산업성 산하 국영 산업 부문의 복구 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본격적인 기본 건설 공사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제 신설、확장、대보수 및 복구 공사를 一〇〇%로 하여 본다면、자금이 투하되는 비률은 다음과 같다。

구별 / 부문별	신설 확장 및 대보수 공사	복구 공사
전기	九六·二%	三·八%
석탄	九五·〇%	五·〇%
광업	八九·〇%	一一·〇%
금속	八〇·八%	一九·二%
기계공업	九三·三%	六·七%
화학공업	七九·二%	二〇·八%
전재공업	七一·五%	二八·五%
경공업	九九·三%	〇·七%

전체를 통하여서는 신설 확장 공사가 八〇·一%、대보수 공사가 九·八%이며 복구 공사는 一〇·一%에 불과하다。

이 사실은 우리 산업 건설에 있어서 새로이 생산력이 급속하게 장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一九四九년에 있어서 국영 산업 부문의 기본 건설 공사 건수는 七六〇건이었는데 그 중 완성된 것은 二八一건으로서 전체의 三七%에 해당하며、나머지 공사는 六〇% 이상 진척된 것이 二五二건、六〇%이하 진척된 것이 二二七건으로서 량자 합계는 七六〇건이었다。

이것을 투하된 자본액으로 분석하여 본다면 一九四九년에 二五억 이상이 투하되었는데 그 중 약 八억 五천만원에 해당한 고정 폰드 즉 공사의 건수로서 전체의 三七%만이 실제에 새로 조업을 개시하였던 것이다。이 중에는 길주 팔프의 제지 공장、아오지 인조석유 공장、황해 제철소의 제一 용광로(三五〇톤)등을 비롯하여 중요한 공사들이 포함되어 있다。이 사실은 또한 一九四九년 중에 진행된 공사들이 대부분 아직도 진공 중에 있거나 또는 조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이 고정 폰드를 합치면 一九五〇년에 있어서 새로 조업을 개시할 고정 폰드는 거액에 달할 것이 예견되는 것이다。

一九五〇년에 있어서 전 인민 경제 부문의 기본 건설 투자액은 一〇、四八四、二三〇천원인바 국영 산업 및 농업 생산력을 확충 강화하기 위하여 거대한 기본 건설 공사가 예정되고 있다。

一九五〇년말에 가서 국영 산업 총 생산액은 이미 제적한 바와 같이 해방전 최고 수준인 一九四四년에 비하여 五八·一%를 초과하게 되는바 이것은 기본 건설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즉 一九五〇년 국영 산업 총 생산액이 一九四九년 보다 장성되는 부문중 그의 약 五三%는 새 기본 건설에 의한 생산 능력 확장으로써 달성된다는 것을 지적하면 충분할 것이다。

또한 방대한 기본 건설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공화국 북반부 산업 구조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장구한 통치의 결과로 조성된 식민지적 편파성은 급속히 퇴치되어 가고 있다。우리 산업을 부흥 발전시키고 기술적으로 개전할 것은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요한 과업이다。이 과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또 반드시 수행되고야 말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 전 우리 민족 경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탈적 식민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기술적 토대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인민들에게 필요한 일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과 제조소들도 건설되지 않았던 것이다。

一九五〇년 기본 건설 계획은 우리 산업의 발전 템포를 높이고 급속히 기술적으로 재전하며 인민들에게 의료품을 비롯하여 생활 필수품들을 더 많이 공급하여 주기 위하여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 예정되지 않았던 방대한 추가적 건설 공사를 예견하고 있다、특히

대규모의 기계 공장을 건설하게 된 것은 우리 산업 발전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게 된다.

一九五〇년 기본 건설 공사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사들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 기계 공업을 급속히 확장시키기 위하여 대규모의 공작 기계 공장을 설치하는데 이를 위하여 六三九、一一〇천원의 자금을 투자한다. 이 공작 기계 공장의 신설은 우리 산업의 기술적 재건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될 것이다.

둘째, 평양 방직 공장의 건설 계획을 확대하여 방사 능력을 六〇、〇〇〇추로 하며 직기 二、五〇〇대를 설치한다. 이 공사는 一九五一년에 가서 완성될 것인바 一九五〇년 중에 일부가 완성되어 조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공사에 있어서 건설 규모 확장으로 인한 투자액 증가는 五四四、五四〇천원이다.

셋째,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과 농업 증산을 위하여 증가되는 화학 비료 생산 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흥남 비료 류산 공장의 대보수와 청수 화학 공장 질소 비료 분공장을 건설한다.

네째, 알카리 공업을 확립하기 위하여 남포 소다 공장을 신설한다.

다섯째, 금속 공업을 급속히 확장 강화하기 위하여 황해 제철소, 성진 제강소, 강선 제강소들의 기본 건설 공사 등을 진행하는 이시기 대규모의 공사로서 청진 제철소의 복구, 문평 아연 공장의 신설, 남포 제련소의 확장 공사 등을 예정하고 있다. 이 공사들을 완료한 후에는 우리 산업은 위력있는 금속 공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독로강 발전소의 신석을 비롯하여 허다한 공장, 광산들에 있어서 기본 건설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림 부문에 一、六五二、三五〇천원의 기본 건설 자금을 투하할 것이 예정되고 있다. 특히 이 부문에 있어서는 몽리 면적이 二五、〇〇〇정보에 달하며 미곡 년 五〇、〇〇〇톤 증산을 예견하는 평남 관개 공사에 주력하게 된다. 이 공사는 석계를 변경하고 공사 내용에 더욱 완벽을 기하는바 이를 위하여 약 四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투하될 것이다.

또 농촌 경리 부문에 있어서는 一九五〇년부터 안주、재령 등 五개 지대에 농기계 임경소를 설치하여 一〇〇대의 뜨락또르를 배치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기계화를 위하여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三、

우리 인민 경제는 해방 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산업과 농업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발전을 성취하였다.

우리 산업이 기술적으로 점차 재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새 공장들의 건설과 아울러 새 제품들이 속속 생산

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 능히 이를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一九四七년 처음으로 계획 경제를 실시한 이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우리 북반부에서는 새 공업 제품들이 허다히 생산되고 있다. 해방 전 조선에서는 전동기, 변압기, 공작 기계들과 같은 기술적 제품들은 전혀 생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 손으로 능히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해방 전 북반부에 있던 기계 공장들은 기계 기구를 생산하여 다른 인민 경제 부문에 생산 도구와 기계 부속품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장에 부속된 수리 공장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국유화되고 공장, 광산, 발전소들과 철도 기관들을 우리 손으로 운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앞에는 막대한 난관들이 가로 놓여 있었던 것이다.

더우기 기술 간부 및 숙련 로동자의 부족은 인민 경제 복구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난관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곤난들은 오직 쏘련의 경제적 기술적 원조에 의하여서만 타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북반부 인민 경제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해방 후 많은 기술 간부들과 숙련공들을 양성하여낸 것과 낡은 기술 간부들을 재교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반부에 있어서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또 이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완수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실로 기술자 및 기능자들을 가장 짧은 기간에 허다히 양성하여 낸 데 기인되는 것이다.

북반부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기능 수준이 급속히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은 다음의 숫자가 이를 립증하여 주고 있다.

一九四六년을 一〇〇으로 하면 로동자 수는

一九四七년에 一一九・八%

一九四八년에 一三八・六%

一九四九년에 一六七・一%로 각각 장성되었는데

기능자 수는 一九四六년을 一〇〇으로 하여

一九四七년에는 二一八・九%

一九四八년에는 三四六・八%로 각각 장성되었으며 또 一九四九년에는 근 四배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능공의 장성 비률이 로동자의 장성 비률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은 로동 계급의 기능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사실을 립증하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기술적 기능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로동 생산성이 계속 장성되어 가고 있다.

一九四九년에 있어서 로동 생산성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二八三・四% 장성되고 있으며, 一九五〇년에 와서는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二一・二%가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 설비의 신설, 확장과 로동 생산성의 계속적 향상은

생산원가의 부단한 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민 경제 축적의 급속한 증대를 촉진시키고 있다。

국영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一九四八년에는 九·五%의 원가가 저하되었으며、또 一九四九년에는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九·八%의 원가를 저하시키고 있다。그리하여 一九四九년에 있어서 국영 산업 부문에서는 국가 계획 원가 이하로 원가를 거하시킨 것만 하여도 六억원 이상에 달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 생산에 있어서도 과종 면적의 확장、수확고의 증가、공예 작물의 증산 등으로써 급속한 생산력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해방 후 북반부에 있어서는 수전 면적이 六만정보나 확장되었으며 밭과 논에서의 정당 수확고는 해마다 장성되어 가고 있었다。

一九四九년에 있어서는 일찌기 보기 드문 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곡 수확고는 一、二四〇、八六三톤으로서 평년작에 달하였으며 잡곡 및 맥류는 一九四八년의 높은 수확 수준을 一七%내지 三八%나 초과하였다。특히 면화를 포함한 공예 작물 수확고는 一九四九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一九五·九% 즉 약 二배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북반부 농업 생산이 급속히 제고된 것은 토지 개혁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물질 문화적 생활 수준이 높아짐과 함께 영농 방식의 개선、농업 기술의 섬차적 향상에 기인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 부문에서나 농촌 경리 부문에서나를 막론하고 우리 인민 경제가 급속히 발전되었으며 기술적으로 점차 장성되어 가고 있는 것은 경제 건설에 있어서 우리의 승리가 확고하여 가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 건설에 있어서 우리 사업의 결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인민 경제 건설에 있어서 우리 사업에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四、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一九四九년 예정 숫자 실행 총화와 一九五〇년 예정 숫자 승인에 관한 내각 결정 제三七호에는 많은 결점들이 지적되어 있다。즉 국영 산업에 있어서는 유색 광업과 금속 공업 부문의 사업 조직이 잘 되지 못하여 년간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다。이 중요 부문 사업의 락후는 결국 국영 산업에서 계획을 九七·九%밖에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되었다。생산 계획이 품종 별로 정확히 달성되지 못하고 숫자적으로만 실행되는 경향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一九四九년에 있어서 금、은、동、연정광、철석、조강、전동기、농기구、가성 소다、면포、인조 섬유들과

같은 중요 제품 생산 계획이 달성되지 못한 것은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 농업 및 교통 운수 부문에 있어서 기본 건설 공사가 적지 않은 결점들을 발로하였다。때문에 우리 인민 경제에 있어서 생산력 장성과 확대 재생산은 계획에 예정된 규모에 비하여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다。적지 않은 공사들에 있어서 건설 대상을 옳게 선택하지 못하였으며 또 많은 공사의 설계가 불완전하게 되었다。또 생산력 장성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공장들을 제 때에 완성시키지 못하였다。황해 제철소 제四해탄로、남포 초자 공장을 비롯하여 일부 중요 건설을 一九四九년에 완성하지 못한 것은 그 구체적 실례이다。로동자 주택 건설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공사가 제대에 완성되지 못하여 로력 확보에 지장을 주었다。이리 하여 一九四九년 중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一九五〇년 기본 건설 계획에 계승된 공사는 자금으로 환산하여 五억원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능자 양성 계획이 불만족하게 실행되었다。그렇기 대문에 산업 부문에서는 기능자를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계획 실행에 많은 곤난을 경험하였다。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우리 사업에 아직도 많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립증하는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결점들이 발생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김일성 동지는 「산업 발전의 모든 조건들이 변경되었으며 새 환경이 조성된 데 의하여 새로운 지도 방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산업 발전의 새 환경과 새 조건에서 새롭게 사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부 경제 일꾼들은 자기 사업을 개조하지 않고 계속하여 낡은 방식으로 사업하며 어떤 지도자들은 아주 용인할 수 없이 굼뜨게 생산 지도 방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이것이 많은 산업 부문이 락후하게 된 기본적 원인으로 되는 것입니다」(산업 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 대회에서의 총결 연설에서)라고 하시었다。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 있어서 발로된 많은 결점들은 결국 그 근본 원인들을 구명하여 보면 우리 인민 경제의 발전 법칙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연구와 로력이 부족하며 적발된 결점들을 제때에 면속하게 시정할 데 대한 일부 간부들의 사업상 락후성과 과거의 승리에 대한 자만심에 귀착되는 것이다。적지 않은 기업소 지도 일꾼들은 계획 실행을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기업소의 구체적 조건들을 면밀히 연구하며 생산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재 기계의 부족품들과 로력을 기능 별로 충분히 확보하며 기업소의 생산·기술·재정 계획(프롬핀쁠란)에 의하여 계획 과제를 주야 순간 월별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협소한 경험에만 의존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 일군들은 우리 산업이 급속히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동일한 생산 부문에서도 기술 경제적 기준에 부단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행할 데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군들에게는 우리 인민 경제 계획이 확대 재생산의 계획이며 매개 생산 부문과 기업소들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생산을 량적 질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 발전된 계획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군들은 기업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거의 낮은 수준에 고집하고 생산을 높이며 사업 수준을 확대 강화할 데 대하여 연구하지 않는다。

一九四九년 인민 경제 예정 숫자 실행이 일부 인민 경제 부문에서 락후하게 된 것은 이 부문들에 극복할 수 없는 곤난이 존재하고 있는 데, 기인된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수차에 걸쳐 인민 경제 계획을 실행하였고 중요한 설비품들이 쏘련으로부터 공급된 것과 아울러 기술자 기능자들의 사업 수준이 높아진 오늘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하여 우리의 경제 건설을 더 용이하게 높은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민 경제 건설에 있어서 우리 사업 수준을 높이며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새 생산 방법을 적용하며 또 생산 조직을 부단히 검토 시정하는 것은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초과 완수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김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새 환경과 새 조건에서 새롭게 사업할 것」을 배우며 연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다。

五、

우리 사업에서 결점들을 퇴치하고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 예정된 생산력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과거의 우리 사업을 철저히 재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유효한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력의 제고는 무엇보다도 현존 생산 능력을 고도로 발휘하도록 설비 리용률을 높이며, 로동자 기능자들의 작업 수준을 높이며, 기본 건설의 속도를 높이며, 새로운 기술을 부단히 도입 또는 보급시키는 방법 등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첫째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는 문제는 생산력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중심적 과업의 하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기계 및 설비 리용률은 낮은 수준에 처하여 있으며 많은 기업소들에서는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편성할 때에 예정한 수준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흥남 비료 공장, 황해 제철소를 비롯하여 많은 중요 기업소들에 있어서 설비 리용률을 높일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일례로 一九四九년 중 황해 제철소의 례를 본다면 설비 리용률이 후판 압연기는 七三·一%, 박판 압연기는 七〇·九%, 조강 압연기는 二六·八%, 선철 압연기는 六六·六%이며, 평로에 있어서는 불과 五六·八%이다。 또 금년 一·四분기에 있어서 기계 공업 부문의 공작 기계 리용률은 八五·四%의 계획에 대하여 七〇%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 방적 부문의 인견 직조 공장들에서는 아직도 三교대 작업을 부분적으로 밖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기업소들에 있어서 교대 작업을 실시하며 또 교대 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생산을 급속히 높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중요 기업소들에서 二교대 내지 三교대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一교대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三교대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대 작업을 실시 확대하며 유휴 설비를 리용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이에 필요한 대책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와 대책들은 물론 해당 생산 부문 또는 해당 기업소의 실정에 적응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비 리용률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매개 기업소 내에서 생산기술 재정계획(쁘롬핀쁠란)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수립하는 문제이다。 제품 생산고와 소요 원료 자재와의 자재 바란쓰, 제품 생산고와 소요 로력과의 기능별 로력 바란쓰, 설비 리용 계수, 로동 생산성, 생산의 장성 속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는 생산 능력을 충분히 리용할 수 없으며 생산을 계속 부단히 제고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매개 기업소들에서는 해당 기업소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 설비 능력에 대한 리용률을 고도로 높이기 위하여 현재 애로로 되고 있는 조건 등을 해결할 데 대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생산 부문별과 전 인민 경제적 범위에 걸쳐 설비의 바란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된다。 설비를 옳게 또 유효하게 리용하려면 반드시 생산 설비의 호상 간에 일정한 바란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별적 기업소나 개별적 생산 부문 간에는 설비를 리용함에 있어서 불균형한 현상들이 적지 않게 있다。 즉 다수 경우에 있어서 한 공장이나 기업소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기계 기구와 아그레가트들이 다른 공장이나 기업소에서는 거저 놀리고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一九四九년에 국가 계획 위원회에서 약 四〇개 기업소에 대하여 유휴 자재를 검열한 결과에 의하면 전동기를 三〇〇대 이상이나 놀리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놀리고 있는 설비품들을 유효하게 리용하며 설비 호상간에 존재하는 불

군현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한 공장에서 놀리고 있거나 불필요한 기계들은 다른 필요한 공장으로 돌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이 현존의 기계 및 아그레가트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존 설비를 리용하는데 있어서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첨부적 설비품들을 시급히 수입하여 들여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계 설비를 전문적 공장들에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설비 리용률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계 부속품들의 생산을 강화하여 모든 생산 부문에 요구되는 부속품난을 완화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현재에 있어서 설비 리용률을 높이지 못하며 따라서 생산력을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가 기계 기구의 각종 부속품이 부족한데 있는 것을 고려하여 중요 기업소 기계 수리 공장의 사업을 강화하며 전면적으로 三교대 작업을 실시케 하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부속품들을 자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기계 부속품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기계 공업의 급속한 확립을 기하는 것이 급선적 과업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세째로, 기술자 및 기능자의 양성 사업을 강화하여 산업 부문에 있어서 기술 및 기능 인재들에 대한 준비를 급속히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一九五〇년 중에 一二九개의 직장 기술 학교에 一九,〇〇〇명 이상이 취학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어도 년내에 一、二〇〇명 이상을 졸업시키며 또 직장 기술 전문 학교를 증설하여 약 五,〇〇〇명을 취학시키고 四〇〇명 이상을 졸업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각 방면으로 기능자 양성 사업을 강화하며 기술 전습 사업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 부문에서 적어도 三七、〇〇〇명 이상의 기능공을 양성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능자 확보 문제는 一九五〇년도 예정 숫자를 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해결이 없이는 생산 계획과 기본 건설 계획을 제때에 완수할 수 없는 것이다。

네째로, 생산 조건을 개선하며 로력 조직을 강화하는 동시에 매개 로동자들의 로동 생산성을 높이도록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로동 생산성의 제고는 막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맑스, 레닌, 쓰딸린은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로동 생산성의 결정적 의의와 역할을 각 방면으로 강조하였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썼다。「공업의 령역에 있어서나 농업의 령역에 있어서나 로동 생산성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킴이 없이는 우리는 재건설의 임무를 해결할 수 없으며 선진 자본주의 제국을 따라가며 앞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체의 독립적 존재까지도 고수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로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로동 생산성의 장성은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시키며 작업 방식을 개선하며 생산 행정을 급속히 기계화하는 대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북반부에 있어서 로력이 많이 들며 힘든 로동에 대한 기계화의 수준은 극히 낮으며 또 작업 방식에 있어서도 표준 조작법이 충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업을 옳게 조직하며 과거에 있은 제 결점을 결정적으로 시정한다면 로동 생산성을 급속히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기술 경제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생산력을 제고시키며 계획 실행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해방 후 四년 동안에 우리의 경제 건설은 그 사업이 급속이 개선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제적 수준은 응당히 있어야 할 수준에 까지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一九五〇년의 산업 부문 생산 계획이 방대한 숫자에 달하고 있는 만큼 기술 경제 수준을 현저하게 제고시키지 않고서는 이를 기한 전에 완수할 수 없는 것이다。

매개 기업소들에서는 선진적 기업소와 선진적 로동자들이 도달한 새 기술 경제적 기준을 따라가며 앞서 가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로동자들의 작업 능률과 작업 수준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업 부문에서의 선광장의 증설 보수, 시추 및 갱내 사업 조직의 강화, 야금 부문에서의 용광로 내용적(內容積) 리용, 개수 증대, 평로 및 전기로의 출강 시간 단축, 평로 평방 메터당 제강량의 증가, 후판 압연기 및 소형 압연기의 운전 매시간당 평균 환산 생산량의 증가, 석탄 부문에서의 착암기 및 콜캇타의 월 평균 생산성의 제고, 유색 광업 부문에서의 선광 실수률의 제고, 기계 공업 부문에서의 공작 기계 가동 년 평균 직수 및 一일 평균 가동 시간의 증가, 경공업 부문에서의 대두유 실수률의 제고, 정방기 및 직기 운전률의 향상, 화학 공업 부문에서의 류안 포화기 一대 一일 생산량 증가, 석회 질소 생산에 있어서의 질화로 운전률 제고 —— 이 모든 기술 경제 기준을 급속히 제고시키는 것은 생산력을 제고시키며 생산을 강화함에 있어서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술 경제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모든 기술자 기능자 및 로동자들의 작업 개선에 대한 창의성을 고도로 높일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적 생산 방법과 새 기술이 광범히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섯째로, 기본 건설 계획의 실행을 강화하는 것은 생산력 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본 건설에 의해서라야 생산력은 결정적으로 확대 장성되는 것이며 인민 경제의 확대 재생산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一九五〇년의 방대한 기본 건설

공사를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건설 속도를 높이며 건설 작업을 표준화하며 기계화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방식들이 광범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 건설을 비롯하여 기본 건설 공사에 있어서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작업하는 것은 건설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와 자재 및 예산을 절약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립식 건축(組立式建築) 방법을 광범히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 건설 계획을 제때에 정확히 완수하기 위하여 설계 및 부지 선정을 미리 앞서 선정하며 소요 자재의 확보와 준비 사업을 충분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 계획 숫자 달성에만 급급하고 기본 건설을 등한히 하는 경향들을 엄격히 비판 퇴치할 것이며 어떤 기업소 어떤 부문을 막론하고 기본 건설 계획 완수를 계획 완수의 중요한 조건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본 건설 공사는 준공과 함께 조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때에 운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완성된 공장이나 아그레까트를 一일이라도 놀리는 것은 생산력의 사장이며 국가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 준비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산업성 기본 건설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기본 건설 트레스트의 사업을 신속히 개시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강력히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아울러 기본 건설 공사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게 제기된다。 설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며 사용 자재의 강도 시험을 정확히 실시하는 것은 기본 건설 공사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막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큰 건설장에서는 일정한 방법으로 자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본 건설 트레스트에서도 이를 려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 건설 공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만일에 건설된 건물이나 공장이 규정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六、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우리 인민 경제 발전의 광범한 전망을 보여 준다。

이 계획에는 북반부의 산업、 농촌 경리、 운수、 체신、 상업 등 전체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예견되어 있으며 보건、 교육、 문화 등 사회 부문까지도 광범히 포괄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 있어서 확대 재생산의 내용은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의 급속한 발전과 아울러 소

비 자재 생산 부문의 광범한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 예견된 기본 건설 공사는 一九四九년에 있어서는 파괴된 공장 광산들의 복구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一九五〇년에 있어서는 약간의 례를 제외하고는 시설 및 확장이 전반적으로 되고 있다。

전인민 경제 부문의 균형적 발전은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 있어서 확대 재생산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

산업과 농업 생산과 상품 류통、 산업 및 농업 생산과 수송력의 장성、 로력의 바란쓰와 분배、 인민 소득의 생산과 분배、 물자 폰드의 바란쓰와 분배、 사회 생산물의 생산과 분배、 기본 폰드의 생산과 분배들 간에는 호상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섬유 원료의 증산 계획은 경공업의 발전 계획과 련결되어 있으며 금속 제련 생산고 증가는 광업 부문 생산 장성과 련결되고 있다。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 관한 법령에는 一九五〇년 철도 화물 수송량이 一八、〇〇〇、〇〇〇톤이었는데 一九五〇년 산업 생산고의 증가에 따라 이것을 一八、五〇〇、〇〇〇톤으로 증가한 것은 인민 경제 부문의 련결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二개년 계획에 예정된 생산력 장성 템포를 보장하며 一九五〇년 예정 숫자를 기한 전에 완수하려면 매개 생산 부문에서와 매개 기업소에서 반드시 자기 계획을 제때에 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에 생산 계획이 제때에 규정된 기간에 완수되지 못한다면 자재 공급에 파탄을 일으키어 기본 건설 공사에 지장을 줄 것이며 또 기본 건설 공사의 지연은 생산 장성의 템포를 저하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전 인민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균형적 발전이 우리 인민 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은 二개년 인민 경재 계획의 기한 전 완수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특히 우리 인민 경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광업、 금속 공업 및 기계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중요 공업 부문에 있어서 계획 실행의 락후성과 불균형은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속도에 중대한 조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영 산업에 있어서 이 생산 부문의 락후성을 퇴치하는 것은 전 인민 경제 부문에서 一九五〇년 예정 숫자를 제때에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 경제의 생산력을 제고 장성시킴에 있어서도 막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를 위한 증산 경쟁 운동의 역할을 옳게 파악하며 이를 적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산업 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 대회에서의 김일성 수상의 연설 및 증산 경쟁 운동에 관한 내각 결정이 있은 이후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하기 위한 경쟁 운동은 인민 경제 각부문에 걸쳐 광범히 벌어지고 있다。

홍남 비료 공장을 선두로 한 홍남 지구 五개 직장에서 一九五〇년 예정 숫자를 八・一五 해방 五주년을 맞이하며 기한 전에 완수하자는 호소는 광범한 로력 대중의 호응을 받고 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 전개되는 증산 경쟁 운동은 착취에서 해방된 로동 계급의 조국 창건을 위하여 궐기한 자각적 행동이며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하며 초과 완수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다。

이 운동은 우리 북반부 새 사회 제도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담보이다。

증산 경쟁 운동은 생산력을 급속히 제고시키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은 새롭고 보다 높은 작업 수준을 위하여 근로 대중을 고무 추동시킨다。 그것은 또한 인민 경제에 있어서 생산력 발전에 혁명적 작용을 하게 된다。 증산 경쟁 운동은 개인적 리해 관계와 사회적 리해 관계를 완전히 조화시키며 로동 계급의 실질적 수입을 향상시켜 준다。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증산 경쟁 운동을 옳게 조직 전개하며 광범히 전파시키는 것은 국가 계획 실행 기간을 단축시키며 인민 경제 건설에 있어서 생산력을 제고 앙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다。

七、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하고 이 계획에 예견된 생산력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계획 실행에 대한 지도와 검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계획 실행에 대한 검열은 계획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비와 원천들을 동원, 리용하며 계획의 초과 완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무기로 되는 것이다。

계획은 그 실행 과정에서 검토되며, 수정되며, 정밀화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계획과 계획 지도는 계획화에 있어서 두가지 유기적 부분인 것이다。

참다운 계획적 지도는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개된다고 한 레닌과 쓰딸린의 교시는 우리 인민 경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비상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계획 실행에 대한 검열과 지도는 국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다。 국가 계획 실행 여부를 검열하는 의의는 인민 경제 계획 장성의 원칙과 역할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북반부에 있어서의 인민 경제의 발전 법칙은 그 기본에 있어서 이미 계획화의 법칙으로 되고 있으며 또 그것은 국가의 계획적 지도에 의하여서만 실현되는 그러한 법칙으로 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인민 경제는 자연 생장적으로는

발전할 수 없으며 국가의 계획적 지도가 절대한 역할을 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민 경제 계획은 그의 실행을 위하여 투쟁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행정을 일상적으로 검열함으로써 만이, 계획에 예정된 과업을 해결하는 데로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방법으로써 만이 그 실행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레닌은 전로 전기화 위원회의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주심하게 연구하며 실천적 경험의 지시에 근거하여 반드시 계획에 보충하고 그것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개정하고 또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레닌은 고엘로 계획의 기한을 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레닌은 말하기를 「산업을 전적으로 회복할 그때로부터 우리가 격하여 있는 그 장구한 시기를 경험이 축소할 수 있음을 대중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과학과 실천의 경험을 살펴 보면서 자기 지방에 이미 예정된 그 기한보다 더 빨리 계획을 실행하도록 꾸준히 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각개 공장, 각개 기관차 수선소, 각개 령역에서 경리를 개선하라, 그때에라야 우리가 기한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는 기한을 축소하고 있다」

계획에 대한 지도와 검열을 게올리하는 것은 계획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실행을 포기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계획을 파탄시키는 것이다。 계획은 결코 저절로는 실행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일면적으로만 실행되어서는 안된다。 계획은 반드시 균형적으로 파동이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여야만 한다。 우리 계획 실행에 있어서의 중대한 결점은 계획을 규칙적으로 또 량적 질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데 있다。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제十八차 대표회는 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계획 실행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획 실행을 보장하고 계획대로 일한다는 것—이것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ㄱ、년 계획 四분기 계획과 월 계획을 지금까지 있던 바와 같이 평균하여 실행할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하여 균형적으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하여 균형적으로 이미 작성된 완제품 생산표에 의하여 계획을 실행할 것。

ㄴ、공업 부문마다 지금까지 있던 바와 같이 단지 계획으로 평균하여서만 실행할 것이 아니라 각개 기업소에서 이를 실행할 것。

ㄷ、기업소마다 지금까지 있던 바와 같이 단지 계획을 평균하여 실행할 것이 아니라 각개 직장, 각개 작업장, 각개 정거장, 각개 교대에서 마다 매일 계획을 실행할 것。

ㄹ, 계획을 단지 량적으로만 실행할 것이 아니라 설정된 표준을 준수하고 계획에 설정된 원가에 의하여 반드시 질적으로 품종마다 계획을 실행할 것」

이것은 참으로 계획 실행의 법칙이며 계획에 대한 지도와 검열의 지침인 것이다。

매 기업소들에서와 매개 생산 부문들에서 이러한 견지에서 계획 과제를 실행한다면 우리 인민 경제의 계획화는 막대한 성과를 거둘 것이며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반드시 높은 수준에서 완수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를 위한 투쟁이 민주, 력량과 반동 력량 간에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된다」(허가이)는 것이다。

우리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을 방해하려는 원쑤들의 파괴 행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전당적으로 경각심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당원들과 당 단체들은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一九五〇년 예정 숫자를 기한 전에 완수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긴장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브·쓰딸린 전집 제二권에 대하여

뻐·뻐 스뻴로브

이·브·쓰딸린 전집 제二권이 세상에 나왔다。본권에 수록된 제저작은 주로 쓰딸린 동지의 혁명적 활동의 두 시기, 즉 바꾸 시기와 뻬쩨르부르그 시기를 포괄하고 있으며, 주로 一九○七년 하반기로부터 一九一三년 까지의 시기에 집필되었다。그 시기는 볼쉐위크들이 가장 거대한 시련을 견디어 낸 시기이였다。레닌은 당시 볼쉐위크들에 관하여 다옴과 같이 말하였다。「사람들이 우리를 철석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제一차 로씨야 혁명 실패 후 퇴각의 시기,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영웅적인 후위전(後衛戰)——즉 최후의 대중적인 정치적 파업, 一九○五년——一九○七년 혁명 후 닥쳐왔던 흉악한 반동의 수년, 비합법적 혁명적 맑쓰주의 당을 보존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멘쉐위끼—청산파들과의 투쟁, 로동 운동에 있어서의 새로운 혁명적 앙양과 독립적 맑쓰주의 당으로, 신 형태의 당으로, 레닌주의의 당으로의 볼쉐위크들의 형성——이 모든 력사적 사변이 쓰딸린 동지의 제저작에서 심오하게 해명되었다。당의 리론과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제문제가 그 안에서 해명되었다。전집 제二권에는 이·브·쓰딸닌의 고전적 저작인「맑쓰주의와 민족 문제」(一九一三년)가 들어 있다。그 저작에서 민족 문제에 대한 볼쉐위끼적 리론과 강령이 전개되었다。

제二권에 대한 맑쓰—엥겔쓰—레닌 연구소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뚜루한스크의 류형중 쓰딸린 동지에 의하여 집필된「문화적—민족자치에 관하여」란 론문과 기타 일련의 저작들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 × ×

一九○七년 상반기에 관계되는 제二권의 저작들은 제一차 로씨야 혁명 시기에 있어서의 볼쉐위크들의 전술 문제에 바치어진 것이다。이 문제들은 이·브·쓰딸린의 저작「칼·카우츠키 저「로씨야 혁명의 동력과 전망」이라는 소책자 그루지야판에 대한 서문」、「뻬쩨르부르그에 있어서의 선거 투쟁과 멘쉐위크들」、「프로레타리아트는 투쟁을 하고 있고 부르죠아지는 정부와 동맹을 체결하고 있다」및 기타 론문들에서 해명되었다。이·브·쓰딸린 전집 제一권의 제저작에서와 같이 이 저작들에 있어서의 중심 문제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에 관한 문제이다。

멘쉐위크들은 一九○五년——一九○七년의 혁명이 부르죠아 혁명이고 불란서의 부르죠아 혁명의 반복이기 때문에 다만 부르죠아만이 혁명의 령도자로 될 수 있다고 루루히 말하였다。「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라는 것은 해로운 공상이다」、「프로레타리아트는 반드시 극단적 부르죠아 반대 당의 뒤를 따라가라」고 멘쉐위크들의 지도자인 마르떠노브는 언명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우리 혁명의 특성에 관한 그리고 그 혁명의 동력에 관한 멘쉐위끼적 판단의 모든 리론적 및 정치적 파산성, 사멸한 전부성을 폭로하였으며 멘쉐위크들의 전술의 모든 기회주의적 빈곤성을 밝히였다。볼쉐위크들은 비록 제一차 로씨야 혁명이 그 성질상 부르죠아적이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그것이 불란서 혁명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 불란서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혁명을 부르죠아지가 령도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립장을 고수하였다。

「불란서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각이 덜하고 비조직적인 력량이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혁명에 있어서의 헤게모니가 부르죠아지에게 남아 있었다。우리에게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트는 비교적 더 자각적이며 조직적인 력량인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죠아들의 부속물의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가장 혁명적인 계급으로서 현대의 운동의 선두에 서고 있다。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는 공상이 아니고 그것은 생생한 사실이며, 프로레타리아트는 실제에 있어서 불평분자들을 자기의 주위에 결속시키고 있다。「부르죠아 반대 당의 뒤를 따라」가라고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충고하는 자는 누구나 할것 없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자성을 박탈하는 것이며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를 부르죠아들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자이다」(이·브·쓰딸린 전집 제二권 로동당출판사판 三——四폐지……이하 동서에서 인용된 것은 폐지만을 표시함)라고 쓰딸린 동지는「민주주의 혁

명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자의 두가지 전술」이라는 저작에서 서술된 레닌의 명제를 고수 발전시키면서 말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실제에 있어서 혁명의 수령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짜리 제도에 대한 승리에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 밑에서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동맹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볼쉐위크들은 다만 빈농층만이 혁명적 프로레다리아트에게 손을 내어밀며 다만 그들만이 현 혁명의 전 기간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트와 공고한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반동과 까제트를 반대하여 반드시 빈농을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이 두 주요 력량이 호상간 동맹을 맺으며 만일 로동자들과 농민들이 호상 지지한다면 그때에는 혁명의 승리도 보장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볼쉐위크들은 선거의 첫 계단에서, 국회 내에서나 국회 밖에서나, 까제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볼쉐위크들은 반동과 까제트를 반대하여, 선거에서나 국회에서나, 마찬가지로 오직 농민의 혁명적 대표들만을 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볼쉐위크들은 국회 전체의 주위에가 아니라 다만 국회의 혁명적 부분의 주위에만 광범한 인민 대중을 결속시킨다」(六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기록하였다.

멘쉐위크들은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지 앞에와 까제트 앞에서 아첨하였으며, 아유하였으며,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지는 혁명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으로 프로레타리아트를 위협하려고 시도하였다. 당시 유명한 멘쉐위끼의 령수 말리셉스끼는 「우리 나타의 부르죠아지는 공화국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공화국이 있을 수도 없다……」라고 기록하였다. 이와 다른 멘쉐위끼인 체례와닌은 국회 선거 전야에 말하기를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들이 제의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진권을 가지며 전인민적인 헌법 제정 회의를 위하여 정부 및 부르죠아지와의 투쟁에 농민과 함께 참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며 우둔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멘쉐위크들은 까제트와의 합의를 달성하였으며 까제트 내각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멘쉐위끼의 령수 쁠레하노브는 심지어 까제트들과의 타협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며 까제트들과의 직접적 련합, 럼시적 합동, 선거 시기에 있어서 사회민주당이 까제트들과 련합할 것, 전인민적인 헌법 제정 회의와 사회민주주의적 최저 강령을 실제적으로 거부할 것을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멘쉐위크들의 비 맑쓰주의적, 자유주의적 견해를 폭로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보는 바와 같아 멘쉐위크들은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지의 「혁명성」에 그렇게 까지 매혹되었고, 그들은 부르죠아지의 「혁명성」에 그렇게도 많은 희망을 걸었으므로 부르죠아지에게 유리하도록 사회민주주의적 강령 자체까지도 당각하게끔 되었다」(一一페지)

볼쉐위크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혁명적 농민과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을 위해서 농민을 자기들의 영향 하에 종속시키려고 시도하는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지를 배척하고 고립시키기 위해서 투쟁하였다. 볼쉐위크들은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독재를 위해서 투쟁하였으며 멘쉐위크들은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까제트의 독재를 지지할 것을 제의하였다.

「떼쩨르부르그에 있어서의 선거 투쟁과 멘쉐위크들」이라는 자기의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선거 투쟁 과정에 있어서 두가지 정치적 로선이 출현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즉 까제트와 타협하는 부패한 기회주의적 멘쉐위끼적 전술과 까제트와 투쟁하며 까제트를 고립시키고 배척하는 볼쉐위끼적 혁명적 전술인 것이다. 멘쉐위크들은 프로레타리아트를 「까제트의 위협성」에는 눈을 가리우고 「흑백단의 위협성」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를 위협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들은 까제트를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진출하였다. 떼쩨르부르그의 로동자 회의에서 패망을 당한 후 멘쉐위크들은 떼쩨르부르그에서 자기들의 전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결국 선거가 진행되었는바 전체 떼쩨르부르그를 통하여 한명의 흑백단원도 피선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떼쩨르부르그에서 볼쉐위크들의 전술이 옳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멘쉐위크들은 패배를 당하였던 것이다」(二四페지)

「국회의 해산과 프로레타리아트의 과업」이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짜리 정부에 의한 제二차 국회의 해산은 어떠한 원인으로 그와 같이 되었는가를 밝히었다. 전제 정체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농민과 련결되고 그를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자로부터 짜리 정부의 동맹자로 만들며 그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를 홀로 남기고 그를 고립시킵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서 짜리 정부는 당시 아직까지 농민의 락후한 부분에서 약간의 영향을 가지고 있던 까제트의 도움을 받으며 한 것이며 까

제도를 통해서 농민과 련결을 가지려 하였던 것이다. 짜리 정부는 제二차 국회를 이와 같이 리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로 되었다.

「정부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위에 또는 그들을 통하여 구 주권의 주위에 농민 대의원들을 집결시킴에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국회를 통하여 농민들과 련결을 맺으며 프로레타리아트를 고립시키려는 정부의 소원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와 반대로 농민 대의원들은 프로레타리아트 대의원의 주위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주위에 더욱더 집결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유주의자들과 까제트들로부터 더욱더 멀리 떨어질쑤록 그들은 더욱더 결정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대의원들과 접근하여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밖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주위에 농민들을 결속시키는 사업을 현저히 용이케 하였다」(五四페지)

제二차 국회의 존재가 전제 정체에 더욱더 위협을 주게 되는 것을 본 짜리 정부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선거법을 발표하여 소위 「六월三일 변혁」을 일으키었다. 그 선거법에 의하면 로동자와 농민의 국회 선거자의 수는 격감되고 그만큼 지주 선거자의 수가 증가되었던 것이다. 변절적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지는 까제트를 통해서 짜리 정부와 협정하려 갔던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직 짜리 주권과 자유주의 부르죠아지에 반대하여 농민들과 동맹함에 있어서만이 혁명의 제 근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짜리 주권의 전복과 전인민적 헌법 제정 회의 소집—바로 이러한 방면으로 제二차 국회의 해산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

변절적인 자유주의 부르죠아지와의 투쟁, 농민과의 긴밀한 동맹—바로 이 점을 제二차 국회의 해산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

이 길에 자각적으로 나서며 혁명의 령도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과업이다」(五八페지)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를 위한, 까제트의 영향하에서 농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변절적 자유주의 부르죠아지와의 이 전쟁은 一九〇五—一九〇七년혁명과 一九一七년 二월 혁명의 전기간을 통해서 계속되었다.

쓰딸린 동지는 자기의 고전적 저작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농민이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지의 영향 밑으로부터 빠져나온 것, 농민이 립헌민주당으로부터 떨어져간 것, 농민이 프로레타리아트의 편으로, 볼쉐위끼당의 편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시

기의 력사는 립헌민주당(자유주의 부르죠아지)과 볼쉐위크(프로레타리아트)들과의 농민 전취를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이 투쟁의 운명은 국회(두마)시기가 결정하였다. 왜냐 하면 四회에 걸친 국회의 시기는 농민들에게 실물 교훈으로 되었고 그 교훈은 농민들이 립헌민주당의 손에서는 토지도 자유도 얻지 못한다는 것과 짜리는 전혀 지주들의 편이고 립헌민주당은 짜리를 지지한다는 것과 그리고 원조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도시 로동자들, 즉 프로레타리아트라는 것을 농민들에게 명백히 보여준 때문이다. ……국회 시기의 확연한 교훈이 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로동당 출판사 一九四九년판 제一분책 六九—七〇페지)

× × ×

쓰딸린 동지가 주로 바꾸에서 혁명적 활동을 하던 시기인 一九〇七년 六월부터 기록된 제 저작에는 비합법적, 혁명적, 맑쓰주의적 당을 보존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볼쉐위크들의 멘쉐위끼—청산파들파의 투쟁이 해명되었다.

一九〇五—一九〇七년 혁명 이후, 볼쉐위끼당을 준비하고 창설하기 위한 투쟁은 극히 복잡하고 곤난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에는 당시 암혹한 반동이 승세하였으며 당은 혁명의 만조시에 대응하는 공개 전술로부터 혁명 운동의 침체와 혁명의 퇴조에 의하여 환기되는 퇴각 전술로 이전하게 되였다. 볼쉐위끼 앞에 서 있던 과업은 레닌이 쓴 바와 같이 「가장 질서 정연하게, 그들의 「군대」에 대해서 가장 손실이 적게, 그의 핵심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깊이와 난치(難治)성에 있어서) 가장 분렬이 적게, 가장 적은 해체로써, 가장 광범하고 정당하고 또한 열성적인 사업을 부흥시키는 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레닌 전집 二五권 一七七페지) 퇴각하는 데 있는 것이었다.

이 과업들을 성과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견결성, 인내성, 지속성, 침착성이 요구되었으며 조직의 새로운 형태도 요구되었다. 「이 전환은 힘을 수습하여 짜리즘을 반대하는 공개적 혁명적 투쟁으로 또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투쟁 방법을 정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였다」고 쓰딸린 동지는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十五차 대회에서 진술하였다. 당은 지하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비합법적 사업을 진행하며 동시에 대중과의 견고한 련결을 유지하고 그들을 볼쉐위끼 편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합법적 가능성과 대중적 조직도 리용해야 하는 것이었다. 조직과 투쟁의 합법적 및 비합법적 형식을 결합시키는 능력은 당을 보존하고

그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되었다。

력사는 볼쉐위크들이 다른 정당이나 정치적 그루빠와는 반대로 당황하거나 덤비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퇴각할 수 있었으며 자기들의 대오를 단결시키고 로동 계급의 광범한 대중과 련결을 보존하였으며 새로운 혁명적 앙양이 성숙되었을 때에 적에 대한 공격으로 또다시 나아갔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볼쉐위크들이 이것을 능히 할 수 있은 것은 사전의 행정을 정당히 예견하였으며, 새로운 혁명적 앙양의 력사적 필연성을 예견하였으며, 그 전망에 적응해서 한편으로는 혁명적 비합법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당을 숙청하려고 한 공개적 또는 은연적 청산파들을 반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환파」를 반대하여, 결정적 투쟁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레닌은 소환파를 「퇴각해야 한다는 것, 퇴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가장 반동적인 국회에서와 가장 반동적인 직업동맹, 협동조합, 보험 및 이와 류사한 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리해하려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혁명가들」(레닌 전집 二五권 一七七페지)이라고 특징지었다。

전집 제二권에 들어 있는 쓰딸린 동지의 제저작은 전술적 예술의 가장 풍부한 보물고로 되는 것이며 비합법적 투쟁과 합법적 투쟁을 능숙하게 결합시킨 다양한 형식을 발전시키었으며 볼쉐위끼적 전술의 적들을 간과하고 그것에 승리를 달성해야 한다는 데 대한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一九〇七년 四—五월에 진행된 로씨야 사회 민주로동당 제五차 대회의 총결로 진술된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 론돈 대회(一대표의 수기)」라는 쓰딸린 동지의 저작은 볼쉐위끼 당을 위하고 그의 적을 반대하는 투쟁의 모범으로 되는 탁월한 문헌으로 된다。 대회는 제一차 로씨야 혁명 시기에 있어서의 볼쉐위크들의 정치적 로선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으며, 혁명적 사회 민주당의 전술을 채택하였으며 멘쉐위끼에 대한 볼쉐위끼의 승리를 공고히 하였다。

「혁명적 사회 민주당의 기치 하에 전 로씨야의 선진적 로동자들을 단일한 전 로씨야적 당에 실제적으로 통일시킨 것—이것이 바로 이 론돈 대회가 가지고 있는 의의이며 이것이 바로 이 대회의 일반적 특징이다」(六一페지) 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一대표의 수기」에서 쓰딸린 동지는 멘쉐위즘의 소부르죠아적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였다。 대회 성원을 분석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볼쉐위끼 대표들의 대다수가 특히 대산업 지대로부터 파견되었는

데(페쓰부르그, 모쓰크바, 이와노보, 워즈네센쓰끄, 파탄) 멘쉐위끼 대표들의 대부분은 주로 농업과 수공업 지대로부터 파견되었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볼쉐위끼의 전술은 대산업 프로레타리아트들의 전술이며 계급적 모순이 특히 명확하고 계급 투쟁이 특히 격렬한 그러한 지대의 전술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볼쉐위즘—이것은 진정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술이다。 타면 멘쉐위끼의 전술은 주로 수공업 로동자와 농민적 반(半)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술이며 계급적 모순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계급 투쟁이 은폐되어 있는 지대에 있어서의 전술이라는 것도 또한 그보다 못하지 않게 명백하다。 멘쉐위즘—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 중의 반(半) 부르죠아지적 분자들의 전술이다。

숫자적 자료는 이상과 같이 말하여 주고 있다」(六三페지)

볼쉐위끼적 립장을 옹호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一대표의 수기」에서 멘쉐위크들의 기회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정책에 의존되지 않는 그들의 거부와 까제트와의 타협을 폭로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우리의 혁명에 있어서 짜리 전제 제도를 반대하는 총돌격에로 로씨야의 제혁명 력량을 인도하여 나가는 데에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인도할 능력이 있는 유일 무이한 령도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프로레타리아트이다。 오로지 프로레타리아트만이 자기의 주위에 국내의 혁명적 제요소를 집결시킬 것이며, 오로지 프로레타리아트만이 우리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사회 민주당의 임무는 혁명적 령도자의 역할을 하도록 프로레타리아트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볼쉐위끼 측의 견지의 근본 내용이다。

우리 혁명을 최후까지 수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누가 프로레타리아트의 믿을 만한 동맹자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볼쉐위크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강력하고 다소 간이라도 믿을 만한 유일 무이한 동맹자는 혁명적 농민이라고 대답한다。 변절적인 자유주의 부르죠아지가 아니고 오로지 혁명적 농민만이 농노적 질서의 온갖 제도를 반대하여 프로레타리아트와 일치 협력하여 투쟁할 것이다」(八〇—八一페지)

제一차 로씨야 혁명 시기에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짜리 전제 제도에 대한 승리를 장악하기에는 아직 력량이 부족하였으며 조직성도 부족하였다。 로동 계급은 선진적이며 기본적인 혁명

력량이었다。그러나 그의 대렬에와 당 내에는 필요되는 통일이 아직 없었다。멘쉐위크들은 자기들의 타협 전술로써 특히 대산업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지역에서 아직 로동자의 현저한 부분을 혼란시켰으며 로동 계급의 력량을 분산시켰으며 혁명을 재지시켰다。

一九〇五—一九〇七년 혁명에 있어서 짜리즘을 반대하는 로동자와 농민의 견고한 동맹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였다。농민의 현저한 부분은 짜리 제도를 전복함이 없이는 지주를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직 리해하지 못했으며 국회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두고 있었다。농민들의 이러한 「국회적」환영을 폭로하는 것은 제一차 및 제二차 로씨야 혁명 시기에 달성되었으며 그것은 제二차 로씨야 혁명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의 하나이었다。

로씨야 사회、민주 로동당 론돈 대회에서 프로레타리아트、헤게모니에 대한 볼쉐위크들의 로선이 승리하였다。그리고 이것은 一九〇五—一九〇七년 혁명에서 볼쉐위크들의 전술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미 혁명적 파도의 감퇴가 진행되였다。정치적 파업는 감퇴되여 갔다。혁명적 농민 운동의 규모도 감소되었다。짜리즘의 형편은 국제 반동이 그에게 표시한 후원과 관련해서 강화되었다。제一차 로씨야 혁명은 패배로 끝났다。프로레타리아트의 당에게 전체 로동 계급에게 가장 곤난한 시기인 혁명의 퇴조기가 닥쳐 왔다。

그러나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공수된 볼쉐위크들의 정치 로선、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에 대한 로선은 유일한 정당한 로선이었다。레닌과 쓰딸린의 정신을 따른 이 철저한 혁명적 로선을 볼쉐위끼 당은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교양주었으며、제一차 로씨야 혁명에서 짜리즘에 대한 승리로 그를 인도하였으며、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보장하였다。

「로씨야에서의 부르죠아 혁명이 선두에 내세운 것은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지가 아니라 수백만 농민을 그 주위에 집결시킨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이었다。로씨야의 부르죠아 혁명이 비교적 단기간에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으로 전화하였다는 그 사실도 취중 이것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맹아이며 과도적 단계이었다」(레닌주의의 제문제 로문판 출판사 一九四九년판 제一분책 七二페지)

혁명 투쟁에서 사상적으로、조직적으로 단결되고 단련된 맑쓰주의적 당만이 프로레타리아트를 퇴각시기의 가장 큰 곤난을 지내서 혁명 운동의 새로운 앙양에로、처음에는 짜리즘에 대한、그 후에는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었다。멘쉐위크들、로동 운동에 있어서의 부르죠아지의 이 앞잡이들은 제一차 로씨야 혁명 시기와 그 후 시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당을 약화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였으며 독자적인 계급적 프로레타리아트 당을 청산하는 데로 프로레타리아트의 무장 해제에로 이 일을 진행하였다。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 제五차 대회에서 멘쉐위크들의 일부는 소위 「로동자 대회」라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로씨야에서 맑쓰주의적 당을 청산하는 변절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출하였다。멘쉐위끼의 지도자들은 로씨야에는 마치 「프로레타리아트적 당」이 없으며 다만 소부르죠아적 인테리겐차의 말체만이 있으며 그것은 비당적 로동자 대회의 원조로써 반드시 당과 대체되어야 한다는 데 관한 무례한 언명을 하기까지 하였다。청산파들의 이러한 허위적 발언은 대회에서 뻬쩨르부르그와 모쓰크바 대표인 로동자들 사이에 무한한 격분을 환기하였다。그 로동자들은 로씨야의 로동자에게 자기의 당이 있오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용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멘쉐위크 토론자들의 연설에는 당을 타도하자! 사회 민주주의를 타도하자! 무당 만세! 비사회 민주주의적 「로동자 동맹」만세! 라는 구호들이 일관되고 있었다。

「싼지깔리스트와 에쎄르를 비롯하여 까데트와 十월당원에 이르기까지의 제부르죠아 저술가들—이 모든 자들이 로동자 대회 소집을 그렇듯 열렬히 찬동한 것은 리유없는 일이 아니였다。사실 그들은 우리 당의 원쑤이였고 로동자 대회 소집에 관한 실지 공작은 당을 현저히 약화하며 파괴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九五페지) 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청산파들의 선동 공작을 반대하는 로동자—볼쉐위끄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관해서 말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一대표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볼쉐위크 로동자 대표들은 문제를 곧 깨달고 「당의 옹호에」강력히 나섰다。「우리는 당에 대한 충성자다」—그들은 말하였다—「우리는 자기 당을 애호한다。우리는 기진(氣盡)한 인테리들이 당의 위신을 상실케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九八페지)

당을 위한 투쟁 사상은 쓰딸린 동지의 모든 그 후의 연설과 론문에서 일관되어 있오며、그 속에서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는、새로운 전술이 연구되었으며 당을 건설하고 새로운 조건에서 대중과 당의 련결을 강화하는 방법과 수단을 지적한다。

당시 바꾸에서 공작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자기의 저술을 통해서 또 실제적인 혁명적 활동에서 레닌의 로선을 옹호하는 견결한 투쟁을 수행하였으며, 바꾸의 단체를 레닌의 구호 주위에 단결시켰으며, 로동자 지대 바꾸를 멘쉐위크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바꾸 프로레타리아트를 볼쉐위즘의 기치 밑에 집결시켰으며, 볼쉐위끼적 합법적 및 비합법적 출판물을 지도하였다. (「바꾸 프로레타리아트」 「기적(汽笛)」 「바꾸 로동자」)

쓰딸린 동지는 당시에 제기된 로동자들과 바꾸 원유 산업가들 간의 협의회와 관련한 거대한 투쟁을 지도한 경험으로 반동 조건에서의 볼쉐위끼적 전술의 빛나는 모범과 비합법적 및 합법적 투쟁 형식을 결합시키는 모범을 보였다. 쓰딸린 동지는 이 투쟁에 관해서 다수의 의견을 출판물에 발표하였다. 「협의회를 보이꼬트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보증있는 협의회에 관하여 재론함」, 「원유 산업가들의 전술에 있어서의 전환」,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협의회와 로동자들」 등의 론문은 로동자들을 단결시켰으며 로동자들의 계급적 적들과의 성과적인 투쟁술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쓰똘리삔 반동의 곤난한 시기에 당 단체에는 가혹한 경찰테로가 덤벼들었다. 지방 단체들은 적은 그리고 극히 미소한 그루빠로 분해되었다.

그러나 위대한 혁명적 폭풍 시기(一九〇五——一九〇七년)는 당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의미없이 경과된 것은 아니였다. 당은 대중에 대한 사상적 영향을 쟁취하였으며, 대중은 당을 一九〇五년의 영광스러운 혁명적 투쟁을 지도한 력량으로 인식하였다.

「당의 위기와 우리의 과업」이라는 유명한 론문에서 (一九〇九년 八월) 그 사정을 고려하고 쓰딸린 동지는 위기를 벗어나는 길, 당을 부흥시키는 길을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군중에 대해서 광범한 사상적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들은 또한 당을 알고 있으며, 대중들은 당을 존경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이 점에 있어서 「혁명 후」의 당은 「혁명 전」의 당과 구별되는 것이다」(一八六폐지)

제一차 혁명의 불길 속에서 당 강령, 당의 전술, 실천적 원칙들, 영광스러운 혁명적 전통은 시련을 견디어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그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서로 분리된 조직들 간에는 사상적으로 그들을 련결시키는 다수의 공통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즉 그들 사이에는 혁명의 비판에 견디어낸 하나의 공통한

강령과 혁명이 시인한 공통한 실천적 원칙과 영광스러운 혁명적 전통이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혁명 전」의 당과 「혁명 후」의 당 간의 제二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一八八폐지)

쓰딸린 동지는 이에 있어서 대중에 대한 사상적 영향 하나만으로는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제는 사상적 영향의 넓이가 조직적 결속의 협착성에 부디쳐 깨어진다는 데 있다. 곧 여기에 우리 단체들이 광범한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근원이 있는 것이다」(一八七폐지)

지방 당 단체와 광범한 대중과의 련결을 강화하는 방법을 지적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이것이 우선 주로 로동자 대중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당 단체들이 로동자들의 모든 투쟁 문제에 계통적으로 간섭하고 자본가들과 로동자들 간의 충돌은 어느 하나이라도 그저 지내버리지 말며 일반 정치 선동과 함께 예리한 일상적 필요를 토대로 하는 경제적 선동도 겸해서 진행할 것을 호소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이 점에서 바꾸 당 단체의 정치적 경험에 의거하였다. 바꾸 당 단체는 이 로선을 실시하여 그로 인해서 대중과의 련결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장 곤난한 혁명의 퇴각 조건 하에서 쓰딸린 동지를 선두로 하는 볼쉐위끼 단체에 령도되는 바꾸의 다민족적 프로레타리아트는 반혁명의 습격을 제어하면서 후위적(後衛的) 혁명적 투쟁을 수행하였다. 브·이·레닌이 一九〇八년에 바꾸 로동자들을 「대중적 정치적 파업의 최후의 대표자」라고 부른 것은 의의 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바꾸의 볼쉐위크들이 대중과의 련결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조직들로 하여금 일반 정치 공작과 아울러 이 모든 적은 충돌에 끊임없이 관여하게 하라, 그 충돌을 위대한 계급 투쟁과 련락시키라, 그리고 대중들의 일상적인 항의와 요구에 있어서 그들을 지지함으로써 생생한 사실로써 우리 당의 위대한 원칙을 설명하게 하라」(一九二폐지), 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지방 당 단체들이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서 서로 련결을 갖기 위해서 쓰딸린 동지는 중앙 위원회의 수중에 있는 당과 당 사업 지도를 결합시키기 위한 가장 실제적 무기로 될 수 있을 만한 잘 설비된 전로씨야적 신문을 발간할 것을 제의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나 그 신문이 실지로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오

로부터 질문서, 신청서, 서한, 통신문, 탄원서, 항의문, 사업계획서, 대중을 흥분시키는 제문제 등등이 조직적으로 신문으로 모여들어 와야 하며 신문과 지방 간에는 가장 긴밀한 련락, 가장 튼튼한 련락선이 있어야 하며 신문이 이와 같이 충분한 량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제때에 필요한 문제들을 능히 지적할 수 있고 취급할 수 있으며, 해명할 수 있으며, 그 자료들 중에서 필요한 지시, 구호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전당 전조직들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없이는 당 사업의 지도도 없을 것이며, 당 사업의 지도가 없이는 조직들을 한개의 통일체로 공고히 결합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전로씨야적인 (국외의 신문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지도적인 (단순히 통속적인 것이 아니라)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一九八폐지)

쓰딸린 동지는 이 두가지 과업, 즉 지방 조직과 광범한 대중과의 견고한 련결과 중앙 위원회 주위에 지방 당 조직을 통일하고 단결하는 과업을 해결하는 때에 비로소 ——「당은 위기로부터 건전하고 일신된 당으로 되어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오직 이 조건들을 수행하는 데서만 당은 영웅적인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훌륭한 선봉대의 책임적 역할을 자기의 쌍견에 걸머질 수 있는 것이다」(二〇〇폐지) 라고 지적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청산과 뜨로쯔끼과 및 소환과들과의 타협없는 투쟁에서 당을 강화하는 데 대한 자기의 열렬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쓰딸린 동지가 당 중앙 기관에서 기록한 력사적인 「깝까즈에서 보내는 제서한」에서 「청산과」는 전면적으로 폭로되었다. 찌플리쓰 청산과의 실례에서 쓰딸린 동지는 청산과는 조직적 사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술에 있어서와 강령에 있어서 청산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찌플리쓰 멘쉐위크들의 강령 초안을 분석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강령 부문에 있어서 그의 견해는 「당의 최저 강령의 청산, 우리 강령의 까제트 강령에의 적응을 요구하는 청산」(二四一폐지) 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전술적 청산과에 관해서 말하면 그것은 「깝까즈에서 보내는 제서한」에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져 있다. 즉 「찌플리쓰 멘쉐위크들의 「새로운」 전술은 혁명에 의하여 확인된 당의 전술의 청산, 프로레타리아트를 온화한 까제트적 부르죠아지의 추종자로 전화하기를 요구하는 청산일 따름이라는 점이다」(二四六폐지)

쓰딸린 동지가 기초한 저명한 「「프로레타리」의 확대 편집부 내에 있어서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바꾸 위원회의 결정서」는 「소환주의」와 「최후 통첩주의」를 결정적으로 폭로하였다. 바꾸 위원회는 자기의 결정서에서 대다수가 「소환주의」와 최후 통첩주의를 규탄한 「프로레타리아」 편집부와 단결되었다. 「바꾸 위원회는 편집부 내의 소수의 견지가 당과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레닌 동지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편집부내 다수의 립장에 결정적으로 찬동한다」(二一〇폐지) 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바꾸 위원회의 결정서에서는 「소환주의」를 「합법적 가능성에 대한 특히 국회 연단에 대한 당에 해로운 과소 평가」(二一一폐지)의 결과로써 특징지었다. 그리고 「최후 통첩주의」는 「소환주의」의 악질적 형태로써 특징지었다. 「맑쓰주의 기본에 대한 비과학적인 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에게 해로운 해설」(二一二폐지)로 되는 「창신론(創神論)」도 역시 비난하였다.

「깝까즈에서 보내는 제서한」중 「사회·민주주의자」지 제十一호에 게재된 첫 편지에서 쓰딸린 동지는 뜨로쯔끼주의의 찬동자들을 반대하여 레닌을 결정적으로 옹호하여 나섰다. 편지에서는 「최근 몇달 동안에 조성된 불란서 국내의 비정상적 상태의 숙청」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하였다 ——(불쉐위크들을 반대하는 뜨로쯔끼의 투쟁에서 그에게 협력하는 까메네브, 지노비예브, 리꼬브의 반역적 행위를 고려하였던 것이다.

「깝까즈에서 보내는 제서한」 첫 편지에는 당의 그 후의 과업이 제기되었다. 즉 전당적 대표자회의 소집, 전로씨야적 지도적 당보(黨報) 발간, 및 로씨야에 비합법적 실천적 당 중앙의 창설이다.

쓰딸린 동지의 편지는 레닌을 전적으로 지지한 바꾸 위원회의 결정서에 근거하였다. 청산과, 「소환주의」를 반대하고 뜨로쯔끼의 八월쁠럭과 뜨로쯔끼주의 찬동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완전히 레닌과 단결되면서 쓰딸린 동지는 레닌이 령도하는 불쉐위끼와 쁠레하노브가 령도하는 멘쉐위크—당과 그루빠의 쁠럭을 결정적으로 지지하였다. 「쏠리비체곤스크류형지에서 당 중앙 위원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의견에 의하면 (레닌—쁠레하노브) 쁠럭의 로선은 유일한 옳은 로선입니다. 첫째로 이 로선은 그리고 이 로선만이 모든 진실한 당적 요소들의 단결을 요구하는 로씨야에서의 사업의 실지적 리익에 합치되는 것이며, 둘째로 이 로선은 그리고 이 로선 만이 로동자—멘쉐위크들과 청산과 사이의 간격을 파놓으며, 후자들을 분렬시키며, 타도하면서 청산과들의 질곡(桎梏)으로부터 합법적—

단체들을 해방시키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二六二페지)

쓰딸린 동지는 뜨로쯔끼적 뿔럭을 「부패한 무원칙성」이요, 「각종 원칙의 마닐로브적 합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사물의 론리는 그 성질상 엄격히 원칙적이며 또한 그것은 합금을 인용(認容)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레닌－뿔레하노브 뿔럭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은 심각히 원칙적이며 당을 부활시킬 방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견해의 통일 위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뿔럭인 것이다.

쏠리븨체꼳스크 류형지에서 보내는 서한에서 쓰딸린 동지는 또다시 로씨야에 있어서의 당 사업 조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내 생각에는 조금도 지연시켜서는 안되는 우리의 당면 과업으로서 우선 추요한 중심지(뻬쩨르부르그, 모쓰크바, 우랄 남방)들에서 비합법적, 반합법적(半合法的) 및 합법적 사업을 통일하는 중앙(로씨야) 그루빠를 조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앙 위원회 로씨야 지부」라고 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 위원회 직속의 보조적 그루빠라고 하든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십시오－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루빠는 공기와 같이, 빵과 같이 필요합니다」(二六四－二六五페지)

쓰딸린 동지가 「당의 위기와 우리의 과업」이라는 론문에서 형성한 사상들을 더욱 발전시킨 「갑까즈에서 보내는 제서한」에서와 「쏠리븨체꼳스크 류형지에서 보내는 서한」에서, 또한 一九一○년 一월 二十二일 빠구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서에서 쓰딸린 동지가 제기한 과업들은 로씨야에 있어서 혁명 사업 지도를 위한 실천적 중앙(중앙 위원회 로씨야국)을 창건하고 「쁘라우다」 신문 출판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쁘라그 꼰페렌치야에서 실현되었다. 레닌의 제의에 따라 쓰딸린은 중앙 위원회 로씨야국을 지도하였다.

× × ×

제二권에서 로동 운동에 있어서의 혁명적 앙양기에 관계되는 쓰딸린 동지의 제저작이 들어있는 부분은 력사적인 쁘라그 꼰페렌차야 이후에 집필된 「당을 위하여!」라는 격문으로 시작된다.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이름으로 발간된 이 격문은 레닌에 의하여 집필된 격문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의 선거 강령」과 함께 광범히 전국에 보급되었다.

격문에는 정치 생활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 활기를 띠었다는 것과 쓰똘리삔 반동의 제도와 그의 경제적 및 정치적 결과에 대한 자라나는 불만과 분격으로 표현되는 국가의 정치적 각성이 회

인된다. 격문 「당을 위하여!」와 「五·一절 만세!」에는 당시의 국내 정세가 훌륭히 뚜렷하게 서술되었다. 자본가들의 리윤의 장성, 그것에 병행하는 로동자들의 실질적 임금의 저하, 부르죠아지의 경제적 및 정치적 단체의 자유로운 발전, 그에 병행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비합법적 및 합법적 단체의 강압적 파괴, 지주 수입의 장성, 그에 병행하여 농민 경제의 령락, 二천五백만 이상이나 되는 굶주린 주민들－나라를 빈궁과 퇴폐의 극단에 몰아넣은 쓰똘리삔 반동의 결과는 이러하였다.

「주위를 살펴 보십시오. 다고 다난한 로씨야가 정말로 「갱신되고」「잘 정돈된」 나라처럼 보입니까?

민주주의적 헌법 대신에 교수대와 야수적 전제정체가 있을뿐!

전인민적 국회 대신에 음흉한 지주의 흑백단 국회가 있을뿐!…………

로씨야 국가의 국제적 위신 대신에 근동 및 원동 문제에 있어서의 로씨야 「정책」의 수치스러운 실패, 페루샤의 류혈적 제사건에 있어서의 형리 및 파괴자의 역할이 있을뿐!…………

그리고 마지막 광경으로서 레나 금광에서의 기백명 로동자들의 야수적 학살!……」(二七九－二八○페지)이라고 五·一절 격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호소하였다.

정세는 더욱더 긴장되었으며 로동자들을 반항과 투쟁에로 추동시켰다. 一九一二년 四－五월에 국내에서는 진정한 혁명 운동의 앙양이 시작되었다. 혁명을 매장하던 청산파와 뜨로쯔끼파들의 예언은 완전히 파탄되었다. 새로운 혁명적 앙양의 불가피성에 관한 볼쉐위크들의 예견이 승리하였다. 볼쉐위크들은 「프로레타리아트가 미래의 진출의 통일자이며 령도자이라는 고상한 역할을 훌륭히 실행하기 위하여」(二七○페지) 자기의 대오를 단결시키면서 혁명적 앙양에 마주 나아갔다. 볼쉐위크들에게 령도되는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 만이 짜리 제도가 나라를 어떠한 곤난한 형편에 몰아넣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라를 인도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해명한 「당을 위하여!」라는 격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그 점에 대해서도 호소하였다. 「비극과 타락으로부터 국가를 구원해야 하겠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짜리 제도의 모든 건물을 전복함이 없이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봉건 농노적 제자재와 나운러 짜리 정부를 어떻게 전복하겠는가? 력사에 의하여 시인된 그의 수령인 사회주의적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하여 령도되는 광범한 인민 혁명 운동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전복하겠는가?………」(二七○페지)

「당을 위하여!」라는 격문에는 로씨야를 락후하고 빈궁한 나라로부터 선진적이며 위력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로씨야의 혁명적 개혁에 대한 위대한 파업들이 형성화되어 있다。사회주의적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밑에서 광범한 인민적 혁명 운동의 방법으로 농노 제도의 제잔재와 함께 짜리 제도의 전체 건물을 전복시키는 것이 그 길로 가는 제일보로 되어야 하였던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지적하기를 프로레타리아트가 혁명에서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는 광범한 인민층의 혁명적 의식과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자각 이외에 지방 단체들의 개별적 노력을 한개의 공통적 노력에 능히 통일시키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원쑤들의 중요 지점으로 대중적 혁명 운동을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하며 민첩한 프로레타리아트 당의 존재가 또한 필요하다」(二七〇페지)고 하였다。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실현할 수 있고 프로레타리아트를 정권을 위한 투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하고 융통성있는 프로레타리아트 당의 창건은 새로운 형태의 당, 레닌주의의 당, 볼쉐위끼 당의 시초를 이룩한 쁘라그 꼰페렌치야에서 형성되었다。

쓰딸린 동지에 의하여 령도되는 중앙 위원회 로씨야 국은 쁘라그 꼰페렌치야 이후 지방 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집결하고 지방 당 단체들 상호 간의 련결을 맺고 그들을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집결하며 가내 공업과 비조직적 분산을 숙청하는데 대한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쓰딸린 동지가 집필한 격문 「당을 위하여!」의 발행은 레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당, 볼쉐위끼 당을 훈련하고 단결하는 사업에서 탁월한 역할을 놀았다。

쓰딸린 동지에 의하여 설정된 당 조직을 강화하고 대중에 대한 영향을 쟁취하는 제과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볼쉐위끼적 신문 「쁘라우다」는 위력있는 무기로 되었다。

一九一二년 四월 二十二일부 「쁘라우다」지에 게재된 「우리의 목적」이라는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통일될 것과 로동 운동의 적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프로레타리아트에게 호소하였으며 통일적 계급적 조직으로 단결될 것을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바로 그날에—一九一二년 四월 二十二일—쓰딸린 동지는 체포되었으며 수개월간 감옥에 갇히운 후 나림쓰끼 변강으로 三년의 류형을 당했다。그는 얼마되지 않아 그곳으로부터 탈출하였다。一九一二년 九월 十一일 뻬제르부르그에 도착한 후 쓰딸린 동지는 제四차 국회 선거 깜빠니야에서 볼쉐위크들의 투쟁을 지도하였다。쓰딸린 동지는 또다시 체포되기 전에 선거 깜빠니야에 관련된 일련의 론문을 발표하였다。「무소속 바보들」、「그들은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결론」등의 론문에서 쓰딸린 동지는 인민의 눈 앞에서 신용을 잃은 부르죠아의 당이 선거자들을 기만할 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무소속적 사기」를 반대해서 특별히 로동자들을 경계하면서 로동자들 앞에 그들의 계급적 원쑤들을 폭로하였다。당이 승리하게 된 선거 깜빠니야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논 것은 쓰딸린 동지가 기록한 「뻬제르부르그 로동자들이 자기의 로동자 대의원들에게 주는 위탁서」이었다。

새로운 혁명적 앙양기에 있어서 당의 전투적 정강으로 된 이 력사적 문헌에는 새로운 승리적 혁명의 전망이 지적되었으며 인민 운동의 령도자로서의 로동 계급의 역할이 지적되었다。「위탁서」는 로동자들을 혁명적 투쟁에로 호소하였다。

「〇五년의 운동이 제기했던 로씨야 인민의 요구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었다。……(四一四페지) 로씨야의 경제 생활 상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닥쳐오는 산업 공황의 제 정후와 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광범한 농민층의 빈궁화는 〇五년 과업 해결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한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씨야가 〇五년 보다도 닥쳐올 아마도 더 심각한 대중 운동의 전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이에 관해서는 「설명」을 반대하는 레나의 진출과 파업, 항의 등등이 증명하여 준다。

이 운동의 발기자로서는 〇五년에서와 같이 로씨야 사회의 가장 선진적 계급인 로씨야 프로레타리아가 될 것이다。

그의 동맹자로는 로씨야의 해방에 혈연적 리해관계를 가진 오직 다고 다난한 농민층 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전선에 대한 투쟁 즉 봉전—관료주의 제도와의 투쟁과 낡은 주권과의 동맹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지들과의 투쟁—바로 이것이 인민이 미래의 진출에 있어서 반드시 취하여야 할 형식일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로동 계급이 인민 운동의 선두에 서서 진출하면 할수록 더욱 승리할 것이다」(三一五페지)—「위탁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위탁서」에는 로동자 대의원들의 정치 로선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국회 연단을 혁명적 투쟁에 리롭게 리용할 그들의 과업과 의무가 형성되어 있었다。「우리는 국회의 높은 연단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의 최후 목적에 관하여 완전하고 삭감(削

減) 없는 ○五년의 제요구에 관하여, 인민 운동의 수령인으로써야 로동 계급에 관하여, 로동계급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자인 농민에 관하여, 「인민적 자유」의 변절자인 자유주의 부르죠아에 관하여, 사회민주주의 푸락치야 성원들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올 것을 요망한다」(三一六페지) 고 「위탁서」에는 말하고 있다.

레닌은 「뻬쩨르부르그 로동자들이 자기의 로동자 대의원들에게 주는 위탁서」에 특별히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사회 민주주의자」지에 게재하기 위하여서 인쇄소로 발송하면서 레닌은 란외(欄外)에 다음과 같이 썼다. 즉 「즉시 돌려 보낼 것!! 더럽히지 말 것, 이 문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존할 것」. 레닌은 「즉시 뻬쩨르부르그 대의원에게 보내는 이 위탁서를 잘 보이는 장소에 큰 활자로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로동자들은 대다수가 「위탁서」에 찬성 투표하였다.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결정서에서 「위탁서」의 혁명적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였다.

제四차 국회 선거 후 쓰딸린 동지는 국회 푸락치야의 볼쉐위끼적 부분을 지도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의 련결은 이 시기에 더욱더 강화되었다. 一九一二년 十一월과 十二월말에 쓰딸린 동지는 두번 끄라꼬브로 레닌을 찾아갔다.

× × ×

쓰딸린 동지의 저작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는 창조적 맑쓰주의의 탁월한 모범이다. 이 로작의 리론적 및 정치적 의의는 특히 위대한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이 저작에서 민족 문제에 대한 볼쉐위끼적 리론과 강령을 전개시키었다.

민족 문제는 허다한 부르죠아 및 사회-기회주의적 문필가와 정객들을 여러가지 방면으로 혼란시켰던 것이다.

자기의 로작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에서 쓰딸린 동지는 맑쓰주의에 적대되는 민족주의적 리론과 강령에 철저한 비판을 주었으며, 민족과 민족 문제의 정연한 과학적 리론을 창조하였다.

쓰딸린 동지의 저작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에서 전개된 리론적 명제는 민족 문제와 식민지 문제가 자본의 정권으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명제를 확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의 의의를 가진다.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는 민족 문제에 대한 볼쉐위끼 당의 정책의 토대로 놓여 있다. 쓰딸린 동지가 자기의 저작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에서 전개한 그 리론적 및 강령적 명제의 빛으로 부단히 쏘련 제민족의 친선을 강화하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민족적 식민지적 억압을 반대하여 피압박 민족들의 권리 옹호에 진출하고 있는 볼쉐위끼 당은 현금에도 자기의 길을 밝히고 있다.

쓰딸린 동지의 저서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는 이와 동시에 과학에 있어서나 인식에 있어서 맑쓰주의적 변증법의 힘이 위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상의 진리도 위대하다는 것을 특별히 여실하게 표시하는 맑쓰주의적 변증법의 창조적 적용의 모범으로 된다. 「만일 문제의 변증법적 제기가 어느 곳에서 필요한가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곳에, 즉 민족 문제에 필요한 것이다」(三九八페지) 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쓰딸린 동지가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제十六차 중앙 위원회 정치 총결에 지적한 바와 같이 맑쓰적 변증법의 생활상 진리는 「볼쉐위크들에게 민족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난공 불락의 요새를 점령할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민족 문제 연구에 변증법을 능숙하게 적용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레닌주의의 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가장 예리한 무기를 단련하였으며, 가장 곤난한 문제에 대하여 명료하고 정확한 대답을 주었다.

민족 리론과 민족 문제는 우리 당의 다른 모든 리론 및 정책 문제와 같이 쓰딸린 동지가 레닌과 가장 긴밀한 우의적 관계에서 작성하였다. 레닌은 쓰딸린 동지에 의한 민족 문제 연구에 절실한 관심을 표시하였다.

레닌은 쓰딸린 동지의 저작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의 심원한 리론적 및 강령적 의의를 여러번 지적하였다. 레닌은 쓰딸린 동지의 저작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최근 세상에 나온 사회 민주주의의 민족적 강령의 기본에 대한 리론적 맑쓰주의적 문헌에서(여기서 제일 첫째로 쓰딸린의 론문이 진출한다)」(전집 十七권 一一六페지) 론문을 토의하여야 하겠다고 전의하는 것을 알자 레닌은 이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반대하였다. 「물론 우리는 절대로 반대한다. 론문은 참 좋다. 문제는 투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드파(派)적 악한들에 대하여 원칙적 립장을 조금치도 양보하지 못하겠다」(五二○페지) 이·브·쓰딸린이 체포된 직후 一九一三년 三월에 레닌은 「사회 민주주의자」지 편집부에 다음과 같이 써 보냈다. 「……중대한 체포가 있었다. 꼬바가 붙잡히었다. ……꼬바는 민족 문제에 관한 큰 론문(「계몽(啓蒙)」의 三호에 게재하기 위하여)을 썼다. 좋다! 진리를 위하여 분드나 청산과 가운데 있는 분리주의자와 기회주의자를 반대하여 싸워야 하겠다」(五二○페지)

쓰딸린 동지는 자기의 론문 「맑쓰주의와 민족문제」를 一九一二년 말과 一九一三년 초에 웨나에서 썼다。이 저작은 쓰딸린 동지의 모든 기타의 연설과 같이 전투적이며, 절실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었다。쓰딸린 동지는 레닌이 강조한 바와 같이 민족 문제가 그 시기에 「반혁명의 모든 정책에서나, 부르죠아지의 계급적 자각에서나, 프로레타리아트적 로써야 사회 민주당에 있어서」(전집 十七권 一一六페지) 현저한 자리에서 제기된 것을 고려하고 이 저작에 착수하였다。

그 시기에 박두한 민족주의의 과도는 로동자 대중을 사로잡을 위험성이 있었다。사회 민주당 앞에는 민족주의에게 반격을 가하고 그에게 계급 투쟁의 통일성과 무분리성을 대치할 과업이 나섰다。「그러므로 민족주의의 과도가 힘있게 일어날수록 로씨야에 있는 모든 민족의 프로레타리아들의 형제적 친목과 통일을 부르짖는 사회 민주당의 목소리가 반드시 한층 더 우렁차게 울리어야 할 것이었다。여기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운동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변강의 사회 민주주의자들에게는 특별한 견결성이 요구되었었다」(三六九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쓰딸린 동지의 저작에서는 「민족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의 필수적 조항으로서 로동자들의 국제적 결속의 원칙」(三六七페지)의 리론적 론증과 강령적 표현도 찾을 수 있었다。

자기의 저작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에서 쓰딸린 동지는 민족의 고전적인 정의를 주었으며, 민족의 발생과 민족 운동의 력사적 근거를 밝히었으며, 민족 문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변증법적이며, 구체적—력사적인 취급 방법의 필요성을 확증하였으며, 오스트리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민족적 강령에 철저한 비판을 가하였으며, 분드와 분드의 뒤를 따르는 깝까즈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민족주의와 분리주의를 폭로하였으며, 로씨야에 있어서의 민족 문제가 전면적으로 론증되고 유일하게 정당한 해결을 내리었다。

쓰딸린 동지에 의하여 규정된 민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민족이란 언어, 령토, 경제 생활과 문화의 공통성 가운데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의 공통성의 기초 위에서 발생한 력사적으로 구축된 공고한 사람들의 공통성이다」(三七五페지)。이 민족의 정의는 력사적 현실과 그의 발전 법칙을 반영하는 유일한 과학적인 정의이다。이 정의는 민족의 특징을 총체로 포함한다。

「상기 제특징 중의 어느 하나든지 따로 떼어볼 때 그것만으로는 민족의 정의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뿐만 아니라 이 제

특징 중에 비록 하나라도 결여한다면 민족이 민족으로 되지 못하기에 족한 것이다……

모든 특징이 구비되어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그것을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三七六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자기의 고전적인 민족의 정의를 내리면서 썼다。

민족의 쓰딸린적 정의는 민족주의를 반대함과 더불어 민족적 허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불쉐위크들을 무장시키였다。

민족주의는 항상 과학과 아무런 공통성이 없고 사상가나 선전자들이 인종론과 배타주의를 그위에서 조작하는, 때로는 완전히 의식적인 기만으로 되는 그러한 민족의 정의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출발하고 있다。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을 어떠한 영원하고 불멸한 천연적 범주(範疇)로써 또는 신비한 「민족적 정신」의 보지자로서 상상하려고 시도한다。민족주의자들은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에 대해서 「높은 것」이 「낮은 것」에 대하듯이 마치 천연적으로 또는 세계 정신으로 세계에서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도록 강조되고 예정된 민족으로써 대치한다。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심리와 자기들의 가치와 명예, 자기 문화의 위대성을 자각하면서 그러나 다른 인민의 권리, 가치 및 명예와 그들의 문화적 달성을 존중하는 정당한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인민의 정당한 민족적 긍지의 감정을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무엇이나 미워하고 멸시하며 다른 인민에 대해서는 마치 자연이나 또는 신(神)이 「저급한」형편에 있을 것을 판정이나 해 놓은 듯이 적의와 천시를 설교하는 배타주의자들의 오만이나 자만과 호돈해서는 안된다。

쓰딸린 동지가 규정한 민족의 유일한 과학적 정의는 민족주의자들과 배타주의자들의 이 모든 날조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쓰딸린 동지는 지적하기를 「민족——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공통성, 즉 사람들의 일정한 공통성이다。이 공통성은 인종적 공통성도 아니요, 종족적 공통성도 아니다。

현재의 이태리 민족은 로마족, 게르만족, 에트루리아족, 희랍족, 아라비아족 및 기타의 족(族)으로써 형성되었다。불란서 민족은 갈족, 로마족, 브릿트족, 게르만족 및 기타로써 형성되였다。각이한 인종과 종족으로써 형성된 민족인 영국인, 독일인 및 기타의 민족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와 같이 말하여야 할 것이다」(三七〇—三七一페지)라고 하였다。

민족이라는 것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통성이라는 것을 쓰딸린 동지는 교시한다。「맑

쓰주의와 민족 문제」라는 자기의 저작에서 쓰딸린 동지는 「민족은 단순히 력사적 범주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대, 즉 대두하는 자본주의 시대의 력사적 범주인 것이다。 봉건주의가 청산되고 자본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은 동시에 사람들이 민족으로 형성되는 과정인 것이다。 례컨대 서구라파에서의 사태가 이와 같은 것이다。 영국인, 불란서인, 독일인, 이태리인 및 기타는 봉건주의적 분산성을 정복하는 자본주의가 승리적으로 행진하는 도정에서 민족으로 형성된 것」(三八四폐지)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표시하면서 민족 발생의 과학적 리론을 주었다。 쓰딸린 동지는 민족의 실제적인 기원을 천명하여 민족주의적 인종적 리론에 강력한 타격을 주었으며 유심론자들의 신비적 및 자기 만족적 「민족 정신」의 리론에 타격을 주었다。

「민족들은 그들의 생활 조건에 따라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민족 문화의 특성에 표현되는 정신적 풍모에 따라서도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물론 심리적 상태 자체나 혹은 그것의 별칭인 「민족성」 자체는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포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민족에게 공통한 문화의 특성에 표현되는 것 만큼 그것은 포착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민족성」이란 것은 어떤 영원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요, 생활 조건과 함께 변화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개개의 소여의 시기에 존재하여 있는 만큼 그것은 민족의 형모에 자기의 인을 찍어 주는 것이다」(三七四—三七五폐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교시한다。

민족을 「운명의 공통성을 기초로 한 성격의 공통성에 의하여 련결된 사람들의 총체」이라고 규정하고 「민족성」을 민족의 생활 조건에서 분리시키는 바우에루를 반박하여 쓰딸린 동지는 「그런데 민족성이란 것은 생활 조건들의 반영이 아니고 무엇이며, 주위 환경에서 받은 인상의 응결물(凝結物)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족성을 론할 때에 그 민족성을 낳은 지반으로부터 그것을 고립시키며, 또한 분리시키면서 어찌 그 민족성 하나만에 국한될 수 있는가?」(三八〇폐지)라고 썼다。

쓰딸린 동지의 이 명제들은 위대한 로씨야 인민의 력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증된다。 사실로 국내 및 국외의 적들과의 장구한 투쟁의 력사적 과정에서 로씨야 인민의 훌륭한 제특성, 즉 그의 명철한 지혜, 견고한 성격, 인내성과 지속성, 견결성, 용감성과 영웅성 등이 배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우수한 제특성은 결코 어떠한 자연의 선물이 아니며 그것이 신비한 민족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장구한 인민의 영웅적 력사를 통해서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 그의 특성과 그의 발생 조건의 쓰딸린적 규정은 반동적이고 괴상한 과학, 자연주의적 유심론적 민족 리론에 의거하려고 시도하는 민족주의의 기초를 전복시켰다。

이와 동시에 민족에 관한 쓰딸린 동지의 학설은 민족적 허무주의를 반대하고 국제주의의 탈을 쓰고서 사실에 있어서는 민족적 리익, 민족적 력사와 문화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데로 인도하는 일이 자주 있는 민족적 특성과 전통에 대한 멸시적 태도를 반대해서 우리를 무장시킨다。

쓰딸린은 교시하기를 「민족이란 것은 우연한 또는 단명(短命)한 잡동산이가 아니고 사람들의 공고한 공통성」(三七一폐지)이라고 하였다。 물론 민족이란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온갖 력사적 현상과 같이 변화의 법칙에 따르며 자체의 력사, 시초와 종말이 있는 것이다」(三七五—三七六폐지)。 쓰딸린 동지는 민족으로 영원히 분리된 미래의 사회를 사상하는 바우에루를 결정적으로 반박하였다。

맑쓰주의는 사회주의가 전 세계에서 승리한 때에는 민족 문화를 한개의 공통된 문화로 결합하기 위한 조건이 조성되리라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불쉐위크들의 이러한 전망의 인식으로부터는 결코 민족 운동에 대해서, 민족 문화의 운명에 대해서, 종족의 언어와 생활 풍습 문제에 대해서, 민족적 전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민족 문제는 레닌주의 리론에 있어서 현저한 자리를 차지한다。 레닌과 쓰딸린은 민족 문제의 맑쓰주의적 리론을 창건하였으며 각양한 력사적 조건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조건에서나 프로레타리아—사회주의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의 민족 정책의 토대를 작성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에서 민족 운동의 근원을 밝혔으며, 그 특성과 형식을 분석하였으며, 민족 문제 부문에서 불쉐위즘의 정책을 창시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민족 운동의 최초의 무대로 된 것은 동부 구라파이었으며 그곳에서는 례컨대 오지리—항가리와 로씨야에서는 중앙 정권화된 국가의 출현 과정이 사람들을 민족으로 형성하는 과정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개의 더욱 발전된 민족을 선두로 하는 몇개의 종족으로 형성된 국가, 즉 다민족 국가가 형성되었다。

이 국가들에서는 민족 간의 투쟁이 발전되었다。 「투쟁은 전 민족과 전 민족과의 사이에 시작되

어서 격화된 것이 아니라 지휘하는 민족의 지배 계급과 뒤로 밀리우는 민족의 지배 계급들과의 사이에 시작되어 격화되었던 것이다」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이 투쟁의 원천으로 되는 것은 시장 경쟁이다。그 때에 지배적인 민족의 부르죠아지에게는 억압으로 이전되는 다수의 제한적 방법의 수단으로「이민족(異民族)」부르죠아지를「보다 속히」또는「보다 결정적으로」정복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그 수단은 이동 자유의 제한, 언어의 압박, 선거권의 제한, 학교수의 축소, 종교상의 압박 등이다。이러한 억압들은 사실로 로동자 근로자들에게 더욱 심하게 넘겨 씌워졌다。대로는 부르죠아지가 민족 운동에 프로레타리아트를 끌어넣는데 성공한 때도 있었다。그 때에는 민족 투쟁이 외관상「전인민적」성격을 띠었다。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그것은 부르죠아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프로레타리아트는 민족 압박 정책에 반대하여 투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 것이다」(三九一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왜냐 하면 이 탄압 정책은 종족 민족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자유로운 정신력 발전 사업을 제어하며 광범한 계층의 주의를 사회의 제 문제, 계급 투쟁의 제문제로부터 떠나게 하고「리해 관계의 합치」라는 허위적 설교를 위한 유리한 지반을 만들기 때문이다。탄압 정책은 압박「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을 살륙하며 강탈하는「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드물지 않는 것이다。볼쉐위크들은 가장 사소한 것으로부터 가장 란포한 데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민족 탄압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보았다。

「민족 운동의 종국적 쇠멸은 오직 부르죠아지가 쇠멸되는 때에라야만 가능한 것이다。다만 사회주의의 천하에서만 완전한 평화가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민족 간의 투쟁을 최소 한도에 이르게 하며, 그 투쟁의 근원을 파멸하며,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하여 이 투쟁이 최대 한도로 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것」(三九五페지)이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쓰딸린 동지의 저작「맑쓰주의와 민족 문제」에서 심오한 변증법적 설정이 이루어진 분리권도 포함한 민족 자결권이라는 볼쉐위끼의 구호는 이 목적에 바쳐진 것이다。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자유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민족은 물론 다른 민족들의 권리를 유린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처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이것은 론쟁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민족의 대다수의 리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을 고려한다면 민족은 실로 어떻게 살림을 차려야 할 것이며 그들의 장래 헌법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三九六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이 문제에 대답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이 모든 것는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에 의존된다는 명제를 창시하였다。그것은 조건이 일상적으로 변화되며 동일한 민족에 있어서도 한 시기에 정당한 결정은 다른 시기에 있어서,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은 자치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그들은 분리할 권리까지도 있다。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든지 민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든가, 자치나 혹은 분리가 어데서든지 또는 언제든지 민족에게, 다시 말하면 그의 대다수, 즉 근로자 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三九六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민족 문제 결정에 있어서, 구체적―력사적 취급 방법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쓰딸린 동지는 오지리 사회민주당의 민족적「강령」을 채용해온 분드파와 기타 민족주의자 및 분리주의자들이 제의한 민족 문제 해결의 방법들에 철저한 비판을 내리었다。

쓰딸린 동지는 만일 비록 오지리 사회민주당 강령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그것은 로씨야의 특수한 력사적 조건으로 인해서 로씨야로 옮겨올 수는 없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문제의 제기가 각각 다른 것이며, 전망과 투쟁 방법이 각각 다른 것이며, 당면 임무가 각각 다른 것이다。사태가 이러한데 오지리에서 본받아서 강령을 채용해 오는 것을 일삼는 것이 오직 공간과 시간을 떠나서 민족 문제를「해결하는」지상(紙上) 활동의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가?

또다시 말하거니와 구체적 력사적 조건이 출발점이며 문제의 변증법적 제기가 유일하게 옳은 제기이다。이와 같은 것이 곧 민족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다」(四〇五—四〇六페지)라고 쓰딸린 동지는 썼다。

민족 문제 해결에 맑쓰주의를 훌륭히 적용한 것은 비단 구체적―력사적 취급 방법의 적용에서뿐만 아니라 계급적 견지, 계급 투쟁의 견지의 적용에서도 표현되었다。진실로 쓰딸린 동지는 이 립장에서 오지리 사회 민주당이 조작하고 그의 뒤를 따라 로씨야의 민족주의자들과 분리주의자들이 달려들은 문화적―민족 자치라는 구호의 반동성을 폭로하였다。쓰딸린 동지는 문화적―민족 자치는 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를 부르죠아지의 정신적 지배에 불가피적으로 족속시키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진지를 약화하며 그의 무장 해제에로 계급 투쟁이 첨예화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계급들의 투쟁이 극히 격렬하게 첨예화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계급 일치의 민족 동맹을 조직하고 있는 사회 민주주의자들이야 무슨 사회 민주

주의자들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오지리 사회민주당에서와 같이 —— 프로레타리아트를 조직한다는 하나의 임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임무는 아마 「낡아버린」 모양이다. 지금에 와서 스쁘렌게르와 바우에루는 일층 흥미있는 「새」 임무를 세웠다. 그것은 민족을 「창설하는 것」, 「조직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론리상으로 보면 민족 자치를 접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새」 임무도 접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새」 임무를 접수한다는 것은 곧 계급적 립장에서 물러선다는 것, 민족주의의 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쁘렌게르와 바우에루의 문화적—민족 자치란 것은 교묘한 형태의 민족주의인 것이다」 (四一七페지)

문화적—민족 자치의 사상은 사실로 민족을 고립시키고 로동 운동의 통일을 분렬시키기 위한 지반을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해를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통일된 로동자 당을 개별적이며 민족별로 구성된 당으로 분리하는 데로 인도하였으며 통일된 계급 운동을 개별적인 민족적 세류 (細流) 로 분리하는 데로 인도하였다.

사실 로동자의 리익을 배반하는 그러한 정책을 분드는 로씨야에서 실현하였으며 그는 여러 민족의 로동자들의 분립과 한계 설정을 싸움하는 데와 파업을 파괴하는 데 이르기까지 갈라 놓았다.

문화적—민족 자치의 구호의 반동성을 폭로하고 투쟁하는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해서 그것의 해로운 의의를 표시하고서 쓰딸린 동지는 조건 장소 및 시기의 전면적인 고려에 기초한 민족 문제의 확호한 해결을 하였다.

이 문제의 설정과 해결에서 쓰딸린 동지는 박두하는 혁명적 앙양의 예견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에 적응해서 국가의 완전한 민주화는 민족 문제 해결의 기초로 되며,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민족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필수적 조항으로 되는 것은 자결권, 지방 자치, 모든 형태의 민족적 동등권 (언어 학교 등등), 로동자들의 국제적 결속의 원칙이라고 하였다

× × ×

쓰딸린 동지의 천재적 저서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三十여년 전에 쓴 것이다. 이 저서에서 민족 문제에 대한 볼쉐위끼적 리론과 강령이 발전되고 확증되었다. 볼쉐위크들은 제一차 세계 대전 전야에 벌써 쓰딸린 동지의 저작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와 레닌의 제론문 「민족 자결권에 대하여」 및 「민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각서」에 서술된 민족 문제에 대한 맑쓰주의적 강령으로 무장된 유일한 당이었다. 로동 계급에게 민족주의의 파도가 닥쳐오고 멘쉐위크들과 청산파들이 민족주의의 고질에 형형 색색으로 굴

복하였으며 악명 높은 「문화적—민족 자치」와 같은 교묘한 민족주의적 구호를 제출하면서 로동 계급의 대렬을 분렬시키던 제一차 세계 대전 전야의 정세에 있어서 —— 레닌과 쓰딸린의 령도를 받는 볼쉐위크들은 부르죠아적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전술에 대해서 시련된 국제주의의 무기, 민주주의적 자유와 사회주의를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의 통일과 단결성을 대치시켰던 것이다.

내적 및 외적 정세를 분석하면서 쓰딸린 동지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의 장성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성숙하여 가는 제국주의 전쟁의 전망과 발칸에서의 (一九一二——一九一三년) 전쟁이 그 서막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민족 해방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쓰딸린은 「구라파에 있어서는 자본이 협착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는 새 시장, 저렴한 로동력, 새로운 투자지를 찾으면서 남의 나라들에 덤벼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대외적 분규와 전쟁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칸 전쟁 (제一차 발칸 전쟁은 불가리야, 쎄르비야, 희랍 및 체르노고리야를 일방으로 하고 토이기를 타방으로 하여 一九一二년 十월에 개시되었다 —— 편집부 주) 이 그 분규의 끝이요, 시초가 아니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로씨야에는 이 민족이나 혹은 저 민족이 자체 독립에 대한 문제를 세우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내부 정세 및 외부 정세의 배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장애물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맑쓰주의자의 할 일이 아닌 것이다」 (四五九페지) 라고 썼다.

제국주의는 민족 문제를 자본주의 상승기에 그러하였던 것과 같은 국내 문제로부터 국가 상호간의 문제로 —— 불완전한 권리를 가진 민족들을 지배하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에 관한 문제로 변화시켰다. 제一차 세계 대전은 식민지의 피압박 인민들이 세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하는 데로 인도하였다. 이것은 민족 문제에 더욱 더 중대하는 의의와 거대한 첨예성을 부여하였다.

위대한 十월 사회주의 혁명은 민족 문제에 대한 볼쉐위끼적 강령을 실현하였으며, 민족적 압박의 철쇄를 타파하였으며, 낡은 민족적 정의를 파멸해 버리었으며, 인민들의 협조와 친선을 위한, 다민족 사회주의 국가의 창건과 강화를 위한 지반을 닦아 놓았다.

국제주의의 시련된 사상적 무기로 무장된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는 민족 문제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정책을 실천하면서 이미 혁명 첫 시기에 자기의 타민족 형제들의, 로씨야 제민족들의 신망을 쟁취하였다. 이 신망이 없이는, 이전에 짜리제도에게 압박받던 로씨야 제민족의 지지가 없이는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는 백위군 장령들과 간

섭자들을 격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민 전쟁과 간섭 시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 인민들 간의 협조는 군사적 동맹의 형태를 취하였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전쟁에서 파괴된 생산력을 복구하고 사회주의적 토대 위에서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시기에 있어서 군사적 동맹은 경제적인 동맹으로 보충되였다.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으로의 민족 공화국들의 합동은 자유롭고 평등권있는 민족들이 통일된 다민족 쏘베트 국가로 군사적 경제적 및 정치적인 합동의 형태를 취한 민족들의 협조가 발전한 결과이었다.

사회주의의 기초 위에서 또한 쏘딸린 동지의 고전적 저작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에서 일찌기 형성되였으며 그 후의 민족 문제에 대한 쏘딸린 동지의 연설들에서 백방으로 발전된 인민들의 평등과 협조라는 맑쓰주의적 민족 정책 원칙의 기초 위에서 창건된 다민족 쏘베트 국가는 모든 시련을 견디어 냈으며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국가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독일 파시즘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쏘련 인민들의 형제적 협조와 확고한 친선은 일층 공고히 되고 단련되었으며 쏘련 인민들을 우리 나라가 어느때에 수행해야만 하였던 전쟁보다도 가장 곤난한 전쟁에서 정복못할 인민들로 만들었다.

우리 나라에서 확인된 위대한 레닌—쏘딸린적인 전취 인종 및 민족 평등의 사상, 인민들의 친선 사상은 야수적 민족주의 사상과 독일 파시스트들의 인간 증오—적 「인종론」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장악하였다.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자기의 정치적 연설에서 쏘딸린 동지는 제二차 세계 대전을 총결하면서 「쏘베트 국가 제도는 다민족 국가의 모범이었으며 쏘베트 국가 제도가 어떠한 다른 다민족 국가에서보다도 더욱 훌륭하게 민족 문제와 제민족 간의 협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국가 조직 체계이라는 것」(제二차 세계대전 후 쏘딸린 연설, 회담, 문답집 로동당 출판사판 九페지)을 지적하였다.

허틀러 도배들에 의하여 발단된 제二차 세계 대전 행정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민족 해방 운동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가장 현저한 발전을 하였으며 그곳에서는 인민들의 평등을 인정하고 민족적 화평을 강화하고 형제적 상호 방조와 인민들의 친선을 기초로 한 민족들간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발전되였다.

반동적 제국주의적 도당들은 또다시 새로이 인간 증오적 「인종론」, 한 인종의 다른 인종에 대한 지배, 마치 세계를 지배할 사명이나 있는 듯이 일개 국가나 두 나라가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는 리론을 자기들의 기치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인민들은 제二차 세계 대전의 교훈을 잘 기억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가장 속에 숨어 있다 하여도 「인종론」의 새로운 예언에 대한, 새로운 전쟁 방화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그들의 조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쏘딸린 동지의 저서 「맑쓰주의와 민족 문제」는 민족 문제의 리해와 쏘베트 다민족 국가의 력량과 위력의 원천을 리해하기 위한 리론적 지침으로 되며 인민들의 평등과 친선의 위대한 이데올로기를 보다 훌륭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현대의 민족주의적 인종론적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장시킨다.

전집 제一권에 수록된 이·브·쏘딸린의 저작들은 지방 당 단체들이 사업에 대한 「실망과 불신임의 바다」로 둘려 싸여 있던 가장 곤난하던 불리한 시기에서도 레닌과 쏘딸린의 령도 밑에서 볼쉐위크들은 자기의 당 대오를 규률있고 견결하고 씩씩하게 보존하였으며, 선진적 로동자들을 혁명의 승리에로 고무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의 위대한 제원칙을 로동 계급의 일상적인 투쟁과 련결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볼쉐위크들은 혁명운동의 앙양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혁명의 림시적 실패의 곤난한 시련의 시기에서도 가장 위대한 용감성을 표시한 진정한 혁명가들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볼쉐위크들이 로동 계급의 광범한 대중과 련결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볼쉐위끼 당은 새로운 혁명적 앙양기에 로동계급을 령도하였던 것이다. 레닌—쏘딸린 당의 령도 밑에서 一九一七년 二월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가 실현되였으며 그 후 승리적인 위대한 十월 사회주의 혁명이 실현되였다.

로동 계급의 대중, 근로자의 대중을 사상성의 정신으로, 레닌—쏘딸린 당의 고유한 자기 사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의 정신으로 교양주는 수완이 나라를 사회주의 승리에로 인도하는데서 우리 당을 도와주었으며, 전쟁 시기에는 쏘베트 인민을 독일 파시즘에 대한 전세계사적 승리로 고무하고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용감한 정신, 자기 사업에 대한 신념,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이것은 당 력사의 전기간을 통해서 볼쉐위크들에게 소유되었으며 레닌—쏘딸린 당에 의하여 인민 속에 교양된 쏘베트 사람들의 위대한 품성이며 우리의 공산주의에로의 성과적 전진의 조건의 하나로 된다.

이·브·쏘딸린 전집 제二권에 수록된 제저작은 볼쉐위끼 당의 정치적 및 조직적 준비에서의 앞으로의 일보 전진이었으며 그의 리론적 및 전술적 기본 작성에 새로운 기여를 하였다. 쏘딸린 동지의 제저작의 연구는 당 간부들과 전체 쏘베트 인테리겐챠에게 레닌—쏘딸린적 사상의 극복할 수 없는 력량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레닌—쏘딸린 당의 가장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정통하고 우리의 위대한 사업의 력사적 불패성을 더욱 깊이 리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볼쉐위끼」지 一九四六년 十六호에서 강필주 역)

로씨야에로의 맑쓰주의 사상 보급

브·아·차긴

로씨야에로의 맑쓰주의 사상이 보급된 것은 벌써 十九세기 四〇년대이다. 경제적 및 사회-정치적 방면에 있어서 락후한 로씨야는 새로운 말에 귀를 심중히 기울였으며 열광적으로 이 진보적 사상을 탐구하였다.

맑쓰주의 사상이 로씨야에 있어서 견고한 지반을 차지할 수 있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十九세기는 로씨야의 문화 발전에 있어서 미증유의 최성기였으며 동시에 견고한 혁명적 인민 봉기의 시기였었다. 이 시기는 농노 제도의 부패 시기였으며 자본주의 집중적 발전의 시기였다.

오래 전부터 로씨야는 대중의 열렬한 혁명적 정력(精力)이 용솟음치는 원천이었으며 로씨야는 광대 무진한 인민과 농민 대중의 봉기로써 다른 나라보다 특수하였다. 국내에 있어서의 전제 정치 제도의 가혹한 압박 및 폭정, 정치적 무권리, 경찰-관료적 국가 기구의 포악한 전횡은 황폐한 경제적 조건 밑에 있던 인민 대중 및 진보적 인테리겐차들을 단련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짜리즘을 반대하는 용감한 투쟁에로 교양하였다. 구라파에서는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이러한 가장 곤난한 정치적 생활 조건을 맛보지 못하였으며 동시에 十九세기 하반기의 로씨야 처럼 이렇게 심각하고 폭풍 같은 진보적 사상의 사회적 사조를 가지지 못하였다.

력사는 락후한 국가의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의 생활 가운데서 리론적 사상의 미증유의 최성기를 야기하였으며 정치적 및 리론적 령역에 있어서 로씨야 전제 정권의 농노 제도를 반대하는데 무서워하지 않는 용감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전세계 력사 상에 빛나는 사건으로 되었으며 로씨야에 있어서 혁명적 폭풍의 예언자로 되었다. 게르쩬, 벨린쓰키, 체르늬셉쓰키 및 도브로류보브는 당시에 이러한 현저한 진보적 현상에 있어서 제일 가는 저명한 권위자였다.

지배층으로부터 끊임 없는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로씨야는 영국, 불란서, 독일의 선진적 사회층이 한 세기 혹은 그보다 더 장구한 기간에 경험한 그 모든 것을 十九세기 하반기 수十년 간에 파악하였으며, 사색하였으며 또 체험하였다. 로씨야의 혁명적 인테리겐차는 정신적 생활에 있어서 구라파의 가장 진보적인 모든 면을 받아 들였으며 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여러 새로운 전변 및 새로운 학설을 심중하게 탐구하였다. 그는 장구하고 곤난한 탐구의 도정에서 자기 시대의 진리를 찾았으며 고유한 리론을 발전시키였다. 로씨야 전제 군주의 포악한 손으로써 사회적 의식에 걸리어진 철쇄와 같은 징벌(懲罰)의 목도리(頸圈)를 끊고 속박을 물리치고 진보적 사상은 자기의 진로를 타개하였다.

로씨야의 혁명가 및 사상가들은 선진적 리론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암흑한 로씨야 현실의 변혁의 모든 의의를 잘 알고 있었다. 「사상 및 그의 항구한 발전은 — 도브로류보브는 공정하게 썼다 — 그들이 이미 현존한 요소에서 태워났으며 특히 현실 가운데서 항상 변혁의 선두에 섰기 때문에 그 의의를 알 수 있게 된다」(느·아·도브로류보브 저작 선집 一九三五년 二七五페지). 벨린쓰키는 리론의 현실성을 다음과 같은 문구로써 론술하였다. 「리론적 문제의 중요성은 그의 현실에 대한 태도에 달린 것이다」(브·그·벨린쓰키 전집 제十一권 四一페지)

벨린쓰키, 게르첸, 체르늬셉쓰키 및 도브로류보브들은 짜리의 전제 정치로 말미암아 극도로 부패된 로씨야를 막달은 골목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진정한 리론을 열광적으로 또는 학대받으면서 탐구하였다. 「대략 十九세기 四〇년대부터 九〇년대까지 약 반세기 동안에 — 레닌은 말하기를 — 비교할 수 없시 야만적이며 반동적인 짜리의 압박 밑에서 로씨야에 있어서 선진적 사상은 열광적으로 옳은 혁명적 리론을 탐구하였다」(브·이·레닌 전집 제二五권 一七五페지)

그렇기 때문에 十九세기 四〇년대에 로씨야 사회가 맑쓰를 알게 된 것은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맑쓰와 엥겔쓰는 그 후 쓰기를 전제 로씨야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은 어려 선진 국가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을 만큼 특수한 흥미와 리해를 받았다 라고 하였다. 독일에 있어서는 맑쓰의 최초의 로작들을 적의(敵意)의 침묵으로 맞이하였다. 가장 위대한 세계사적 문헌 — 맑쓰의 「자본론」,

은 최초에 랭혹한 침묵으로써 맞이하게 되었다。

맑쓰는「자본론」제二판 발문에「독일의 부르죠아 학자나 무식한 지도자들은 나의 과거의 로작에 대하여 침묵한 것과 같이 그들은「자본론」에 대해서도 시초에는 침묵하려고 시도하였다」(칼·맑쓰—프·엥겔쓰 전집 제一七권 一四페지) 라고 썼다。

맑쓰는 一八六九년 二월 十一일 르·꾸겔리만에 보내는 서한 가운데에 자기의 신념을 진술하는 것을 무서워하는「관리」의 비겁에 대하여 썼다。一八六八년 十월 十二일부 꾸겔리만에게 보낸 다른 서한 가운데 쁘루돈파 그의 저작을 반대하기 위한「정치 경제학 비판」이란 서적이 로씨야에서처럼 보급된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라도 찾아 볼 수 없다고 그는 지적하였다。로씨야에서의 맑쓰와 엥겔쓰의 저작 보급은 짜리즘을 반대하는 로씨야 인민의 해방 투쟁사와, 불가 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十九세기 하반기에 있어서 로씨야의 선진적인 사회적 사상은 혁명 운동의 각종 각양의 형태 및 리론에 대하여 우월하게 알리어졌다。「짜리즘으로써 여지없이 된 망명자의 덕분으로—레닌은 썼다—혁명적 로씨야는 十九세기 하반기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렇게 풍부한 국제적 련결을 가졌고 이렇게 전세계적 형태에 관한 탁월한 지식과 또는 혁명적 운동의 리론으로써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브·이·레닌 전집 제二五권 一七五페지)

맑쓰와 엥겔쓰는 시초부터 로씨야에 대하여 다대한 관심을 가졌다。그들은 세계 력사에서 중대한 역할은 반드시「수백만의 인민」이 놀아야 한다는 것을 리해하였다。특히 그들은 로씨야에 있어서의 광대한 인민 봉기에 관한 소식을 듣고 분격하였다。

엥겔쓰는 五○년대에 그리고 맑쓰는 六○년대에 로어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그들은 체르니쉡쓰키, 도브로류보브, 게르첸, 쌀트이꼬브—쉐드린파 기타의 저서들을 읽었다。맑쓰와 엥겔쓰의 로씨야 경제 및 사회적 운동에 대한 연구는 로씨야에 있어서 위력있는 승리적 혁명의 폭발에로 반드시 어끌어가는 심각한 사회적 모순들이 로씨야에서 성숙하여져 가는 것을 알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견고한 신념을 가져 오게 하였다。

맑쓰와 엥겔쓰는 구라파에 있어서 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판단하기 시작한 로씨야 인민에게 한번 뿐만 아니라 수차 예언적으로 자기들의 사상을 발표하였다。一八九五년 二월 八일부 쁠레하노브에게 보내는 서한에 로씨야에 있어서 니꼴라이 二세가 대위하는 데에 관련하여 엥겔쓰는「두고 보라 만일 혁명의 마귀가 어면자의 멱살을 잡았다면 이것은 곧 새 전제 군주의 멱살을 잡는 것이다」라고 썼다。

맑쓰와 엥겔쓰는 맨처음 로씨야의 과학 및 그의 세계적 의의를 놀래리 만큼 바로 보았다。맑쓰와 엥겔쓰는 로씨야에 있어서 사회 과학과 철학의 배회(徘徊)와 실책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에 있으며 또 그 결과를 볼 때 그의 철저성과 혁명성으로써 특수하다고 보았다。위대한 로씨야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은 사회적 리론에 있어서 철학의 역할을 심각하게 리해하였다。벨린쓰키는「인민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은 현대 철학적 학문의 대표자들의 위대한 과업, 거대한 로력, 위대하고 무진장한 천재의 명예스러운 로력인 것이다」(브·그·벨린쓰끼 전집 윈게로브 출판 제五권 四七一—四七二페지) 라고 썼다。

로씨야에 있어서 맑쓰주의 사상의 보급과 침투는 해방 운동의 여러 가지 력사적 계단에서 자기의 특징을 가졌던 것이다。四○년대와 五○년대에 있어서의 맑쓰주의 사상의 보급은 보트낀 안넨꼬브 및 기타 부르죠아 계급 등의 진보적 활동가에 의하여 협소한 범위에서 잠시 국한되었다。맑쓰주의적 사상은 혁명적 계몽가(벨린쓰끼)들에게 현저한 영향을 주었다。四○년대에 있어서 해방적 운동—「귀족 혁명」의 제一 계단은 종결을 맺고 다음에 오는「혁명적—평민」계단의 토대를 닦아 놓았다。

다음 시기 즉 六○년대와 七○년대는 혁명적—민주주의 진영에 있어서는 주로 맑쓰주의 사상을 보급하며 전파하는 것으로써 특징을 지어 주며 또 七○년대에 있어서는 맑쓰주의 사상의 보급과 전파는 그것이 주로 선진적 로동자들의 협소한 범위내에 국한된 것으로써 특수하였다。

一八四八년 후에 맑쓰와 엥겔쓰의 저서는 귀족 계급 및 자유주의자(까뜨꼬브, 유르께비츠, 치체린) 들의 반동적 진영에게 대하여 날카롭고 적대적인 것이였다。이는 문학에 있어서 맑쓰와 엥겔쓰의 사상을 반대하는 무자비한 론쟁의 시작으로 되었다。인민파의 진영에 관하여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인민파들은 맑쓰와 엥겔쓰의 약간의 저서들을 국내에 보급시키면서도 맑쓰주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적이였다。각 계급들은 자기의 계급적 리해 관계에서 출발하면서 제멋대로 자기의 대표자들을 거쳐서 맑쓰와 엥겔쓰의 저작을 취급하였다。

로씨야 사회는 맑쓰와 엥겔쓰의 최초의 로작의 비합법적 보급을 경유하여 四○년대에 출현한 합법적 출판물을 거쳐 맑쓰주의적 사상을 알게

되었다。

로씨야의 진보적 인사들은 아직까지 그들이 자기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 벌써 맑쓰와 엥겔쓰의 약간의 저서들을 알게 되었다。 맑쓰와 엥겔쓰의 급진주의와 혁명적 민주주의의 견해는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一八四三년에 「조국 기록」 (제一호) 은 브·쁘·보트낀의 「독일 문학」 이란 론문 중에서 엥겔쓰의 초기 로작 「셀릴린그와 발견」 을 로씨야 사회에 내어 놓았다。(브·쁘·보트낀 一八四三년에 있어서의 독일 문학 전집 제二권 페쩨르부르그 一八九一년 판) 보트낀은 저자의 인증 없이 그를 중요한 위치에로 재생시키었다。 젊은 엥겔쓰의 사상과 견해를 반영한 이 론문은 벨린쓰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보트낀에게 보내는 서한에 쓰기를 「제一호의 「독일 문학」 에 관한 당신의 론문은 특별하게 나의 마음에 들었다—즉 그는 지혜있고 교묘하고 또 근거가 있다。」 (브·그·벨린쓰키 서한집 제二권 三三四페지)

엥겔쓰의 소책자는 로씨야에 보급되었으며 게르첸의 일과에 의하여 유명하게 되었다。 게르첸 자신도 만일 소책자를 연구하지 않았었다면 아르놀리트 루계에 있는 「독불 년지」 (一八四二년) 에서 탐구한 그의 내용과 같은 상세한 설명도 확실히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게르첸은 자기의 일기에 루계를 솔직하게 인증하고 「셀릴린그의 운명에 관한 그의 학설을 반복하였다。 「셀릴린그—크리스도에 관한 철학자나 신성한 학문에서의 속세적 학문의 크리스도적 변모나」 라는 엥겔쓰의 부제목의 소책자도 역시 게르첸과 그의 신봉자들에게 있어서는 저명한 것으로 되었다。 베르린에서 개최된 철학 강의를 엥겔쓰와 같이 들은 바꾸닌은 게르첸과 벨린쓰키에게 독일에 있어서의 철학적 투쟁의 발전 및 진로를 알리었다。

잡지계에 있어서의 「독불년지」 의 출판은 당시 로씨야의 진보적 인사들로 하여금 활기 무진한 주시로써 맞이하게 되었다。 맑쓰 론문의 번역들은 초고를 등본하여 년지를 통해서 국내에 보급되었다。 실로 그의 내용은 다만 개별적 인간들에게만 알려졌으며 맑쓰와 엥겔쓰의 견지에 대한 그들의 리해 관계는 림시적이었으며 잠시적이었다。

벨린쓰키는 「독불년지」 의 내용을 잘 알게 되었다。

맑쓰는 「헤겔 법률 철학 비판」 이란 론문에 있어서 종교를 무자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종교를 반대하는 투쟁은 종교가 마신적(魔神的) 향기(香氣)로써 되는 그의 세계를 반대하는 간접적·투쟁이다。

종교적·빈곤은 한 시대에 있어서 빈궁의 현실성의 표현이며 현실적 빈궁을 반대하는 항의이다。

종교—이것은 압박하는 불신심자(不信心者)의 탄식이며, 무정한 세계의, 령혼이며, 생기 없는 불우(不遇)의 정신이다。 종교—이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환상적 행복(幻想的 幸福) 같은 종교의 시설은 그의 실제적 행복의 빈곤이다」 (칼·맑쓰 「프·엥겔쓰 전집 제一권 三九九페지) 라고 썼다。

「독불년지」 는 벨린쓰키에게 특수한 리해 관계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및 국내에 있어서의 관념론에 대한 그의 실재론적 견해의 편성에 대하여서도 저명한 의의를 표현하였다。 벨린쓰키는 게르첸에게 이 년지를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다량 무편한 인상에 관하여 「二일간 나는……활기 없었으며 재활하였다—이것이 전부이다。 나는 자기의 진리를 찾았다—그것은 신과 종교라는 말에 있어서、지옥 암흑 쇄반(鎖絆) 또는 채찍(笞鞭)을 보았으며 현재 이 두 언구를 사랑한다。 즉 그 뒤에 오는 세 언구를 알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그렇듯하며 그러나 나는 어전과 같이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일체를 다 적어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브·그·벨린쓰키 서한 제三권 八七페지) 라고 썼다。 투쟁하고 있는 젊은 맑쓰의 무신론은 벨린쓰키에게 심각한 감명을 주었다。

맑쓰는 「헤겔 법률 철학 비판」 에 있어서 종교의 비판은 현대적 사회의 비판이라고 명시하였다。「창공의 비판은 지구의 비판으로 된다。 그러므로 결국 종교의 비판은 법률의 비판이요, 신학의 비판은 정치의 비판이다」 (맑쓰·엥겔쓰 전집 제一권 四○○페지)

맑쓰는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계급으로 되는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급진적 혁명을 제시한바 현실에 대한—현실적 인류에게 그의 현사회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변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독불 년지」 에 발표한 사회에 대한 맑쓰의 실재론적 견해는 그로 하여금 「현실성에 대한 타협」 의 비판적 극복 시기에 있어서 벨린쓰키의 견해에 명백한 방향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벨린쓰키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최초의 영향을 본다면 서구라파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리해, 그외 부르죠아적 자유주의의 비판에 관하여 론술되었으며 그리고 역시 로씨야에 있어서의 농노 제도의 비판에 대하여서도 론술되었었다。

진보적 크르쇼크들은 맑쓰와 엥겔쓰의 사회적—경제적 사상을 알았다。 페트라세브쓰키 일파(十九세기 四○년대 므·브·브타세비츠—페트라세브쓰키를 중심으로 한 공상적 사회주의자의 일파—역자)의 크르쇼크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서적과 「철학의 빈곤」 이란 맑쓰의 로작과 「영국에 있어서의 로

동계급의 상태」라는 엥겔쓰의 서적들과 나란이 자기들의 공동 도서관 목록에 이들을 가지고 있었다. 뻬트라셰브쓰키 일파의 한사람인 유명한 쓰뻬슈네브는 一八四八년 로씨야에 수입할 것을 허락한 불어로 된「철학의 빈곤」이란 맑쓰의 저작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수단으로 로씨야의 진보적 인사들은 맑쓰와 엥겔쓰의 초기 저작들을 알게 되였다. 잡지「독불년지」에 있는 맑쓰와 엥겔쓰의 론문은 국내에 있어서의 정치 및 사상적 반동의 조건 하에서 그의 혁명적—민주주의적 견해의 축적 위에 약간의 영향을 표현하였다. 一八四九년에 철학 대학에 있어서 교수 금지제 조직을 회상하여야 한다.

「독불 년지」에 발표한「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와「정치 경제학 비판 개론」이란 엥겔쓰의 론문은 대단히 급속도로 벨린쓰키와 게르첸의 크르쇼크에서 저명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五〇년대에 맑쓰와 엥겔쓰의 로작들은 많은 혁명적 크르쇼크들에서 심각히 연구되었다. 당시에 있어서 맑쓰와 엥겔쓰에 관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방향의 지도자 또는 새로운 유물론의 설교자라고 말들하니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 그의 역할은 벌써 당시에 대단히 높이 평가되었다. 四〇년대와 五〇년대에 있어서 사회적 사상 위에 선 맑쓰와 엥겔쓰의 사상적 영향은 로씨야에 있었다. 그러나 아직 국한되었으며 협소하였었다. 그들을 알고 있은 인사들은 첫째로 안넨꼬브, 보트절 같은 인사들의 크르쇼크였으며 둘째로 약간의 진보적 크르쇼크, 세째로 당시의 혁명가이며 사상가인 벨린쓰키, 게르첸들이었다.

六〇년대부터 시작되어 진보적 로씨야 사회에 있어서는 맑쓰주의 사상에 대한 리해 관계가 심랄하게 앙양되였다. 출판물에 있어서는 모든 맑쓰주의의 경제적 및 철학적—사회주의적 리론과 련결을 가진 문제가 심의되었다. 맑쓰주의적 사상은 종종 청년들 층에 침투되었으며 또한 진보적 로동자들 층에 보급되었다.

그의 객관적 리유들은 이러하였다. 六〇년대에 비로쇼 로씨야에 있어서는 인민 대중의 빈궁화 결핍의 조건으로써 로씨야 사회의 진보적 크로쇼크에 있어서의 혁명적 의식의 각성으로써 야기한 혁명적 운동은 부단히 성장되었다. 국내에 있어서는 농민 봉기의 강력한 파동이 휩쓸었던 것이다. 만일 一八五九년에 있어서 그의 건수가 九〇건이라면 一八六一년에 있어서는 一, 一七六건이란 거대한 숫자에 달하였다. (국가는 농노제적 관계의 붕괴 전야에 처하여 있었다. 국가는 폭풍 같은 위기를 체험하였다. 레닌은 명시하기를「一八五九년——一八六一년에 있어서는 혁명적 지반을 창조한 시기」라고 하였다.

위대한 로씨야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은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한 리해 관계를 알게 되었으며, 또는 농노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과 짜리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야기하면서 더우기 맑쓰주의 사상에 대한 주의를 약화하지 않았다. 「현대인」이란 잡지는 이때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다.

맑쓰가 一八五九년에「저명한 로씨야 작가」로부터 받은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에 대하여 국내에 있어서는 모든 중요 인사들과 모든 성실한 인사들, 그들은 우리들로부터 성과있는 론쟁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전연 다른 그들은 당신의 탁월한 저작의 계속적 연구에 대하여 즉시로 착수할 가능성을 가지고 싶어 한다. 당신은 사상가들 간에 있어서 커다란 기대로서 리용되고 있다. 그리고 만일 당신에게 로씨야에 있어서 당신의 어떠한 학설이 보급되고 있는가를 알리고자 만족할 만한 소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금년도 초기에 있어서 교수가……………모쓰크바에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공개적 강연을 들었는데 그의 첫 강의는 당신의 최근 저작의 론술과 꼭같이 표상하였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칼·맑쓰—프·엥겔쓰 전집 제十二권 제一부 二六八페지)

六〇년대에 있어서「현대와 미래의 정치 경제학」(一八六〇년) 이란 질리제브란드트의 출판한 서적의 로씨야 번역에 있어서 그 주위에 전개된, 최고조의 론쟁은 진보적 로씨야의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 질리제브란드트——이는 사회주의의 광포한 적이였다——이는「정치 경제학 비판 개론」이란 론문에 있어서 또는 특히「영국에(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라는 서적에 있어서 현존한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를 준엄하고 또는 무자비하게 비판을 가한 엥겔쓰를 반대하여 출연하였다. 반동적 평론가들은「로씨야 통보」라는 까트꼬브쓰키 잡지로서 질리제브란드트를 지적하였다.

당시 도브로류보브와 체르늬솁쓰키가 편찬한「현대인」이란 잡지는 질리제브란드트와 그의 로씨야의 추수자(追隨者)들을 반대한 엥겔쓰의 견해를 옹호하는데 출현하였다. 비평한 저자는 쓰기를「현실 생활과 로동 계급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리대—하여야 하며 사실에 있어서 자기의 인간적 가치의 의식을 그들에게서 각성시켰으며 우둔하며 무의미한 침체 속에서 그들을)구출한 기계의 사업인가 또는 다대수에게 불행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반대 목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현존한 제도의 변태성 하에서 가장 은혜있는 천재의 발견을 랭정하게 탐구하여야만 된다」라고 질리제브란드트에게 모방하였다. (「현대인」제三六권 一八六一년판 六페지)

평론에는 명시하기를 길리제브란드트의 고유의 명제를 알기 위하여 서적을 읽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러나 길리제브란드트가 평론하는 리론의 본질을 알기 위하여서는 그 서적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현대인」이란 잡지에는 「영국과 불란서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라는 느·브·셸르구노브의 론문이 게재되었다。 셸르구노브는 자기의 론문 제一부에 「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라는 엥겔쓰의 저서의 간단한 번역을 기재하여 그의 내용을 로씨야 사회의 진보적 크르쇼크들에게 알리었다。

엥겔쓰의 사상을 옹호하여 나서면서 그는 쓰기를 「길리제브란드트가 공격한 저서들 중에는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독일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인 엥겔쓰도 있었다。 구라파의 문학이 영국 로동자의 경제적 생활 상태에 관한 위대한 저술을 그에게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명예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엥겔쓰와 길리제브란드트간의 차이는 엥겔쓰는 빈궁은 빈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궁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욕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길리제브란드트는 악(惡)한 것은 악한 것으로만 아니라 그 무엇으로써 시인하며 그는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동서 一三七폐지)라고 하였다。

「현대인」의 독자들은 론문 제二부에서 빈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불란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불란서 로동자들의 대다수——셸르구노브는 쓰기를——심지어 상상조차 하기 곤난한 방대한 박탈, 비참한 빈곤을 참고 있는 그들을 볼 수가 없다……그들에게는 자기 지식을 주입하여 양육할 방책조차도 없으며 그들은 지옥보다도 가일층 협애(狹隘)하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현대인」 제九〇호 二一九폐지)

셸르구노브의 론문은 로동 계급 속에 침투되었으며 그들에게 막대한 감명을 주었다。 로동자들은 느·브·셸르구노브에게 보내는 축사에 쓰기를 「우리 로씨야의 로동자들은 서구라파의 로동자들과 동일하게 여떠한 외부적 원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서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자신을 잊어야 된다는 것을 리해하였다。 이것을 리해한 로동자들은 보다 나은 상태를 위하여 피로를 알지 못하고 투쟁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임무를 성취하였다——당신은 어떻게 투쟁을 진행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시하였다」(실화집 一九〇六년판 제十二권 一二〇폐지)라고 하였다。

셸르구노브는 로씨야에 있어서 「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란 엥겔쓰의 저서에 대한 최초의 해설자로서 선전자로서 출현하였다。 우리들은 늦어서 이 로작의 인증(引證)을(「사업」「조국 기록」 기타 등등) 잡지의 모든 면에서 발견하였다。

길리제브란드트의 서적 비판에 대한 「현대인」이란 잡지에서 셸르구노브 론의 출현은 맑쓰주의 창시자들이 일찌기 로작한 것을 느·그·체르니솁쓰키에 알린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잡지는 자기의 론문을 의심없이 심각하게 통독하고 편찬하였다。 「길리제브란드트가 공격한 저서들 중에서 위대하고 고귀한 독일 사람들 중 한사람인 엥겔쓰가 있다」라는 것을 쓴 셸르구노브의 론문과·병행하여 체르니솁쓰키는 밀리에 대한 자기의 「정치 경제학 개론」을 게재하였다。 엥겔쓰에 대한 셸르구노브의 론문들이 아주 탁월하게 해명된 그 문제들 중에서 많은 것이 그들을 깨닫게 하였다。

「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란 엥겔쓰의 로작에 대한 론술과 인증은 六〇년대부터 시작되어 로씨야 출판물에 있어서 점점 증가되었다。

맑쓰주의적 사상의 영향은 느·브·셸르구노브의 많은 론문에 있어서의 그의 간접적 반영과 그 다음에 있어서는 그가 「국내 평론」이란 것을 발행한 시기에 있던 「로씨야 말」이란 잡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다。 一八六五년에 그는 「로동자 협회」라는 공동적 명칭 하에서 사회주의와 로동 운동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없었다。 다만 그 二개의 론문만이 출현되었다。(一八六五년 책 제一과 二) 「로씨야 말」이란 잡지는 二개의 론문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 내무 대신의 지령에는 셸르구노브의 론문 중에는 「공산주의적 리론의 립증과 더우기 심지어는 공산주의적 리론의 계속적인 장래 발전이 제기되어 있다」라고 지시하였다。

맑쓰와 엥겔쓰의 경제적 및 사회적 사상들은 一八六五년에 「로씨야 말」이란 잡지에 발표된 쏘끌로브의 론문에서 약간의 영향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엥겔쓰가 「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라는 자기의 서적에 제기한 상태 위에 의거하였다。 쏘끌로브는 자기의 「경제적 환상(幻想)」이란 론문에서 쓰기를 썩어져가는 사회적 반곤과 사회적 모순들은 「불가피적으로 서구라파를 국가적 대혁신에로 야기시키며 로동 계급의 빈곤이 더욱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급속히 그를 야기시킬 수 있다……그러므로 낡은 문명은 년불상응(年不相應)으로 빈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부패되어 간다。 그와 동시에 그는 자기의 로쇠성(老衰性)을 깨달을 것이며 마치 사교적 비방자(邪敎的誹謗者) 같은 죽음을 무서워 할 것이다」(「로씨야 말」一八六五년판

서적 제四권 五九—六三페지)라고 하였다。
맑쓰와 엥겔쓰의 사상은 로씨야의 저명한 출판물에 끊임없이 침투되였다。 서구라파에서는 당시 부르죠아 과학은「정치 경제학 비판」이란 맑쓰의 서적에 대하여 랭정하게 침묵으로써 맞이하였다。
그러나 로씨야에 있어서는 그의 서적은 거대한 기대로써 맞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씨야 선구적 학자들의 경제적 및 사회학적 견해에 현저한 영향을 야기시켰다。 맑쓰는 一八六〇년 九월 十五일 서한에 「로씨야에서 나의 서적은 커다란 파문을 주었으며 모 교수는 모쓰크바에서 나의 서적에 의거한 강의를 하였다。 그외에 나는 그에 관한 친밀한 다수의 서한을 로씨야 사람들로부터 접수하였다」(칼·맑쓰—프·엥겔쓰 전집 제二五권 三七一페지)라고 썼다。
一八六五년에 우리들은「정치 경제학 비판」이란 맑쓰의 로작을 토대로 한 방향을「로씨야말」이란 잡지 十二월호에서와 마클레오드와 주교브쓰키에게 정시한 뜨·뜨까체브의 개관(概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뜨까체브는 쓰기를「모든 법률적 및 정치적 현상들은 마치 경제적 생활의 공정한 법률적 결과로서 만이 불과하니 이 법률적 및 정치적 생활은 인민의 생활 상태를 단지 반영만 하는 경대(鏡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는 서구라파의 문학에서 우리 문학에 어식될 것이다。 벌써 一八五九년 세계에 알려진 독일의 추방자 칼·맑쓰는 정확한 방법을 공식화하였다。 지금 이 견해는 거의 전부 전체 사상가들의 절서있는 사상의 공동적 재산으로 제기되였으며 끝 지혜있는 인사는 그를 반대하여 어떠한 중요한 반박을 찾는다」(「로씨야말」제十二권 五〇—五一페지)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뜨까체브의 평론은 저자의 고유한 견해의 다양성에 있어서 인민파적 학설의 진영으로 되였다。 뜨까체브는 맑쓰의 방법이 전체 사상가들의 거의 전부의 재산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맑쓰의 경제적 견해의 모든 체계와 유물론적 변증법의 완전한 무리해를 표현하였다。
一八六一년에는「현대인」이란 잡지 五월호에「감수성 경제(чувствительности)」란 론문이 게재되였다。 그 론문은 서명되지 아니하였다。 그 론문에는「공산당 선언」저자에 대한 사상의 공정한 영향을 명시한 견해들이 론술되어 있었다。 론문에 언급하기를「신 경제학자들의 모든 임무는 자본의 압박으로부터 로동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구라파 사회는 두 계급 즉 자본가와 로동자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두 강력한 계급은 그 출생에 있어서 각각 호상 적대적으로

서 있다。 그리고 바로 서구라파의 현 사회 제도는 자본이 없는 로동력에 대한 자본의 지배 위에서 있었다……프로레타리아트와 고가 야기한 긴요성있는 자각은 현대 서구라파 사회의 경제적 조건들을 변경시키려는 것은 절호(絕好)의 문제로서 되지 않는다。 이 모든 력사적 로작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현상의 리해력 및 그의 의의를·리해하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一八六四년에「외국 통보」라는 잡지 六월호에서와「민족」이란 르·류지게르 론문의 번역 론문에는 계급 투쟁에 관한「공산당 선언」의 기본적 론제들이 론술되었다。
제네바에서 교훈받은 제一 인터내쇼날 로씨야 지부는 맑쓰주의 사상의 전파에 있어서 현저한 역할을 놀았다。 세르노—쏠로비예비츠 우전 및 다른 자들은 맑쓰의 불꽃 같은 추수자로 되였다。 외국에서 출판되는「인민의 사업」이란 로씨야 잡지는 계통적으로 독자들에게 맑쓰주의 사상을 알리었다。
맑쓰의「자본론」이 발표된 것은「자본론」이 아직 로씨야 말로 번역되기 편오래 전부터 광범한 반향을 출판물에 주었다。 제—로베르찌의 반동적 출현과 맑쓰의 경제적 체계 및 방법의 평범한 비판과 나란히 할여(예·제—로베르찌 정치—경제학 평론 一八六九년판)우리들은「조국 기록」(一八六九년판 제四호)에 있어서의 그르·엘리세예브와 또는「법학과 사회적 위생학의 문고」에 있는「사회적—위생학적 잡지에서 서구라파에 있어서의 로동자들의 상태에 관하여」라는 ㅃ·느의 론문에 있어서 맑쓰주의적—경제적 리론의 훌륭한 평가를 볼 수 있었다。
맑쓰는 一八七一년 一월 二十一일 지그프리드·메이예르에게 보내는 서한 가운데 이 론문에 관하여 전달하기를「법학의 문고」(로씨야 말로써 된 것)라는 잡지는 ㅃ·제르부르그에서 매번 二주일간 만에 발행된다。 ……이 잡지에 공편(共編)한 의사들 중의 한사람은「……위생학적 조건 하에서 생활하는 서구라파의 프로레타리아트에 관하여」라는 론문을 끝으머리 란에 게재하였다—그러나 그 론문에 있어서의 사료교시(史料教示)는 주로 나의 서적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불행이 일어났다。 즉 검열관은 내무성으로부터 심각한 문책을 받았으며 주필은 갱신되었으며 그、잡지의 호수—아직 점취할 수 있는 전 부수—는 불에 태워버렸다」(칼·맑쓰—프·엥겔쓰 전집 제二六권 八七페지)라고 하였다。
맑쓰에 대한 인증과 그의 로작「자본론」은 로씨야 출판물에 계속적으로 증가되었다。 로씨야의 맑은 진보적 인사들은 로어로 번역하기 편 오래 전—

부터 「자본론」을 잘 알고 있었다. 크·아·찌미라제브는 자기 추억을 말하기를 벌써 一八六七년에 맑쓰「자본론」은 빠·아·일리엔꼬브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런 고로 ── 그는 고착하기를 「자본론」이 출판된 후 수주일 지나서 화학 교수는 얼마 전에 ■뜨로브 학사원을 개설하고 로씨야에 있어서의 맑쓰주의 사상의 첫 보급자 등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크·찌미라제브「과학과 만주주의」국영 도서 출판사 一九二〇년판 四六六페지) 라고 하였다. 크·아·찌미라제브도 스스로 동년도에 「자본론」을 알게 되었다.

一八六九년만 하여도 바꾸닌의 번역으로써 「공산당 선언」은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맑쓰와 엥겔쓰의 서적 부수는 다종 다양의 방법으로써 로씨야에 배포되었다. 一八六九년 十一월 八일 그 서적들은 로씨야 우편국에서 처음으로 차압되었다.

짜리의 검열관은 이 공산주의의 정강적 문헌의 출판을 금지하였다. 예시뽀브 검열관은 一八七二년 三월 二十九일 외국 서적 ■제르부르그 검열 위원회에 쓰기를 「우리가 검열한 ●○산주의자 동맹 선언는 과라에 있는 국제 로동자 협회가 체험한 그 과과의 공포를 선전하지 않았다고 할찌라도 공산주의자 동맹 선언는 국제 로동자 협회의 짜들을 최근 자기 출현에서 자기의 태아들이 산출되고 성장되고, 성숙된 것을 프로레타리아트의 모든 무질서를 위하여 생산 지반과 감수성있는 풍부한 지반 위에 뿌렸다. 우리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소책자를 독서하지 못하게 금지시키고 있다」(붉은 문고 一九三八년판 제一권 一八五페지) 라고 하였다.

짜리 정부가 설치한 장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선언」은 혁명적 지하 운동에 침투되어 로씨야의 혁명자들은 그 사상을 알게 되었다. 一八六九년의 四개월 간만 하여도 차압한 五六〇종의 혁명적 문학 저서가 있는 우편물 중에 맑쓰와 엥겔쓰의 서적들이 적지 않는 수량을 차지하였다.

맑쓰와 엥겔쓰의 서적에 대한 심각한 론쟁은 十九세기의 계급 투쟁의 새로운 독징을 명시하는 파리 꼼무나의 전락기에 와서 장성되기 시작하였다.

짜리 정부는 「위험한」 서적이 로씨야에 침입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데 갖은 노력을 다 하였다. 一八七一년에 마이꼬브 검열관은 외국 서적 검열 위원회에 보내는 자기 보고서 가운데 「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 란 엥겔쓰의 서적에 관하여 쓰기를 저자는 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생활 상태를 「특히 로동자의 불구 대천의 적이며 압박자로서의 유산 계급인 부르죠아를 가장 검은 염료로서 론술하여 묘사하였다」 라고 하였다. 마이꼬브의 보고의 결정서는 「금지할 것」이라고 통과되였었다.

로씨야에 있어서의 맑쓰의 명성은 「자본론」의 출현과 함께 또는 그를 로어로 번역함으로써 특히 대중적으로 되었다. 당시 서구라파의 각 국가에서 처럼 「자본론」과 기타 맑쓰의 로작들을 묵살시킨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로작(勞作)들은 로씨야에 있어서 사회적 사상의 중심지로 되었다. 잡지와 신문에는 「자본론」에 대한 평론들이 게재되었으며 심지어는 맑쓰의 로작에 있어서 개개의 감득한 문제의 비판에 정시(呈示)하는 론문까지도 게재되었다. 로씨야가 「자본론」의 번역과 출판으로써 선진 국가로 된 것은 참 흥미있는 일이다.

짜리의 검열부는 맑쓰의 로작은 로씨야 제독자들에게 리해하기 곤난하게 된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쓰꾸라또브 검열관은 「맑쓰주의 서적」에 관한 자기의 결론 가운데에 쓰기를 「로씨야에서는 그를 아직 극소수들이 읽고 있으며 아직 협소하게 리해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서적은 三천부가 인쇄되었다. 一개월반 동안만 해도 一、〇〇〇부가 매진(賣盡)되었다. 一八七三년 一월 二十四일 맑쓰는 「자본론」 제二판 발문(跋文)에 쓰기를 「탁월한 로씨야의「자본론」 번역은 一八七二년 봄(春) ■제르부르그에서 출판되었다. 제一판 三、〇〇〇부는 현재 거의 전부가 벌써 판매되었다」(칼·맑쓰 자본론 제一권 一九三一년판 二〇페지) 라고 하였다.

一八七一년에 로씨야 번역으로 「자본론」이 출판되기 전에 끼예브 대학에서 발행하는 「끼예브 대학 시보」에는 「그의 사회적─경제적 연구에서의 다비드·리카르드와 칼·맑쓰」 라는 느·이·지베르의 학위론문(學位論文)이 인쇄되었다. 동년도에 이 로작은 一개의 서적으로서 출판되었다. 그 서적에는 맑쓰의 경제적 리론의 제 기본들이 론술되었다.

맑쓰는 로씨야 출판물에 있어서 자기 리론의 중요한 이 첫 론술에 고귀한 평가를 주었다. 맑쓰는 쓰기를 「벌써 一八七一년에는 끼예브 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느·지베르는 자기의 로작 「가치 및 자본에 관한 리카르드의 학설」에서 나의 가치론, 화폐론 및 자본론은 근본에 있어서 쓰미쓰·리카르드 학설의 필연적 완성이라는 론증을 주었다. 서구라파의 사람들이 이 귀중한 서적을 읽고 감동하는 것은 저자가 순 학리상의 립장을 일관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한가지 사실이다. (칼·맑쓰 자본론 제一권 一九三一년판 제二판 발문 二一페지)

「자본론」의 로어 번역 출판은 二八七二년 초기에 있어서 로씨야의 비합법적 혁명적 제기관 내에 꼬의 맑쓰주의의 가일층 광범한 보급을 위한 것이었다. 합법적 출판물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맑쓰주의의 경제적 철학적 체계의 정밀한 심의를 하는

데현한 중층으로 되었다. 「자본론」 제一권은 一八七二년 맑기에 출판되었다. 「자본론」 및 기타 맑쓰주의적 로작들은 당시의 로씨야의 혁명적 지하 공작에 현저한 확실성을 침투시켰다. 「……로씨야의 사회주의자들을 위하여 — 레닌는 쓰기를 — 「자본론」이 출현한 그 즉시로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운명」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리론적 문제로 되는바 그 문제의 주위에는 극히 중요한 정강적 제 명제들이 해결되며 극히 초미한 토론들이 집결되었다」(一·이·레닌 전집 제一권 一六七페지)라고 하였다.

점점 증가하여가는 혁명적 청년 크르쇼크에서는 맑쓰의 서적을 연구하였으며 로씨야의 운명에 관하여 맑쓰주의적 리론과 관련하여 오래간만에 토론되었다. 「자본론」은 혁명적 청년들의 심장 속 깊이 착취자 및 정치적 전제주의에 대한 무한한 증오심을 환기시켰다. 루싸노브는 쓰기를 「……모든 부패한 경제적 유산을 폐지하며 새로운 것으로 인입시키는 새로운 위대한 서적 맑쓰 「자본론」에 관한 소식은 마치 화약 같은 도로와 같이 로씨야의 인테리겐차들 간을 통하여 수도에서 광범한 지방의 중심지로, 중심지로부터 전도시에 향하여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였다.

인민과 특히 차이꼬브쓰키파들은 로씨야의 현실에 그의 리론을 전연 적응하기 곤난하다는 것으로 오산하면서도 「자본론」을 연구하였다. 미하일로브쓰키는 一八七二년에 「조국 기록」 제八월호에 쓰기를 「구라파에 있어서의 로동 문제는 그가 로동자의 수중에 로동 조건의 양도와 현재의 유산자들의 청산을 요구하는 까닭으로 그는 혁명적 문제인 것이다. 로씨야에 있어서의 로동 문제는 로동자의 수중에 로동 조건의 보호 그들의 재산을 현재 소유자에게 담보(擔保)만을 요구하는 까닭으로 그는 보수적 문제로 되는 것이다」(「조국 기록」 一八七二년판 제八권 三九五페지)라고 하였다.

인민파의 잡지 「즈나니예(知識)」 「슬로보 (言論)」 「조국 기록」 및 기타 다른 잡지들은 다만 그를 비판하며 「론소(論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수정하면서 맑쓰의 경제적 견해를 맹렬히 심의하였다. 이것은 독특한 현상이었다. 인민파들는 자기의 편견적인 견지에서 출발하면서 종종 쁘루돈 사회주의적 사회도서 맑쓰의 견지를 론술하였으며 그를 자기의 공상적 견해와 련결하여 절충할 것을 시도하였다. 레닌는 이에 관련하여 쓰기를 「맑쓰에 대한 인민파적 관계는 마치 독특하게 로씨야 사회주의 수정파의 각종 형태를 식별(識別)하게 되었다」(브·이·레닌 전집 제二八권 三八페지)라고 하였다.

맑쓰 자신도 一八七七년에 「조국 기록」 편집부에 서한을 보내어 인민파의 사상적 지도자들의 맑쓰의 사상을 외곡하는 론쟁에 간섭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인민파들은 맑쓰주의의 근본적인 반대자로 되었다. 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력사에는 「로씨야에서 맑쓰주의 그루빠들이 출현하기 전에는 혁명적 활동은 맑쓰주의 반대자인 인민파가 수행하였다」(전동맹 공산당(볼쉐위끼) 력사 조선판 一五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맑쓰의 「자본론」은 독창적인 인민파의 리론을 반대하는 격파적 힘이 있는 첫 포탄으로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로씨야 발전의 「특별한 길」의 신념을 파손하게 되었다. 사회적 발전의 문제에 있어서 인민파의 「락천주의적 견지」는 주저한다. 더우기 장래의 생산 부문에 있어서나 또는 로동에 있어서 우세한 농업 로동자 및 농민을 완전히 무권리로 하는 것과 위혁(威嚇)하는 착취의 화상을 폭로한 「로씨야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라는 베르비·플레로브쓰끼의 (저명한 서적이 벌써 一八六九년에 로씨야에 출현하였다. 아쁘제크만는 쓰기를 「七○년대의 이 서적으로써 야기한 감명은 청년들을 진실로 격동시켰다. 막은 눈앞에 내려졌다. ……그리고 인민의 파멸 령락 사회적 비궁의 격동한 화상은 우리 앞에 소생하였다. 이는 서구라파의 「다치 새같은 자유인」 프로레타리아트가 아니다. 이는 촌락과 농촌에 흘러다니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로씨야의」 류랑자이며 거지 바랑을 걸머진 기아자(飢餓者)이며 빈궁자이다 — 이는 자기 대요선(大撓船)과 자기의 「옵찌나」에 고착한 무법의 쇄반(鎖絆)으로 마치 노예와 같은 빈궁자이며 또는 기아자이다」라고 하였다. 청년들은 량심(良心) 깊이 격동하였다. 서적은 七○년대에 있어서 로동자의 상태에 대한 리해 관계를 각성시키는 데에 현저한 역할을 놀았다.

맑쓰는 플레로브쓰키의 서적의 사회적 내용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엥겔쓰에게 쓰기를 「……이 서적은 — 「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이란 당신의 저작 직후에 출현한 가장 훌륭한 서적이다」(칼·맑쓰—프·엥겔쓰 전집 제二四권 三八七페지)라고 하였다. 맑쓰가 이 로작의 결함을 발견한 것은 말할 여지도 없으나 그러나 그로 하여금 인민파의 관념론을 결정적으로 파멸시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국제 로동자 협회 로씨야 지부 위원회 위원에게 보내는 성명서에 쓰기를 「수개월 전에 「로씨야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란 플레로브쓰키의 저작을 뻬제르부르그에서 나에게 보내 주었다. 이것은 — 구라파 사람에게 참말로 새 발견이다. 소위 혁명가라고

까지 자칭하는 대륙에 보급된 로씨야 락천주의는 이 저작에서 무자비하게 폭로되었다. 그 책의 이면 개소에 있어서는 순전히 리론적 견지에 서 있는 비판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 할찌라도 그 가치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 이것은 신고 —중요한 관찰자이며 무서워하지 않는 신고자(辛苦者)이며 공평한 평론가이며 능력있는 예술가이며 또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외형에 있어서 압박을 반대하는 선동가이며 인내할 수 없는 다형 다양의 민족 찬미가 및 생산 계급의 모든 난고와 모든 노력을 열렬하게 나누는 사람들의 로작인 것이다」(칼·맑쓰—프·엥겔쓰 전집 제八권 제一부 三五三페지) 라고 하였다.

맑쓰는 파리 꼼무나의 패배와 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운동의 개량주의적 경향이 견고화된 후 동방에 있어서는 이번 한번 새로운 사회적 혁명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언적(豫言的)으로 공술(供述)하면서 자기의 시선을 향상 로씨야에 반영시켰다. 플레로브쓰키의 서적을 읽은 데에 관련하여 그는 엥겔쓰에게 쓰기를 「……현하 로씨야에 있어서의 상태가 머지않은 장래에 전복될 것이고 또 농노 제도의 철폐는 더 말할 것 없이 다만 부패 과정을 촉진시키였고 그리고 절박하여 있는 무서운 사회적 혁명이 닥쳐온다는 것을 이 서적은 결론하고 있다」(칼·맑쓰—프·엥겔쓰 전집 제二四권 二九二페지) 라고 하였다.

그러나 로씨야의 사회적 실정을 토대로한 맑쓰 「자본론」의 직접적 영향의 문제를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다.

로씨야의 대학을 중심으로한 학자 층도 「자본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대학 학자들도 이런 혹은 지런 방법으로서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맑쓰의 괴학적 로작의 사상은 대학 강좌, 잡지 및 서적들에 침투되었다. 그들은 종종 완전한 비리해 뿐만이 아니라 반동적 대립과 적의를 야기시켰다. 당시의 안또노브(「가치론」와르샤와 一八七七년 판) 브레젠(「정치 경제학」一八七六년판 뻬쩨르부르그) 따라소브(「사회주의에 관하여」)치체린(「독일 사회주의자」「국가 지직집」一八七八년판)과 다른 자들은 이려한 맑쓰의 경제적 학설의 「평론가의 일부에 속하였다.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은 맑쓰의 경제적 학설의 론리적으로 되는 혁명적 결론에 의하여 붕괴되었다. 례를 들건대 치체린은 쓰기를 「자본론」에는 「대수롭지 아니한 모든 현존한 제도의 강제적 전복이 문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맑쓰는 一八七三년 三월 二十三일부 다니엘쏜에 보내는 서한 가운데에 「치체린은 독일의 반동적 경제학자와 류사한 뻬르린의 교수 아·와그네르의 수중에 무기

를 주었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론거한 바와 같이 七○년대를 경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외에서 그가 목격(目擊)한 맑쓰의 견해에 대한 론술과 아울러 많은 로작에 착수한 끼예브 대학 정치 경제학 강좌 교수인 지베르는 맑쓰의 경제적 사상과 로씨야의 사회를 정통하는 데에 현저한 역할을 놀았다. 一八七四년 「즈나니예(지식)」란 잡지에는 「맑쓰의 경제적 리론」이란 그의 론문이 기재되었다. 론문은 맑쓰가 요강을 준 것이었다. 一八七六년과 一八七七년에는 같은 잡지에 같은 제목으로써 지베르의 많은 론문이 계속적으로 게재되었다. 다음 해에는 지베르는 맑쓰 「자본론」의 개개의 장문에 론술한 내용을 五개의 중요한 론문으로서 「슬로보(言論)」란 잡지에 기재하였다.

맑쓰주의적 사상을 알게 된 로씨야의 사회는 부단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출현한 「자본론」에 대한 평론이 출판물을 통하여 저명한 정도로 촉진되었다. 례를 들건대 미하일로브쓰키의 평론 「칼·맑쓰 서적의 로씨야어 판에 관하여」(「조국 기록」一八七二년판 四권) 까우프만의 평론(「구라파 통보」一八七二년판 五호) 서명만한 브·쁘의 평론(쓰—뻬쩨르부르그 통보)파 기타(「조국의 아들」「현대 통보」기타 등등) 이었다. 「새 시대」라는 신문에는 (一八七二년 四월 三일) 맑쓰의 경제적 학설을 호의있는 태도로써 심의한 선구적 론문이 게재되었다. 맑쓰는 一八七二년 五월 二十三일부 조르가에 보내는 서한 가운데 쓰기를 신문 편집자는 이 선구적 론문 때문에 정부로부터 찬양을 받았다는 것을 회상시켰다.

맑쓰는 그의 경제적 리론과 방법의 기본적 요소에 있어서 가장 정도가 높은 객관적 론술을 준(「칼·맑쓰의 정치 경제학의 견지」)까우프만의 평론을 특히 평가하였다. 까우프만은 맑쓰의 서적은 「세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으니 그는 첫째로 그에 전혀 착수하지도 않기 전에 이러한 문제의 연구에 있어서 문사가 얻은 새로운 독립적 결론을 준다. 둘째로 그는 현대적 경제 제도의 중요한 기본에 대하여 계통적 비판을 준다. 나중에 세째로 그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장 정확하게 특징을 짓는 력사적—문학적 및 문학적—력사적 보도의 대량적 예비로 된다. (「구라파 통보」一八七二년 제三권 四二八페지)

맑쓰의 명성은 특히 대중적으로 되었으며 그의 사상들은 七○년대의 하기(下期)로부터 널리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로씨야의 제조소—공장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성장과 련결되었으며 그의 정치적 각성의 토대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만 하여도 오뎃사와 뻬쩨르부르그에서는 로동자

동맹이 출현하였다。「사회적 문제」는 명백하게 되었으며 로씨야에 있어서는 극히 보편적 생활 상태로 되었다。맑쓰 「자본론」의 주위에는 불꽃같은 론쟁의 과도가 치기 시작하였다。

맹렬한 론쟁은 「칼·맑쓰와 그의「자본론」에 관한 서적」이란 유·주끄브쓰키의 론문으로서 표현되었다。독일 반동적 비판가의 속악한 그리고 비방(誹謗)한 상태를 재생시킨 보잘것 없는 자기의 론문에 있어서 주끄브쓰키는 맑쓰주의의 경제적 및 사회적 체계와 그의 변증법적 방법을 론박한 데 대하여 실망하였다。그는 맑쓰주의적 경제적 리론에 쎄야의 비악(卑惡)한 견해를 대립시켰다。맑쓰 자신도 주끄브쓰키의 비판을 그리 높지 않게 비판하였다。그는 一八七八년 九월 十五일 다니엘손에게 쓰기를 「이 시대에 여기에서 생존하고 있는 므·므·끄발레브쓰키 교수는 나에게 말하기를 마치 기묘한——백과사전 통달과 같은 주끄브쓰키의 이 론눈은「자본론」에 관한 활기있는 론쟁을 충분히 대답한 것 같았다」라고 하였다。

미하일로브쓰키는「조국 기록」이란 잡지에서「유·주끄브쓰키 씨의「재판정 앞에서의 칼·맑쓰」라는 론눈으로써 주끄브쓰키를 반대하여 나섰다。(「조국 기록」一八七七년판 제一〇권) 그는「자본론」의 최후의 목적은 새로운 사회의 경제적 발전 법칙의 연구로 되며 또한 저자가 이 강령을 엄격히 보존하는 것을 공술한「형식적 분석」에 있어서의 그 맑쓰 학설의 비난을 받았다。그러나 미하일로브쓰키 및 당시의 인민파들 처럼 혁명적 결론으로 되는 「자본론」의 현실적 내용의 완전한 비리해를 특징을 지은 것은 없었다。레닌은 「대량적 론거로써 억압된 론술들은 그들은 맑쓰의 앞에서 점뚝거렸으며 그를 찬양하였다。그와 동시에 학설의 기본적 내용을 도무지 등한시하며 마치 하등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주관적 사회학」의 낡은 노래를 계속한다」(브·이·레닌 전집 제一권 五六페지) 라고 썼다。

벌써 七〇년대에 있어서 미하일로브쓰키는 숙명론에서 맑쓰에 대한 비난과 또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비판과 함께 출현하였다。그는「맑쓰의 서적은 그 론구의 리해력에 있어서 다수의 혹(瘤)과 불필요한 변증법적 정묘성(精妙性)의 조문(條文)으로부터 많은 개작(改作)이 요구된다……」라고 썼다。맑쓰의 변증법은 미하일로브쓰키로부터 마치 쓰코라 철학처럼 랭대(冷待)되었으며 또한 마치「필요 이상 장식된 문체」처럼 묘사되었다。

맑쓰는「조국 기록」편집자에게 보내는 서한 가운데 그 리론에 숙명론을 추기한 미하일로브쓰키의 시도를 론박하였다。「가령 력사적 조건이 이쨌는 갔

에 결국에 있어서 그 경제적 제도에 도달하기 위하여서와 또한 사회적 로동의 생산 능력 표현의 거대한 자유와 인간의 전반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전인민을 숙명적으로 반드시 예속시키는 리론에 있어서나 전반적 발전 파정의 력사적—철학적 리론에 있어서 서구라파의 자본주의 기원에 대한 나의 륜곽을 반드시 그는(미하일로브쓰키—브·츠) 변혁할 필요가 있다。그렇지만 나는 그로부터 용서를 바라는 바이다。이것은 나에 많은 영예스러운 것이며 동시에 나의 릉욕(凌辱)인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지베르 교수는「조국 기록」이란 잡지에서「칼·맑쓰와 그의 자본론에 관한 서적」「유·주끄브쓰키 씨의 론문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란 론문으로서 주끄브쓰키를 반대하여 나섰다。비록 맑쓰주의적 정치 경제학 주석자(註釋者)의 실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로씨야의 경제적 사상은 지베르에게서 리해 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주끄브쓰키에 주는 지베르의 반박은 몇개의 구체적 경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당하였다。그러나 맑쓰의 방법에 대한 완전한 비리해를 폭로하였다。그는 경제적 내용의 선천적인 론술의 방법과 합께「자본론」의 방법을 동일시하였으며 또는 실제로 유물론적 변증법에 대한 맑쓰—「비판가」의 비난을 동의하였다。지베르는 귀족 및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지의 진영으로부터 모든 혁명 반대자들이 무장하며 맑쓰주의적 방법의 혁명적 의의를 박대하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였다。맑쓰의 변증법은 당시 그 반동 진영에서 취한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을 그에 대비하며 맑쓰주의적 방법을 론과하려고 칼·맑쓰에 관한 론문(「국가 지식집」 一八七八년판 제六권)으로서 시험한 당시 관념론자인 브·느·치체린으로부터 악평을 받았다。그는 맑쓰의 경제적 리론을 자기가 취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반동적 분자였으며 자본주의의 변호자로서 나섰다。

지베르는「치체린 대(對)칼·맑쓰」라는 론문으로서 치체린을 반대하여 나섰다。(「슬로보(언론)」 一八七九년판 제二권)는 정당하게 맑쓰와 반동적 비판가의 견지의 차이에 대한 본질을 취하였다。「치체린은 그의 리념을 관찰하면서 현실성을 옹호하였으며 맑쓰로 하여금 그에 대한 비판적 관계자로 되게 하였다。방법에 관한 문제에서 헤겔과 맑쓰 간의 부동의한 모든 리해력 및 의견은 다만 전자는 리론에 있어서 관념론자였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게 만사가 다 잘돼 나가는 뿌로씨야 왕의 날개 밑에서 그는 비호를 받았다。그러나 그와 반대로 맑쓰는 독특하게 현

실은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리해 방법 또는 그에 대한 관계를 저더한 정도까지 또는 재차 독특하게 지나간 것과 같이 경과하는 실제적 현실을 탁월하게 알고 있다는 데에 있다」(「슌로보(言論)」 一八七九년 제二권 六六폐지)

맑쓰의 「자본론」을 중심으로 한 론쟁은 합법적 출판물에 있어서 로씨야의 혁명적 지하 공작을 위한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하였다. 맑쓰와 엥겔쓰의 저작은 크르쇼크에서 독서하게 되었으며 공개적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의 사상은 혁명적 활동의 슬로간처럼 섭취되었다. 짜리 정부는 맑쓰주의적 과학 보급을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七〇년대와 八〇년대의 재판 소송 사건들은 독서회 공개 연설 및 사상 보급을 고소하는데 분주하였다.

그 해만 하여도 국외로부터 맑쓰와 엥겔쓰의 많은 서적들이 비합법적으로 분포되었다. 그들은 멀리•센꾸르쓰크까지 도달되었으며 오를르•따간로그 기타 등등의 지방에까지 출현하였다. 차이꼬브쓰키의 크르쇼크는 맑쓰 서적을 보급시키는 데 있어서 현저한 역할을 놀았다. 짜리 경찰은 가택 수색으로 정밀하게 편찬된 맑쓰 「자본론」의 요강을 수차 발견하였다. 一八八〇년에 끄르보노바—까불루꼬바는 엥겔쓰에게 「나는 맑쓰 선생에게 그의 서적—「자본론」은 광범하게 로씨야에 있는 학자들 층 뿐만 아니라 주로 사회 과학과 인민의 형편에 대한 리해 관계를 표시하는자 그들 중에 보급되었으며 「자본론」은 교사들과 녀교사들이 자기가 교수하는 데 그 제목에서 절실히 관련되는 제목들을 독서하고 있다. 「자본론」을 많이 독서하면 독서할수록 독자 및 청년들은 그의 기본적 명제를 섭취하며 더우기 졸열한 영예로서는 그는 우리의 검사와 재판 심사원들까지도 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여 주심을 바람……」(一八八〇년 七월 二十五일부 엥겔쓰에 보내는 끄르보노바—까블루꼬바의 서한 맑쓰—엥겔쓰—레닌 연구소 문고」) 이라고 썼다.

一九三 소송 사건 참가자인 끄발리크는 「자본론」의 혁명적—선전적 역할을 지적하면서 「조직의 조화성과 심원한 비판으로서 그와 대비할 수 있는 힘과 때를 어기지 않고 따위을 상기하는 거대한 감명을 인테리 청년들에게 맑쓰는 주었다」라고 썼다.

맑쓰 「자본론」의 사상은 모쓰크바 및 뻬쩨르부르그를 넘어서 멀리 보급되었다. 당시의 선진적 인사들은 「자본론」을 알았으며、 싸마라、 싸라또브 및 기타 다른 지방 도시들의 청년들 층은 점점 증가되었다. 례를 들면 쓰트라호브 고등 전문학교(특권계급)의 대학생 야로쓸라브쓰키、 제미도브쓰키들은

맑쓰 학설의 공개적 연설로 연하여 고소되었다. 드•이•바갈레이는 자기의 회상을 통지하기를 그는 一八七七년에 끼예브 대학의 학생으로서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맑쓰의 「자본론」에 있는 「잉여가치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써 공개적 강의를 하였다」라고 하였다. 어떤 강사들은 맑쓰의 경제적 학설의 내용을 자기 과정에서 론술한 까닭으로 위협을 받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때때로 교수의 직업으로부터 추방당하였다. 그러므로 그•브•홀로뻰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八〇년대의 초기에 「맑쓰의 학설을 그의 선행자에 관련하여 정치경제학 발전에 있어서의 그의 지위를 상세하게 론술한 자기의 연설에서」 그의 학설을 듣던 한 사람인 강사 조교수는 뻬쩨르부르그 대학에서 추방당하였다고 한다. (군사—위생 학사원 기념문집 一九二七년판 一二四폐지)

맑쓰 「자본론」은 자기의 경제적 사상으로서만 로씨야의 사회적 사유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원론적인 철학적—사회학적 구상(構想)으로써도 영향을 주었다. 력사의 맑쓰주의적 리해의 사상들은 크르쇼크에서 심의되었으며 그의 주위에는 열렬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맑쓰의 사상은 오직 로동자의 크르쇼크에 있어서만이 호의적으로 접수되었다. 인민파들은 「맑쓰의 체계」는 「자본주의적 서구」만이 적용할 수 있다고 동의하였으나 어떠한 조건을 붙이었다.

맑쓰와 엥겔쓰의 이 명성은 벌써 七〇년대부터 뻬쩨르부르그에 있는 진보적 로동자들에게 알리어졌다. 인민파—차이꼬브쓰키파와 라브로브주의자(쁘•로•라브로브 一八二三—一九〇〇년은 인민주의자)—크르쇼크에서는 로동자들에게 맑쓰의 경제적 리론과 사회적 리론의 론술을 여의없이 알리었는바 가장 진보적 로동자들은 「자본론」에 대한 강의까지도 하였다. 「영국과 불란서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라는 느•브•셸르구노브의 론문은 로동자들의 크르쇼크에 있어서 거대한 기대로서 리용되었다. 이 론문들은 「현대인」이란 잡지에서 인용한 것이었다. 진보적 로동자들은 맑쓰의 경제적 학설의 제문제에 관한 수개의 론문을 계몽 잡지에서 읽었다. 그러면 례를 들어 로동자들은 「조국 기록」이란 잡지에 있는 「자본론」 제一권 八장의 론술을 기술한 「로동일이란 무엇인가?」라는 론문을 읽었다.

「불란서에 있어서의 농민 전쟁」이란 칼•맑쓰의 비합법적 로작은 로동자들에게 예외없는 성과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 중에 비교적 광범히 보급되었다. 비합법적 로동자 도서관에는 十부로된 소책자를 가지게 되었다. (「十九세기에 로씨야에 있어서의 발

역최 제三권 三六페지」)

로씨야에 있어서 맑쓰주의 사상이 보급된 결과로써 공포를 느낀 짜리 정부는 자기 간첩들의 대표자들을 맑쓰의 리론적 활동과 혁명적 활동에 대하여 힘껏 탐색시켰다. 론돈으로부터 제三문지부에 비밀 보고가 왔다. 一八七一년에 경찰은 맑쓰가 영국 목사 왈라쓰의 이름을 빌어 그때 로씨야에 침입하려고 기도하는 것 같다고 하는 간첩 중의 한 사람의 허위 보고에 의하여 그를 구속하기 위하여 떠들었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오뎃사에 있어서는 一八七二년 五월에 끈쓰딴찌노뽈리로부터 도착한 영국 상인 가짜 맑쓰가 구속되었다.

선진적인 로씨야 사회는 맑쓰주의의 철학적 사상을 다만 맑쓰의「철학의 빈곤」및「자본론」의 연구를 거쳐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엥겔쓰의「반듀링론」의 독서를 거쳐서도 알게 되었다. 검열관은 로씨야말로「반듀링론」의 번역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독일 서적「반듀링론」들은 로씨야의 독자들까지 읽게 되었다.「반듀링론」의 독립적 론난의 론술 및 심지어는 엥겔쓰 저작의 단편에서 직접 발췌한 것까지도 우리들은 합법적 출판물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므·끄발레브쓰키의 보고에 의하면 맑쓰는 지배로 교수에게 전한 그 엥겔쓰의 서적「반듀링론」을 끄발레브쓰키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므·끄발레브쓰키는 쓰기를「나는 바꾸닌주의자 및 듀링의 론쟁이 최성기에 달하였을 때「자본론」의 저자를 알게 되었다. 맑쓰는 첫 대면시에 나에게 二개의 소책자를 증여하였다. 소책자는 나의 수중으로부터 교수 지베르의 수중에 건너갔으며 그는 부분적으로는「법률 통보」에 많은 론문으로 리용되었으며 그 후 나로서 부분적으로 모쓰크바(비판 개론)에서「조국 기록」에 출판되었다」(「구라파 통보」一九〇九년 출판 제七권 一〇페지)라고 하였다.

지베르는 一八七九년에「언론」이라는 잡지에「변증법과 과학에 대한 그의 적용」이란 제목으로써 론문을 발표하였다. 론문은 엥겔쓰 서적의 제一부 및 제二부 三장의 번역단편으로써 되었다. 지베르는 대략 이러한 방법으로써 독자들에게 독립적 서적의 단편 번역을 알리면서 一八七九년에「법률개론」에서「반듀링론」서적에 대한 자기의 평론을 적용하였다.

로씨야의 과학 및 사회 평론은 엥겔쓰의 철학적 로작에 큰 리해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맑쓰와 엥겔쓰의 다른 로작들은 비합법적 운하를 거쳐서 로씨야의 혁명자에게 까지 이로렀다. 차이꼬브쓰키의 크르쇼크원 브·므·알레크

싼드로브는 자기가 번역한 맑쓰의 소책자「一八七〇—一八七一년 불란서에 있어서의 공민 전쟁」이라는 것을 쥬리흐에서 출판하였다. 로씨야에 있어서 七〇년대와 八〇년대 초기에 짜리의 검열관들이 금지한「공산당 선언」은 바꾸닌의 번역으로서 나중에는「모쓰크바 그루빠」쁠레하노브의 번역으로써 보급되었다. 一八八三년에 뻬쩨르부르그의 비합법적 잡지「대학생」에는 판매 중에 있는 서적 목록으로「선언」을 기재하였다.

一八八二년에 진보적 모쓰크바 대학생이 조직한「번역자 출판자 협회」는 맑쓰와 엥겔쓰 로작 보급에 있어서 현저한 역할을 놀았다. 이는 오랫동안 존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많은 중요한 맑쓰의 로작을 출판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불란서에 있어서의 공민 전쟁」「임금 로동과 자본」그리고 심지어는 엥겔쓰의 저작「과학적 사회주의와 공상적 사회주의」(공상에서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생략한 원문「반듀링론」및「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등등이였다.「번역자 출판자 협회」는 자기의 회원 예브게니유 빠쁘리쯔를 통하여 엥겔쓰와 련락을 가졌다. 그는「사회지식」이란 잡지를 발행하였다.

一八八四년에 그의 창간호에는「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및「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四개 장문이 발표되었다.

잡지 발행자들은 엥겔쓰의 로작「영국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상태」에 상세한 주석을 주었다. 그들 중에서는 엥겔쓰가 현대 사회주의의 가장 특출한 대표자들 중의 한 사람이란 것이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로작의 례거와 아울러 그의 정치적 과학적 활동에 관해서도 알려져 있었다. 주석에는「경제학 비판」서문에서 력사의 유물론적 리해의 고전적 공식이 인증되었으며 또 맑쓰의「자본론」에서 여러 장구(章句)가 인용되어 있었다. 례를 들면「폭력은 새것을 배태하는 낡은 사회에게는 산파로서 복무한다」

「번역자」들은 현대적 부르죠아 사회를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혁명적 투쟁에 관해서 옳바른 결론을 지었다. 그들은「프로레타리아트는 국가 권력을 점유하고 생산 도구를 국가 소유로 변경한다」라고 썼다.

모쓰크바 선진 대학생들의 잡지는 맑쓰와 엥겔쓰의 로작(「자본론」「경제학 비판」)에 있는 사상을 비교적 널리 독자들에게 알리었다.「번역자 출판자 협회」는、로동자들을 위해서 엥겔쓰가 쓴 맑쓰 전기의 부록이 있는 소책자「임금 로동과 자본」「임금 가격 및 리윤」/「자본론」의 적요를 출판하였다. 그것은 모쓰크바 대학생 크로쇼크의

혁명적 의식의 높은 수준을 증명하고 있으니 그것은 이러하다。 「여하튼 집결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대중이 자기를 착취하는 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깨뜨리고 사회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개작하는데 착수할 가능성을 준 실제적 힘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인민의 이 사회적 혁신은 평화적 방법으로써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독자가 리해하게 하라、 두개의 적대적 계급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서는 그 중 한 계급이 아무런 희망이나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두뇌가 자본주의적、 구조도 되어 있는 모든 자기들의 대표자들과 품행 단정한 지식인과 같은 부르죠아지 라고 한다면 평화적 결말은 가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자본가와 로동자 간에서 타협을 찾는 것은 현대적 사회에서 고뇌의 연장을 바라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대담한 전투가 짧으면 짧을수록 죽는 경우도 적어지는 법이다。 전세계 프로레타리아는 단결되어서 인류를 완전히 적대적인 두、 계급 굶주리며 무지한 대중과 비만한 만따린들의 까스트로 분리하는 그 파멸적 체계에다 결정적 장애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번역자 출판사 협회」는 주지의 정도로 맑쓰—엥겔쓰의 저서 출판을 거쳐서 하는 자기들의 맑쓰주의 사상 선전에 있어서 맑쓰주의적 「로동 해방단」의 선전 활동을 폐망하였다 혁명적 학생 청년은 「인민과의 신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 맑쓰주의를 비판한다 할찌라도 맑쓰주의의 사상의 영향을 체험하였던 것이다。 그 실례로는 엥겔쓰의 론문 「과학적 사회주의」가 실렸고 一八八三년 이후 호에서 그것이 비판받았던 뻬쩨르부르그대학생 크르쇼크의 복사 잡지 「스트젠트스트보」 제一호 (一八八二년 十二월)가 된다。 그 필자는 력사의 유물론적 리해에 대한 자기의 이의를 표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잡지 「스트젠트스트보」의 발행자 그루빠는 복사 출판으로 「공산당 선언」을 발행하였다。

모쓰크바와 뻬쩨르부르그 대학들에서는 맑쓰의 철학적 경제학적 사상을 그 참가자들이 공부하고 있었던 소위 독학 크르쇼크가 존재하였다。 또 맑쓰 「자본론」을 연구하는 특별 크르쇼크도 있었다。 맑쓰의 경제학적 철학—사회학적 리론에 관한 연구 론문이 독서되었고 새 사회의 개념을 둘러 싸고 무자비한 토론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에 대한 관심은 로씨야에 있어서 사회 발전과 자본주의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였다。

맑쓰주의의 사장이 당시 인민과적 혁명가들로써

리해된 것은 물론 의심할 바 없는 일이다。 인민파의 신념은 로씨야 사회 발전의 특수성에 있어서 뗄 수 없는 만큼 지배적이었다。 새 사회 구성의 활동적、 창조자와 같은 영웅에 대한 인민과의 공식은 더 론쟁할 여지도 없는 것이었다。 맑쓰주의에 대한 인민과의 리해 관계는 얼마만이라도 유기적으로 될 수는 없었다。 맑쓰주의는 모든 자기 내용으로 보아 인민과의 이데올로기와는 상반되어 있였다。

인민파들은 맑쓰주의의 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끝 신랄하게 폭로되었다。 라브로브와 다니엘쏜은 맑쓰의 경제학적 리론의 개개 명제와 그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합의하는 데 이의는 없었다。 그러나 인민과들은 더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맑쓰주의의 사회학과 철학에 관련해서는 그들은 「파산」 선고를 하였다。 례를 들어 인민과 끄・따라쏘브 (느・쓰・루사노브)는 맑쓰의 사회학적 견해를 반대하여 나서면서 「인민의 의지의 소식」에다 다음과 같이 썼다。 「맑쓰의 주되는 힘은 경제학에 있어서의 연구에 종속되는 현대적 사회현상을 명료하게 분석하는 데 있는 것이자 결코 전체로서의 사회와 사화적 요인에 대한 그의 견해를 포괄하는 그 작으마한 소책자나 론문이나 주요한 사물 간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맑쓰주의는 숙명론으로써 인민과의 잡지를 통하여、 독자에게 제공되었다。

그러나 맑쓰의 「자본론」은 의심할 바 없이 인민과 이데올로기의 지반을 심하게 동요시켰다。 인민과의 강령 문제 심의에 있어서、 그것은 본질적 역할을 놀았다。 웨라・자수리츠는 一八八一년 二월 十六일 맑쓰에 보내는 편지에다 「당신의 「자본론」이 로씨야에서 큰 인기를 가지고 리용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판물의 몰수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소수의 서적 부수는 많든 적든 우리 나라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읽고 있으며 그것을 연구하는 중요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은 우리 나라에서 당신의 「자본론」이 로씨야 농민 문제와 우리 토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놀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맑쓰—엥겔쓰의 문고」 국립도서출판부 一九二四년판 제一권 二六九페지) 라고 썼다。

맑쓰와 엥겔쓰는 로씨야의 사회—력사적 발전행정에 있어서 그 나갈 바를 로씨야 혁명가들에게 가르칠 지향을 가졌다。 브・자수리츠에게 보내는 맑쓰의 서한 초고들은 그가 로씨야의 토지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문제와 해결에 어떻게 세심하였는가를 보여 준다。 맑쓰와 엥겔쓰는 라브로브、 다니엘손、 자수리츠 및 기타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한에다 로씨야 사회 관계에의 적용에 있어서 맑쓰주의 리론의 그릇된 설명을 해명하면서 인민파의 경제적 정치적 견해의 결점을 신중히 또 그와 동시에 엄격히 지적하였다。 일찌기 그들은 인민파들의 내용없는 미문구와 무근거성을 보여 주면서 바꾸닌과 뜨까체브와 같은 인민파의 정치적 리론적 견해를 폭로하였다。

레닌은 인민파들에 의한 맑쓰주의 사상의 심의는 동시에 그 외곡과 속악화를 표시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혁명적 맑쓰주의자들 앞에는 인민파의 수정주의로부터 맑쓰주의를 씻어내며 또 거기에다 진실한 그의 혁명적 사상을 첨가해야 할 과업이 시작되었다。 인민파적 리론은 「맑쓰주의를 희롱하였으며 위조하였고 (때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또 이 리론들은 마치 자신이 맑쓰주의의 지반에 립각한 것처럼 「맑쓰를 따라서」 맑쓰 리론을 로씨야에 적용할 것에 대하여 론박하였다」 (브·이·레닌 전집 一五권 九四폐지)

「로씨야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형편」 이란 브·프로레로브쓰끼 서적이 나오게 된 것을 맑쓰는 그것이 로씨야에서 사회 발전을 리해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로씨야적 락관주의」를 반대하는 수단의 하나로 된다고 간주하면서 기쁘게 맞아 들였다。 「로씨야적 락관주의」와 사회 발전의 「특수한 길」은 맑쓰의 말에 따른다면 이 저서에 무자비하게 폭로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로씨야 경제 관계에 관해서 옳은 평가를 준 첫 로작이다。

맑쓰와 엥겔쓰는 최신 로씨야 경제학적 문헌을 깊이 주시하였다。 그들은 로씨야에 있어서의 진실히 경제 상태를 명백히 한 체르니쉡쓰끼의 경제학적 저작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체르니쉡쓰끼의 경제학적 력사학적 저작을 연구하였다。 벌써 一八七〇년에 그는 체르니쉡쓰끼의 과학 저서를 높이 평가하였다。 맑쓰는 「프레로브쓰끼와도 같고 당신의 선생과도 같은 체르니쉡쓰끼의 이러한 저서들은 로씨야의 진실한 존경을 받으며 당신들의 나라가 역시 十九 세기의 사회 운동에 참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론증하고 있습니다」 (맑쓰—엥겔쓰전집 一三권 一부 三五四폐지) 라고 썼다。

체르니쉡쓰끼를 그는 다만 학자로서만 본 것이 아니라 로씨야 혁명적 당의 수령으로서 보았다。 「자본론」 제一권 二판의 발문에서 맑쓰는 「위대한 로씨야의 학자」로서의 체르니쉡쓰끼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경제학 개론」에 있어서 「부르죠아적」 경제학의 파산을 솜씨있게 관찰하였다。 그·로빠찐의 증언에 의하면 맑쓰는 체르니쉡쓰끼의 심오한, 분석적 창작 두뇌를 비상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모든 현대의 경제학자 중에서 체르니쉡쓰끼만이 실로 유일한 창조적 사상가를 대표하였으나 나머지는 단순한 편찬자였다는 것이라고 또 그의 저작은 신기성과 사상의 힘과 깊이로 가득 채웠다는 것이며, 또 그 과학에 따라 독서와 연구를 얻는 현대적 작품 중의 유일한 것을 그가 대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로씨야 사람들이, 한사람도 이렇게 저명한 사상가를 여태까지 서구라파에 알리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야 한다고 여러번 나에게 말하였다」 (「겔만 알렉싼드로위치 로빠」 (一八四五—一九一八) 페뜨로그라드 국립 도서 출판부 一九二二년판)

맑쓰와 엥겔쓰가 아는 바에 의하면 체르니쉡쓰끼에게 있는 로씨야 경제학적 과학은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 서고 있다 한다。 체르니쉡쓰끼의 사회 경제학적 사상을 알려는 욕망는 맑쓰가 로어를 연구하게 된 원인의 하나였다。 一八七〇년 八월 二일부터 베껠에 보낸 서한에서 맑쓰는 「체르니쉡쓰끼 전집 제四권이 출판되는 즉시로」 자기에게 입수하게 해 달라고 청했다。 (맑쓰—엥겔쓰 전집 二六권 六六폐지) 맑쓰는 주의 깊게 체르니쉡쓰끼의 저서를·연구했고 거기에서 그는 경제 생활 법칙에 관한 심오한 판단을 발견하였다。

맑쓰는 로어로써 체르니쉡쓰끼의 저작을 읽으면서 원문에다 련겹어 모든 줄에 표적을 하고 또 방선을 그었다。

맑쓰는 로씨야 력사가들의 저작 특히 맑쓰주의 사상의 유익한 감화를 음미한 므·끄바렙쓰끼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였다。 추측하건대 一八八〇년에 맑쓰에게 보낸 서한 (맑쓰—엥겔쓰—레닌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중의 하나에서 므·끄바렙쓰끼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의 호의적인 편지와 쁘루돈을 반대하는 당신의 소책자를 내 도서실에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당신이 빌려준 견본은 며칠 후에 보내 올리겠습니다。 「철학의 빈곤」을 독서한 것은 내게 몹씨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경제학적 모순」을 읽을 때 여러번 머리에 떠오르던 그 사상의 확증을 이따금 보게 됩니다。 내가 독서시에 얻은 리익은 많든 적든 공식적 경제학자들로서 옳지 못하게 관찰되고 설명된 수다한 경제적 사실로부터 정확한 과학을 창조할 것은 형이상학이 무기력한 때서 확신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맑쓰는 로씨야 력사가들의 저작에 깊는 흥미를 일으켰다。 례를 들어 끄바렙쓰끼가 그에게 보낸 맑쓰 서한 중의 하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전

달한 일이 있다. 「내게 보내온 그의 편지 중 하나는 까레예브의 서적 「十七세기 불란서 농민 문제」의 평가에 바치어져 있었다」(「구라파 보도」 一九〇九년판 〇七호)

맑쓰와, 엥겔쓰는 매우 주의 깊게 로씨야에서의 농촌 관계와 로씨야 총촌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 행정을 연구하였다. 여기에 관해서는 맑쓰와 엥겔쓰가 라브노브, 다니엘손, 자수리츠 및 기타 사람들과 한 편지 련락이 말해 주는 것이며, 또 로씨야 서적에 실은 맑쓰와 엥겔쓰의 부주(附註)가 말해 준다. 뽀벨리쓰끼의 론문 「농민 문제에 있어서 의무의 과대 평가」에 한 엥겔쓰의 적요는 본질상 一八六一년 개혁 총계의 비판적 분석을 내용으로 한다. 엥겔쓰는 항상 로씨야에서 그야말로 맑쓰 서적을 어떻게 읽는가 라는 데 매우 흥미를 두었다. 로씨야 망명 혁명가들과의 담화에서 그는 국내 농민 문제의 의의의 중대성과 그의 중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력설하였다. 선진 로동자들 속에서 맑쓰 「자논론」의 사상 침투는 七〇년대와 관련되고 있다.

一八四五—一八八三년 간에 로씨야의 맑쓰주의 사상의 침투는 처음 로씨야 맑쓰주의 그루빠—「로동 해방난」이 출현한 시기 이후에 와서는 맑쓰주의의 보급은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

맑쓰와 엥겔쓰의 천재적 사상은 그 발생 초기부터 로씨야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十九세기 말에 이르러 맑쓰—엥겔쓰의 학설은, 로씨야에서 인민과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획득하였다. 九〇년대에는 레닌—쓰딸린을 수령으로 하고 맑쓰—엥겔쓰의 학설은 대중적 로동자들의 혁명 운동과 결합되었으며 짜리와 자본주의적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 강력한 힘으로 되였다. 레닌—쓰딸린과 같은 위대한 과학의 지도자들로써 새롭고 일층 높은 계단에 앙양된 학설은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실현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억제할 수 없는 발전에 있어서 · 자기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맑쓰주의는 진실로 근로 대중의 세계관으로 되였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선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제국가에서의 인민 민주주의적 제도의 창립은 맑쓰주의 사상의 실현과 위력을 찬란하게 확증하였다. 현대의 사회는 . 공산주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때는 제국주의의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기의 맑쓰주의인 레닌주의에 속하여 있다. 자본주의 세기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리 석 현 역)

一九五〇년 三월 二十五일 인 쇄
一九五〇년 三월 三十一일 발 행

「근로자」 제六호
〔정가 三十원〕

책임주필 기 석 복
인쇄인 조 훈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 동 신 문 자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잡지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一—五번

ㄱ—18409